

이 발표논문집은 200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KRF-2007-362-B00013)



2012년도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 소비에트의 팽창과 갈등: 제국과 민족주의

- 일 시 2012년 5월 4일(금)
- 장 소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7층 화상회의실
- 주 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APRC)
- 후 원 한국연구재단



## 프로그램

· 09:40 ~ 10:00 등록 / · 10:00 ~ 10:05 개회식

· 10:10 ~ 12:10 제1세션, 「소비에트 제국의 논리와 기구」

사회자 여인곤(통일연구원)

발표자 강봉구(한양대학교) : “소련 제국과 민족”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 “소비에트 시기 민족정책”  
우평균(한양대학교) : “러시아민족주의의 논리와 소연방의 유지 및 해체”

토론자 이지수(명지대학교), 전병국(건국대학교), 고가영(이화여자대학교)

· 12:10 ~ 14:00 오찬

· 14:00 ~ 16:00 제2세션, 「소비에트 지역의 민족 상황과 갈등」

사회자 정은숙(세종연구소)

발표자 우준모(선문대학교)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의 민족 상황과 민족운동”  
박정호(한국외국어대학교) :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새로운 민족의 형성과 발전”  
현승수(한양대학교) : “열린 민족, 닫혀진 국가: 소비에트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형성과 발전”

토론자 김경순(국방대학교), 정세진(한양대학교), 강삼구(연세대학교)

· 16:00 ~ 16:20 휴식

· 16:20 ~ 17:30 제3세션, 「제국의 경제: 체제와 운영」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발표자 김영진(한양대학교) :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불균등발전과 해체”  
김상원(국민대학교) : “소비에트 분배 및 생산 메커니즘과 지역간 격차”

토론자 이상준(국민대학교), 성원용(인천대학교)



# 목 차

## ▪ 세션 I : 소비에트 제국의 논리와 기구

강봉구 | 소련 제국과 민족

김성진 | 소비에트 시기 민족정책

우평균 | 러시아민족주의의 논리와 소연방의 유지 및 해체 9

## ▪ 세션 II : 소비에트 지역의 민족 상황과 저항

우준모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의 민족 상황과 민족운동 41

박정호 |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새로운 민족의 형성과 발전 53

현승수 | 열린 민족, 닫혀진 국가: 소비에트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형성과 발전 67

## ▪ 세션 III : 제국의 경제: 체제와 운영

김영진 |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불균등발전과 해체 85

김상원 | 소비에트 분배 및 생산 매커니즘과 지역간 격차 105



## 세션 1, 「소비에트 제국의 논리와 기구」

■ 사회 : 여인곤(통일연구원)

■ 발표 :

소련 제국과 민족 | 강봉구(한양대)

소비에트 시기 민족정책 | 김성진(덕성여대)

러시아민족주의의 논리와 소연방의 유지 및 해체 | 우평균(한양대)

■ 토론 : 이지수(명지대), 전병국(건국대), 고가영(이화여대)

# 러시아민족주의의 논리와 소연방의 유지 및 해체

우 평 균(한양대)

## 1. 들어가는 말

본 글에서는 소연방 성립 이래 전개되었던 러시아민족주의(Russian nationalism)의 흐름을 개관하고, 소연방 붕괴 과정에서 작용했던 민족주의의 흐름을 제시할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이라는 하나의 ‘체제 형식’을 내세워 국가를 건국하고 발전시켰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연방)의 경험 속에서 최다 민족이었던 러시아인들이 어떤 민족적 입장을 발전시키고, 연방해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본 글의 전제가 된다. 즉 소연방은 특정 민족의 가치 혹은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운영할 수 없었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소련에 맞서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정당화하려했는가는 소연방 붕괴와 더불어 러시아로 체제전환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에도 시금석이 되는 역사적 실체이며,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존중해야 하는 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러시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러시아인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다름 아닌 ‘소비에트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인들,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족주의 운동이 소비에트 연방 해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 러시아에서 러시아적인 가치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 연방 역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러시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적인 가치를 확립하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독립하는데 기울였던 노력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민족의 가치를 확립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혹은 운동에 있어서 중심되는 개념들이 무엇이고, 그 개념들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나로드’, ‘애국주의’, ‘민족주의’ 등 소비에트 시대부터 현재까지 제일 많이 구사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용어를 살펴 볼 것이다.

둘째, 러시아 혁명부터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전까지, 즉 1985년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snost)의 전개를 통해 확산시킨 사회적 논쟁의 활성화 이전 시기까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당국이 러시아민족주의를 통제하는 가운데 러시아 민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던 러시아 지식인들과의 대립의 양상

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통제’와 ‘저항’이 반복되는 역사로 볼 수 있던 소비에트 체제 형성 및 유지 기간 동안의 러시아 민족주의의 흐름과 주장을 살펴보는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시기(1985)부터 소연방이 붕괴되는 시점(1991.12) 까지의 소련사를 개관하면서 러시아민족주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소연방 붕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러시아민족주의자들 중 일부가 소련제국을 유지하려는 제국 수호 세력과 결합하여 정치활동 전면에 나섰다. 정치 세력화에 실패하고 대중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외면받게 되는 과정과 더불어 소련 말기 옐친(Boris Yeltsin)이 주도했던 러시아공화국의 주권 수호와 ‘러시아 우선’의 수사에 결과적으로 경도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 2. ‘러시아인’(Russians)에 대한 논의와 제정기 러시아민족주의의 특징

러시아 민족형성사는 누가 러시아인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복잡한 논쟁적 요소를 갖고 있다. 러시아 민족의 시원이 형성되던 최초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러시아인들의 조상인 동슬라브인들은 기원전 동유럽의 남쪽 지방에 살았던 고대 농경·목축 민족의 후예로서 기원후 초기에는 발트해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지역과 동시에 카르파티아 산맥으로부터 오카강과 볼가강 상류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었다. 그들은 10세기에 “키에프 루시”(Kievan Rus, Киевская Зусь)<sup>1)</sup>라고 불리게 된 이들로서, 드네프르 계곡에서 슬라브어를 사용하며 살다가 북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우그리아어(Finno-Ugrian)를 사용하는 이교도들을 기독교화·슬라브화시켰다. 13세기에 이 국가는 몽골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주민들 대부분은 타타르 칸에 대해 가신 관계에 놓였고, 키에프를 포함한 남서쪽은 리투아니아의 일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폴란드의 일부가 되었다. 이 때 부터 러시아 국가의 주역이 누구인가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모스크바가 키에프 루시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전통적인 ‘러시아 중심적 시각’(classical Russian Doctrine)은 모스크바 주도하에서 중부와 북부러시아의 가신국가들을 점차 타타르의 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으며, 강력한 모스크바 국가로 단결해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시간의 경과하면서 폴란드 지배하의 러시아 남서지역을 해방시켰다고 한다. 이 시각에서 볼 때, 백러시아인(White Russians, Вело Русский)으로 알려진 서쪽과 남서 지역 사람들은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러시아 민족의 일부를 단순히 형성했을 뿐이다.<sup>2)</sup>

이에 반해 근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제기하고, 폴란드 역사가들이 뒷받침해 온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적인 시각”(Ukrainian nationalist versions)이 존재한다. 이 시각에서 볼 때, 모스크바는 초창기 비잔틴-슬라브 문화의 단순한 잔재만을 계승한 이방의 존재이며, 타타르

1) ‘루시’라는 명칭은 15세기 후반까지 쓰였고, 이반 3세 시대에 ‘러시아’(Russia, Россия)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불리기 시작했고, 1721년 1세에 의해 러시아가 정식 명칭으로 채택되었다. 서방의 많은 역사가들은 오늘날까지도 키에프 루시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온 노르만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소련의 학자들은 소위 ‘노르만 학설’이라 불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박을 가해 왔다. 즉, 고대 러시아 국가가 동슬라브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독자적인 발달의 결과로 노르만인들이 슬라브인들의 땅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며 주장한다. С. Н. Сыров, *Страница историк* (Москва: Русская явк, 1987); 기연수 역, 『러시아의 역사: 고대 루시에서 볼셰비키 혁명까지』 (서울: 동아일보사, 1989), pp.30-31.

2) Hugh Seton Watson, *The Russian empire, 1801-1917* (Oxford: Clarendon Press, 1988), pp.15-16.

혹은 아시아적 전제주의의 전통이 지배하는 더욱 강력한 혼합체에 의해 흡수된 존재일 뿐이다. 이 시각에서 모스크바는 키예프 루시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키예프의 그것과는 다른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본다. 그들은 순수하게 슬라브가 아니며, 우그르인과 타타르인들의 유입에 따른 혼합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때, 드네프르 동쪽 땅(우크라이나의 서쪽 변경)이 모스크바 짜르의 보호 하에 놓여졌던, 페레이알슬라블(Pereiaslavl)의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방 혹은 할양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의 각각의 선조들인 두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우측 변경인 드네프르 서안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은 우크라이나의 해방 혹은 통일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제국적 확장일 뿐이었다.<sup>3)</sup>

역사적으로 이처럼 논란이 되어 온 “누가 러시아인가?”에 대한 의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간단히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모스크바라는 소단위에서 방대한 러시아제국으로 자라난 국가라는 데에는 보편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은 언제 ‘민족’(nation)이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제국적 팽창에 의한 국가 확립이 민족형성<sup>4)</sup>보다 선행했다는 점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국가가 민족보다 먼저 급속하고 힘차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초에 폴란드와 스웨덴의 위협에 의해 촉발되기 시작한 러시아 민족의식의 형성을 이야기 할 때도 러시아 민족이 당시에 과연 존재했었던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sup>5)</sup> 당시에 러시아 민족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던 러시아 인민들은 대부분 짜르의 노예들이었을 뿐이며, 정교회와 군주에 순응하는 수동적이고 비결사적으로 흠어져 있는, 전제정치의 힘없는 통치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대지’(earth, земля) 러시아에 대한 애정은 소수의 귀족들이 지녔던 ‘신성한 러시아’(Holy Russia) 라는 감정의 복속 대상이었으며, 러시아 전제정의 가장 강력한 관념적 통제도구로서 기능했다. 농노 제도와 군복무, 조세 등에 의해 억압받는 농민들은 그 어떤 형태의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민족 감정의 대체물로 정교 신앙에 경도되었다. 반면에 일정한 입헌주의의 형태를 주장하면서 짜르체제의 개혁을 주장했던 소수 귀족 엘리트들마저도 농민을 비롯한 하층계급들을 계속 짜르의 노예로 간주했으며, 그들과의 수평적인 연계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의 무제한의 절대주의 체제가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sup>6)</sup>

상층 귀족의 입장에서 뵘프르 1세(Peter I)가 시작해서 캐더린 2세(Catherine II)가 지속했던 러시아 상류계층에 대한 유럽화 정책은 자신들의 민족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민족의식의 성장에 공헌하게 된다. 그들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자신들의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거기에다가 1812-1815 간의 나폴레옹과의 전쟁은 러시아

3) Hugh Seton Watson (1988), pp.16-17.

4) 많은 러시아 학자들이 사회형성, 경제관계의 통일성, 영토, 언어, 문자의 공통성을 갖게 된 15~16 세기부터 러시아의 민족성(Русская народность)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특히 문화적으로 교회슬라브어가 러시아인들의 언어로 바뀌어갔으며, 15세기 말에 러시아 영토의 단일성이 ‘러시아’로 칭하게 만든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에트의 일부 역사가들과 작가들은 이반 칼리타(Ivan Kalita, Ивана Калита) 시대에 앞서는 14세기부터 러시아의 민족성이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는데, 14세기는 새로운(모스크바의) 루시가 형성된 시기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Е. Троицкий, *Русская нац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новление*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1989), сс.26-28.

5) Е. Троицкий (1989), сс.17-18.

6) Louis L. Snyder, *Varieties of Nationalism: A Comparative Study* (Illinois: The Dryden Press, 1876), p.212.

민족의식의 형성에 있어 큰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의 근대민족국가(nation state) 형성의 단초를 열어 준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과 러시아 침공을 통해 러시아의 소수 인텔리겐치야(Intelligentsia)들을 중심으로 민족적 자의식에 대한 각성이 나타났으며, 농민과 농촌의 사제들은 그들대로 나폴레옹 군대를 이교도 무리가 이끄는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나폴레옹과의 전쟁은 그들에게 최초로 자신들이 각자 지니는 계급적 차이와 관계없이도 민족적 연대감을 조성시켜 주었다. 당시의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이 볼 때, 러시아인들이야 말로 나폴레옹의 전제정치로부터 유럽과 세계를 해방시켰던 영혼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지적으로 흥미해져 가고 있던 풍토에서 서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성주의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결국은 그들 정신사의 파탄을 가져 왔으며, 이는 신앙 대신 경험을 선택한 뗏가라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민족적 이념과 그 사명에 충실한 러시아만이 하나의 인류를 세계에 내어 보이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주의”(messiahism)을 신봉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몰고 온 러시아의 민족적 연대감은 전후에도 잔존해 정교회와 짜르 및 러시아 민족에 대한 충성이 하나로 결합해 러시아 전제주의의 특징적인 요소로 19세기에 만개하게 되었다. 결국 러시아 민족의식의 각성과 제국적인 민족주의의 발로는, 그것이 반동적인 것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시기부터 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러시아민족주의는 이러한 민족적 자의식에 대한 내부적인 각성과 더불어 짜르 정부 당국의 부단한 팽창적 제국주의 추구와 같이 맞물려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 열강들과는 달리 국민국가 형성이 뒤늦었고, 적극적인 사회개혁의 의지를 동반하지 않은 전제정을 갖고 있던 러시아는 제국의 팽창으로 이룩된 수많은-러시아 민족 이외의-소수 민족들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였으며, 민족관계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짜르 러시아는 국가 정책의 도구로써 민족주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sup>7)</sup> 현실적인 사회개혁 조치들은 오히려 “관제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기치 아래 기피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반동적인 제정 러시아의 민족주의는 메시아주의의 날개까지 추가적으로 달고 제국적 팽창이라는 비상을 계속 시도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추락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 러시아에서 지연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형성’의 과제는 혁명에 성공한 볼셰비키(Bolsheviks)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 3. 러시아민족주의의 주요 개념들: ‘나로드’, ‘신성한 러시아’,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러시아민족주의는 러시아에서 민족과 인민개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민족과 인민개념은 인민 혹은 민족의 뜻을 지닌 러시아어 ‘나로드’(narod, народ) 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나로드는 서구에 말하는 평민 혹은 서민이라는 뜻인 plebs도, populus(민중, 대중)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양 개념은 러시아에는 부재했던 도시의 정치적 생활로부터 연유한다고 한다. 나로드는 종교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대인의 Kahal 혹은 그리스의 laos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념으로 모인 공동체임을 환기시켜 준다. 민족(성) 혹은 국민(성)을 의미하는 “나로드노스찌”(народность)<sup>8)</sup> 라는 말은 짜르의 관제민족주의, 슬라브주의자들의 유토피아, 인민주의자들의 유토피아

7) Edward C. Thaden, *Conservative Nationalism in Nineteenth-Century Russ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4), pp.204-206.

8) 러시아에서는 ‘민족’의 뜻으로 ‘나로드’ 및 ‘나로드노스찌’, 두 단어를 병용하고 있다. 두 단어의 실제

모두에 공통적으로 깃들여 있는 일종의 낭만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이 말은 근대적 세계관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짜르 정치체제와 동시에 짜르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마저도 정당화하는 힘을 갖고 있다. 즉, 대립되는 정파 간에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지고의 개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드’라는 신비스런 말은 제국 러시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공식적인 견해로부터, 그리고 해방운동에 역점을 두는 비러시아 민족들의 견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된다. 그것은 서구에서 사용하는 ‘계급’(class), ‘국가’(state) 같은 개념들과는 다른 ‘인민’(people)을 의미한다.<sup>9)</sup>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나로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헌신하도록 요청되는 초월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신비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다.<sup>10)</sup> 이렇게 신비적인 위엄마저 지닌 ‘나로드’는 러시아민족주의의 근간이 되는 용어로서 실제적인 민족주의의 행위 주체이면서 추상화된, 대상화된 선전의 개념이기도 하다.

나로드가 이처럼 신비화된 측면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나로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애국주의’(patriotism, патриотизм)는 좀 더 가시적이고 확연한 현상적인 측면을 서술하는 개념물이다. 애국주의를 거론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신성한 러시아’(holy Russia, священная Россия)를 들 수 있다. 체르니아프스키(M. Cherniavsky)는 ‘신성한 러시아’ 또는 ‘성스러운 러시아 땅’이라는 개념을 논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상대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그나마 가장 가까운 예가 있다면 그것은 ‘신성한 아일랜드’(holy Ireland)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신성한’이라는 수식어는 한 나라가 세계 문명에서 독자적인 구원(救援)을 내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붙일 수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경우는 15세기 중엽 로마제국이 종말을 고하게 된 콘스탄티노플의 붕괴와 교회의 재통합 시도로 러시아가 세계의 유일한 정교국가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러시아가 인류 구원의 근거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sup>11)</sup>

표현은 거의 유사한 것이지만, 소련 헌법의 번역에 있어서는 전자를 민족으로, 후자는 ‘소민족’ 혹은 ‘민족체’(혹은 준민족)로 번역하고 있다. 나로드노스찌를 정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레닌의 혁명이론에서는 “민족으로서 자각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민족문화나 민족어 등의 의식이 미발달한 단계의 민족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탈린이 1950년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체문제”라는 논문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로써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준(準)민족”이라고 개념화하면서 종족(race, племя)과 민족(nation, нация) 사이에 존재하는 범주를 설정하여 공산주의 민족이론을 체계화하려고 했다. 佐葛信夫, “소연방 민족분규의 배경과 구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문제』, 제22권 11호(1991.11), pp.103-104; Joseph Stalin, *Marxism and the Problem of Linguistics* (Moscow: Progress, 1980), pp.8-9; Institute of Marxism-Leninism, *Leninism and the National Questions* (Moscow: Progress, 1974), p.46.

9) 미하일 안토노프(M. Antonov)는 계급개념에 반하는 나로드 개념의 확립을 알렉세이 코미아코프(A. Khomiakov), 이반 키레예프스키(I. Kreevskii) 등 19세기 슬라브주의자들의 주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인민이 계급이 아니라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견해는 제정 당시 슬라브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 간의 격돌 뿐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에도 러시아 애국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 간의 논쟁을 야기시켰다. M. Антонов, “Учение славянофилов—высший взлет народ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в Роиний в доленинский период,” *Вече*, №. 1, с.23; John B. Dunlop, *The Faces of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203-204.

10) Alain Besancon, "Nationalism and Bolshevism in the USSR," Robert Conquest, *The Last Empire* (London: Ampersand Books, 1962), pp.1-2

11)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um)은 이와 같은 시각은 적어도 짜르의 시각이라고 하면서 17세기 초 로마노프 왕조가 성립될 때까지 널리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보다는 아마 대중의 생각을 반영한 대중적인 용어로서 위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며, 이는 명백히 민중적이고 비공식적인 힘이라고 판단한다. Michael Cherniavsky, *Tsar and People: Studies in Russian Myths* (New York: New Heaven and London, 1961), p.107; Eric J. Hobsbau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9: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많이 사용해 온 용어로서, 서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기독교 서구(Christian West)”라는 말과 비견된다고 한다. 이 개념은 러시아 정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까지 볼 수 있으며, 특히 교회와 민족 간의 연결(bond) 요소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12)</sup>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나 이 표현을 러시아 인민이 외세 침입에 의해 위협받을 때 사용했다. 그럴 때는 물론 교회와 국가는 신성한 러시아의 방위라는 측면에서 동맹이 된다. 정교회는 민족적 고난의 시기 뿐 아니라 평시에도 인민과 조국과 더불어 결합하여 이 개념의 사용을 증대시켜왔으며, 이는 소비에트 시대에 있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sup>13)</sup>

지금까지 살펴 본 몇 가지 용어들은 근대 러시아 민족의 원형적인 특징을 지니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 흡스봄은 ‘신성한 러시아’ 개념에 깃들어있지 않은 언어(language)와 민족(ethnicity)를 들면서 민족주의 성립 이전의 대중적 “원형민족주의”(popular proto-nationalism)의 주요한 요소로서 ‘신성한 러시아’라는 말 한 마디에 담겨 있는 대중적 혹은 민중주의적인 의미는 근대 민족과 상응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sup>14)</sup>

상기한 개념들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등장하는 개념은 “애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 돕(Leonard W. Dobb)이 제시하는 애국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의 복지(welfare)와 자신이 속해 있는 중요한 그룹의 그것이 권력의 보존과 확대 및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에 종속된다고 보는 일개인의 다소 간의 의식적인 신념.”

이에 비해 민족주의는 “(1) 한 사회 내에 사람들이 살며 (2) 자신들의 애국심이 분출되며 (3) (그것에 대한) 정당화가 존재하고, 그것이 쉽게 표명될 수 있으며 (4) 자기 정부의 목표라는 견지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요구할 수 있음을 요구하며 (5) 지도자가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대중들에 대해 적합한 행위를 주도하거나, 혹은 주도하지 못하는 일련의 단일한 총체”<sup>15)</sup>이다.

돕의 이와 같은 정의는 민족주의적인 태도의 생성과 유지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기여와 외부적 위협 및 민족주의적인 반응 간의 연계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의가 반드시 다민족국가인 소련과 같은 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나 사회관계의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한 이 정의는 러시아민족주의의 경우 상당 부분 합치되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이른바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수사와 그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혼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 다만 ‘애국주의’는 스탈린이 최초로 거론했듯이, ‘사회주의’ 조국, ‘소비에트’ 조국에 대한 보위를 그 중심 내용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방어보존을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온갖 침체 경향과 병폐 현상의 원인으로 맑스-레닌주의를 들면서, 그것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소비에트 국가의 철폐를 주장한다. 이렇게 양자가 분명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서로 상

University Press, 1990), pp.49-50.

12) William Van den Bercken, "Holy Russia and the Soviet Fatherland," *Religion in Communist Lands*, vol. 16 (1988), p.267.

13) 1985년에 러시아정교회의 모스크바 교구장 피멘(Pimen)은 사람들에게 지적하길, “진정한 러시아정교회 성직자는 언제나 애국자였다. 조국애와 민족적 이익에 대한 옹호는 성직자의 불가결한 책무”라고 말했다. William Van Den Bercken (1988), p.268.

14) Eric J. Habsbawm (1990), p.51.

15) Leonard W. Dobb, *Patriotism and Nationalism* (New He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4), p.6.

대의 논리와 그 내용을 차용해 자신의 사상적 내용성을 보강시켜 온 것이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에트 당국이 자신의 소비에트 애국주의라는 기본적인 세계관을 견지하면서 종종 러시아민족주의를 인정하거나 이용하는 경험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각기 상이하게 이해하는 인식의 편차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러시아적인 맥락에서 “애국주의”와 “쇼비니즘” 및 “민족주의”간에 구분을 하려는 조심스러운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러시아의 애국주의자와 쇼비니스트 및 민족주의자 모두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밝혀주는데 알렉산더 야노프(Alexander Yanov)가 일조하고 있다.

“애국주의·쇼비니즘·민족주의는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국가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적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 애국자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애국심이 그가 인류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쇼비니스트는 자신의 나라는 사랑하지만 인류는 사랑하지 않는다. 특히 유대인 출신이라면 더욱 싫어한다. 민족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인류는 단지 자신의 나라를 정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침략세력으로 본다. 그 선두에는 당연히 유대인이 서있다고 본다.”<sup>16)</sup>

야노프는 애국주의를 민족주의나 쇼비니즘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았고, 쇼비니즘과 민족주의를 동일한 맥락에서 보았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서 이를 구별한다는 것이 여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선, 소비에트 체제하의 애국주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 보수적인 서방의 논자들은 국수주의적인 러시아민족주의를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러시아인들은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러시아민족주의를 다소간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sup>17)</sup>

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공산세계 외부에 대한 파괴적인 증오를 배태시켰기 때문에 고무되며,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절멸을 계획하는 혁명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반면에 가장 국수주의적인 러시아민족주의는 “소비에트 애국주의”로 칭송된다. 더욱이 이러한 소비에트 애국주의는 공산주의의 세계 계획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로 진화하게 된다.<sup>18)</sup>

후자의 입장은 1930년대 초반 스탈린이 조국(fatherland, родина) 같은 민족주의적 수사의 공식 사용을 정당화하기 까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반동적인 부르조아의 무기로서 소비에트의 정치어휘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레닌 시기에 이미 스탈린의 민족주의 정책과 독트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다.<sup>19)</sup> 더구나 스탈린은 나치 독일에 대항한 ‘대조국전쟁’ 동안에 전개되었던 애국적인 선전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용어의 사용과 그 정당화의 열도를 더해 갔다. 선전의 대외적인 명분은 물론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이름을 내걸고 독려되었다.

1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ussian Nationalism Today," *Radio Liberty Research Bulletin* (Munich), Special Issues, December 19 (1988), p.49.

17) Walter Laqueur는 러시아민족주의가 극우적인 색채를 띠수록 애국주의, 민족주의 및 쇼비니즘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Walter Laqueur, "Russian Nationalism," *Foreign Affairs*, vol. 71, no. 5 (Winter 1992/1993), pp.110-111.

18) Alain Besancon (1962), p.5.

19) 일례로 서방의 ‘기업주의자들’에 맞서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라고 요구한 1918년의 적군의 전장에 대한 레닌의 교시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진행된 이같은 현실은 실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수사법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체제를 이끌었던 당국자들은 결코 민족주의라는 대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내세운 적은 없었다. 체제의 기본적인 운영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포장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구성은 민족주의적인 내용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러시아인의 시각에서 볼 때,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에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가 과거의 애국주의라고 부르던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와 같은 견해들과는 달리 제3의 입장에서 야노프처럼 러시아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애국적인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비에트 지도부가 애국주의의 상징을 자신의 이데올로기 속에 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서구의 관찰자들이 혼동되었을 지라도, 소련 내의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러시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소비에트 선전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에 대한 ‘감정적인’ 이용과 진정한 러시아민족주의 간에 벌어진 격차를 입증한다. 한마디로 양 측은 서로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분명히 현대 소비에트사에서 서로 결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내용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소비에트 애국주의는 ‘조국’ 혹은 ‘조국 러시아’, ‘신성한 러시아’, ‘신성한 국경’, ‘신성한 전쟁’ 같은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러시아민족주의가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달리 특징으로 삼는 것은 정교 신앙의 민족종교적 측면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민족문화적 요소가 깃들어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체제당국에 의해 줄곧 수용되어 온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언술 외에도 당국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러시아민족주의도 내용적으로 수용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러시아민족주의는 양자가 어느 정도 혼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 4.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의 러시아민족주의

러시아 혁명은 계급혁명이면서 동시에 여러 민족들 간의 관계가 투영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혁명이기도 했다. 제정 치하에서 러시아에 대한 소수 민족들의 민족적 예측 상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민족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신생 볼셰비키 권력이 우선시해야 할 정책적 관심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은 계급혁명의 성격이 우선이었고, 특히 혁명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착취 폐절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민족주의적 관념이나 구호는 전면에 대두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러시아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의 틀 내에서만 볼 때, 러시아 혁명의 전 측면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즉, 러시아 혁명은 상당 부분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민족주의 혁명의 성격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러시아 혁명은 전반적인 혁명의 내용이나 혁명의 주도세력 및 혁명 후 세계건설 과정 등의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체제 변혁의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20) Э. А. Поздняков, *Нация, национализм,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 к ультура, 1994), с.61.

21) 야노프는 제리 휴(Jerry Hough)나 리처드 파이프스(Richard Pipes)가 취하는 “모든 러시아인들은 민족주의자”라는 가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lexander Yanov, *The Russian Challenge and the Year 2000*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7), pp.xi-x vi.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혁명은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러시아 특유의 역사적·환경적인 요인이 혁명의 준비 내지 실천과정에서 크게 강조되었다. 당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맑스가 견지하고 있던 혁명에 대한 일반론은 혁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러시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혁명 논리 앞에 그 힘을 잃고 말았으며, 혁명을 위한 모든 전략 전술은 하나같이 러시아적인 개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sup>22)</sup> 결국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의 승리는 저개발국을 근대화하려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혁명, 즉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와 부르조아 계급의 동맹보다는 노동자-농민의 동맹을 강조한 점, 혁명 과정에 당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의 강조 등이 골자인 레닌의 혁명 논리는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 비추어 적용하기 어려우며, 외세의 도움 없이 자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저개발국의 민족주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또 다른 측면에서 러시아 혁명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볼셰비키들이 제정 치하의 소수민족들에게 부여한 민족적 예속상태부터의 해방이라는 언명과 그에 대한 소수 제민족들의 지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레닌이 1905년 혁명 이래 줄곧 견지해 온 민족자결권의 확보를 통한 볼셰비키의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은 상당 부분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소련 국내적으로 볼 때, 이후의 대조국 전쟁 시기(1941-1945)에 이르면 볼셰비키 혁명 자체가 민족해방운동으로까지 취급되기 까지 한다. 주로 러시아 농민들로 구성된 소비에트 적군이 나치 침략군에 맞서서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비러시아인들-특히 모슬렘들-을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이 혁명이 가지는 혁명의 논리, 혁명의 추진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의 사회주의적 동원 과정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른다. 소비에트 체제의 구체적인 건설을 본격화한 스탈린은 체제 건설의 노력을 러시아민족주의의 기반을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입장은 결국 러시아민족주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일국 사회주의론의 체계화로 연결되었다.<sup>24)</sup> 결국 소비에트 체제와 러시아민족주의 간의 상관성은 러시아 혁명을 준비하고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혁명 이후의 체제수립 과정에서도 줄곧 유지되었다.

## 5.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민족정책과 러시아 민족주의

1920년대 소련 민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코레니자찌야”(коренизация)로 불리우는 본원적 주민화 내지는 토착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토착화 정책’은 해당 지역 출신의 민족간부를 양성하고 발탁하는 체계 형성을 통해 민족정책에 있어서의 “내용은 민족적, 형식은 사회주의”적인 통일성을 기하려 한 것이다. 이 정책의 결과로 각급 기관에서의 해당 민족 출신자의 진출이 증대했으며, 개별 민족공화국의 민족어 사용이 권장·확대되었고, 개별 민족의 역사와 민족 문화에 관한 출판물도 확대되었다.

짜르 전제정의 러시아가 남긴 유산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출발해야 했던 소비에트 정권 초기 토착화 정책은 민족적 독립의 역사적 경험을 누려 본 적이 없던 러시아 내의 많은 소수 민족들

22) Vladish Krasnov, *Russia Beyond Communism—A Chronicle of National Rebirth*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100-101.

23) John H. Kausky,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1962), pp.57-70.

24) 조정남, “소비에트 체제와 러시아민족주의,” 銅谷 김하룡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탈냉전 시대와 새로운 정치질서』 (1994), p.141.

에게 자신들의 민족문화를 발달시키고 민족의식을 일깨우게끔 만들었다. 레닌이 처음에 생각했듯이, 민족 자체에 대한 분리보다는 민족적 형식에 대한 양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목표인 민족 간 연대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이 정책은 1920년대 후반을 경유하면서 점차 변질하게 된다.

1930년대 까지 개별공화국은 물론 그보다 작은 단위의 소수 민족들이 자치구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레닌 사후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 까지만 해도 그 전에 도입된 민족적 형식에 대한 양보 정책은 잘 지켜져 왔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 민족들이 중앙에 반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까지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여건은 1922년 말 체결된 연방조약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던 것이기는 하지만,<sup>25)</sup>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마저 1930년대 중반에는 타격을 입게 된다. 기존의 민족관구(национальное райо́н)와 민족촌 소비에트(национальной сель совет)가 폐지되었으며, 민족 문제를 다루던 여러 기구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폐지되었다.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민족소비에트는 소련 최고 소비에트 민족소비에트로 바뀌었고, 이 민족소비에트는 연방소비에트의 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전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간부회에 속해 있던 북방변경민족 공동행동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소련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민족관계연구소도 폐지되었다.<sup>26)</sup>

1930년대 동안 진행된 종교탄압과 농업의 집단화정책은 일부 민족의 경우 민족문화의 피폐화마저 초래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의 민족정책이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의한 단일 소비에트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갔으면서도 농업의 집단화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피해 받는 전통적인 러시아 농촌의 문화적 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추진되었던 점은 이후 러시아민족주의가 체제 당국에 대해 갖는 강력한 불만 요인을 이루게 된다.

혁명 이후 적대시되었던 러시아민족주의가 체제 당국에 의해 1930년대부터 수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내용적으로 그것은 당이 소비에트 국가의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인 가치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정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국가의 군사와 근대화 프로그램의 역사적 사례로서, 피터대제(Peter the Great)가 추앙을 받았고, 영구적인 숙청사례의 선례로써 이반뇌제(Ivan the Terrible)가 거론되었으며, 민족주의와 인민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빼레드비즈니끼(Передвизники)의 그림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표본이 되었다. 또한 소비에트 당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영광과 서구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는 톨스토이(Lev Tolstoy) 같은 부르조아 고전작가에게서도 사회주의적 용도로의 이용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러시아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 초민족적인 맥락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종교적 사고, 근대 예술,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y) 등-은 어떤 것이든 금지되었다.<sup>27)</sup> 이러한 방식으로 스탈린은 기존의 민족주의와 종교가 차지하던 공간에 애국심과 소비에트 애국주의 등 소비에트 윤리로 포장된 새로운 민족주의를 대체해 넣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대조국전쟁(Great Patriotic War)의 수행과정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941년 독일의 러시아 침략 이후에 러시아민족주의는 조국이 처한 치명적인 운명 앞에서 더욱 극적인 형태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시 동안 러시아민족주의의 용도는 소련이 처한

25) 중앙정부와 개별 공화국 간의 권력 배분만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단지 외교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모든 현실적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었고, 나아가 사법, 노동, 교육 및 공중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그 일반원칙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26) E. B. Тодевoсиан, “Совет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История СССР*, №. 3 (1989), с.76.

27) Alain Besancon (1962), p.4.

절망적인 상황의 결과였다. 주로 러시아 농민들로 이루어진 적군들이 빠르게 상실되어 가는 비 러시아인들의 거주 지역 수복을 위해 싸웠는데, 소련 내 소수민족들은 충분한 전투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소비에트 조국의 운명은 주로 러시아인들에 달려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민족주의는 전시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전 초기 스탈린의 가장 가까운 자문자였던 슈체르바코프(Alexander Schuberbakov) 같은 사람에게 러시아민족주의는 하나의 정치적인 대안으로 작용했는데, 그가 책임진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과 예술의 탈이데올로기화 (2) 종교, 특히 러시아정교회와의 협상 (3) 코민테른의 해체 (4) 러시아적 취향을 담은 소비에트 찬가의 채택.

전시 러시아민족주의의 주요한 측면은 슈체르바코프의 대 유대인정책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sup>28)</sup> 유대인 분트의 해체 이후 처음으로 전연방 차원의 조직인 “유대인 반파시스트 위원회”(The Jewish Antifacist Committee)가 1930년에 결성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이디쉬어 출판이 허용되었는데, 이것은 소련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방의 유대인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유대인으로서 서구 사회로 이주한 ‘민족볼셰비즘’(national Bolshevism) 연구의 권위자인 미하일 아구르스키(Mikhail Agursky)는 전시 러시아민족주의의 또다른 특징으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들고 있다.<sup>29)</sup> 여기서 고립주의란 2차 대전 개전 직전인 1941년의 국경으로 소비에트 국가의 영토를 국한시키자는 주장으로, 1944년 5월 1일 기존 소비에트 영역을 넘어 영토를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는 스탈린의 지시 이후 무용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시 러시아민족주의의 용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규모적인 소비에트 영토의 확대를 주장하는 “즈다노프적인 대안”(Zhdanovist alternative)이 채택되어 종전 후 동구 유럽과 북한 등에 소비에트 위성 국가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러시아민족주의의 슬로건만 가지고서는 소비에트의 영역 내에서 신생 국가들을 쉽게 통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민족주의가 완전히 거부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것의 많은 요소들이 소비에트의 정치적 생활 속에 흡수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새로운 정책에 보조적으로 수반되었다. 게다가 1948년 이후 본격화되었던 유고슬라비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즈다노프적인 팽창주의의 통제 불가능한 단점이 드러나자 슈체르바코프의 러시아 고립주의와 즈다노프의 팽창주의적 공산주의를 결합한 접근 방식이 수슬로프(Suslov) 등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즉, 팽창주의적이면서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관통되는 메시아니즘적인 러시아민족주의를 주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 민족주의는 팩스 소비에티카(Pax Sovietica)의 기초로서 인정된다. 즉, 동구를 위시한 공산 블록의 민족국가들의 연합체가 단일의 중심인 소비에트 러시아에 복속되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sup>30)</sup>

28) 러시아 내 유대인 문제는 러시아민족주의 현상을 살펴보면 하나의 시금석이지만 러시아인과 유대인 양자 간의 해묵은 민족감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각종 자료를 통한 계량화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러시아 혁명의 결과 유대인에 대한 많은 차별 조치가 폐지되었으나 1932년 국내 여행허가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에게 민족적 구별에 따른 차별화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다. 또한 히틀러의 소련 침공도 유대인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렇지만 전시에 유대인들의 애국심은 러시아인 못지않게 고양되었다. 그 예로 유대인 장군들의 곳곳에서의 활약상으로 인해 소련에서 15번째로 큰 민족인 유대인이 소련의 전쟁영웅 숫자에 있어서는 5번째로 많이 차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소비에트 지도부의 유대인에 대한 유희정책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Horace B.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p.128-130; 전용현 역,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박영사, 1990), pp.166-167.

29) Mikhail Agursky, "The Prospects of National Bolshevism," Robert Conquest, eds., *The Last empire: nationality and the Soviet future*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6), p.91.

대조국전쟁 기간 동안의 러시아민족주의의 대외적인 기조가 상기한 방식으로 관철되었던 반면에, 그 정책적 실행은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발트 3국 및 베사라비아, 투바 등에 대한 합병으로 나타나 마치 소비에트 러시아가 짜르 전제시대의 제국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정도로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띠었다.

국내적으로도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초반 스탈린이 죽기까지의 시기동안 억압적인 민족정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전개된 소수민족들의 강제 이동 및 민족 간부들의 대량 숙청도 소비에트 조국을 보존하려는 집념에서 비롯된 스탈린의 편집증적이고 단호적 정책으로서, 일종의 변질된 러시아민족주의를 적용한 결과였다. 스탈린이 지나치게 러시아 민족을 찬양하고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추켜세우는 언명<sup>31)</sup>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은 인종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성격마저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40년대에 열기를 더해 간 민족주의 노선에 따라 러시아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에서도 나타났다. 연방공화국 역사학에서의 ‘러시아 지향성’이 나타나면서 공화국들 또한 각자의 ‘소민족주의’를 개발했다. 당시로서는 소민족주의가 러시아국수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타지크 민족, 아르메니아 민족, 우즈베크 민족 등의 소민족주의가 서로 마찰 없이 공존하면서 러시아민족주의를 보조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은 분명히 러시아 민족이었다. 그 다음 단계 소련의 다른 민족들이 도열해 있었다. 스탈린 자신이 갖고 있던 러시아 민족 우위의 관념은 언어에 대한 그의 사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sup>32)</sup> 그는 러시아어가 언제나 승자로 등장했다는 데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러시아국수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부여했다.

1940년대 말 스탈린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제주의 배격운동이 인텔리겐차들을 대상으로 광범하게 펼쳐지면서 이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거 숙청을 당했다. 스탈린이 죽기 직전 표면화되었던 유대인 의사들의 ‘음모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의 전통이 재생·고양되기까지 했다.

결국 1917-1953년 시기의 러시아민족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에트 당국이 통제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지지를 동원하는데 목적을 둔 상징(symbols)과 슬로건(slogan)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적 이상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도스토예프스키나 니콜라이 베르자예프(Nikolai Berdiaev) 같은 사상가들과 러시아 대중들이 접촉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지만, 전시 동안 종교의 탄압은 고삐를 상당히 늦추었다. 그렇지만 한번 유폐된 종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양상-러시아민족주의의 요체-은 다시 이전처럼 금지 상태로 가두어 둘 수 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비에트 정권이 창출해 낸 제도와 태도와 일단 분출이 되기 시작한 전통적인 러시아의 문화적 행태 간의 긴장이 배태되어 상존하게 된다.<sup>33)</sup>

30) Mikhail Agursky (1986), pp.91-93.

31) 대조국전쟁에서의 전승 후 5월 24일, 고위 관리들과 함께 한 연회에서 스탈린은 러시아 민족을 가리켜, “그 청정한 마음, 참을성과 단호한 성격에 있어 두드러진, 소비에트의 주도적인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Alexander Werth, *Russia at War, 1941-1945* (London: Pan Books, 1965), p.902.

32) 스탈린은 언어를 강한 언어와 약한 언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면서, 한 언어가 승자로 등장하여 그것의 문법체계와 기본어휘를 보존하며 자체의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을 계속하는 교합의 체계를 제시한다. 이 때 다른 언어는 장점을 점차로 상실하면서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Сталин (1950).

33) Frederik G. Barghoorn, *Soviet Russian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268.

## 6. 체제 유지과정에서의 러시아민족주의

### 1) 흐루시초프 시대의 러시아민족주의

‘해빙’으로 상징되는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 시대에는 여러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흐루시초프 자신은 반전통주의자로서 모든 민족주의는 물론 러시아민족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로는 그가 대조국전쟁 시기와 스탈린 말기에 조성되었던 러시아 정교회와의 화해 분위기를 깨고 그의 서기장 재임기간 내내 다시 종교를 탄압했던 일을 들 수 있다.<sup>34)</sup> 흐루시초프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환영받지 못했던 러시아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이자 입장이었지만 실제 발생했던 상황은 이보다는 더욱 복잡하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그가 행한 비밀연설은 실제로 러시아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흐루시초프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소련 사회가 스탈린 시기에 나타냈던 과도한 체제 동원기의 긴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정치·사회적 제반 영역에서 강력한 기능을 행사하던 맑스·레닌주의라는 공식적 이데올로기 체계가 가지는 한계성이 구체적으로 노정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러시아인들의 내면세계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민족주의 의식, 즉 러시아민족주의가 자연스럽게 이에 대치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흐루시초프가 행한 비밀연설과 탈스탈린화 정책은 소비에트 사회 내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이념적 기초에 대신한 새로운 대안적 가치체계의 창출을 도모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지성들에게 그의 비밀연설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니오-맑시즘, 제반 사회주의와 서구형 자유주의 등 모든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있게 되었고, 그들 중의 일부는 러시아민족주의라는 대안 쪽으로 움직여 가기 시작했다. 그 첫 반응은 러시아 농촌에 대한 문학적인 재발견으로써 블라디미르 솔루킨(Vladimir Sooukhin)의 “블라디미르로 가는 길”(Vladimir Back Roads, 1957)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이 작품에는 이후 20여 년간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이 전개시키는 주제와 모티브의 전형적인 형태들이 담겨 있다.<sup>36)</sup> 그리고 스탈린의 죽음과 더불어 스탈린 시대에 행해진 민속연구들의 중대한 오류를 민속학자들이 비판하였으며, 그러는 사이 도스토예프스키 연구도 다시 허용되었다.

흐루시초프 집권기에 러시아민족주의 발전의 더욱 중요한 자극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흐루시초프의 반종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반종교적 공세는 교회가 지닌 종교적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애국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1960년대 중반에 러시아의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하려는 자발적인 결사체의 출현은 흐루시초프의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공세에 대한 직접적인

34) 흐루시초프의 사고는 1961년 22차 당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과거로부터의 잔재는 살아있는 피조물의 심중에 퍼져 나가는 악몽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이다...공산주의적 교육은 소비에트 인민들이 자신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편견과 미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한다.” Donald A. Lowrie and William G. Fletcher, "Khrushchev's Religious Policy, 1959-1964," Richard H. Marshall Jr., eds., *Aspects of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1917-196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p.133-134.

35) 조정남(1994), p.152.

36) В. Солукин, *Владимирские проселки. Избран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ом.1* (Москва, 1974); English Translation, *A Walk in Rural Russia* (New York, 1967).

반응이었다. 흐루시초프의 반종교 캠페인이 남긴 결과들 중의 하나는 민족허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의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결합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은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기독교화와 정교회 신자들 속에서의 애국주의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과 민족주의자들 간의 인적인 결합의 양상은 1971-1974년에 발행되었던 “사미즈다트”(지하간행물, samizdat) 잡지 “베체”(Veche, Вече)<sup>37)</sup>에 기고한 저자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60년대에 유포가 확산되었던 러시아민족주의의 제 조류는 러시아 인텔리겐차들의 민족적 각성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젊은 지식인들이 크림이나 코카서스에서 휴가를 보내는 대신 러시아 농촌에 내려가 정교회의 성화(icon)와 러시아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을 답사하고 수집하는 등 개인의 관심사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었던 스탈린 통치 시대와 달리 소비에트 당국이 처음으로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확산은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농촌주의자들”(ruralists, *делевники*)이라는 작가군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농촌주의자들은 농촌을 러시아 정교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도덕적인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러시아 정신의 근원지로서 강조하면서, 농촌 마을과 그 일상생활을 이상적으로 묘사했다. 이들의 작품 정신은 바실리 벨로프(V. Velov)의 “습관적인 일”(That's how it is, *Привычное дело* 1966)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초반에 이르면 예브게니 노소프(E. Nosov), 보리스 모자예프(B. Mozhaev), 바실리 슈킨(V. Shukshin), 발렌틴 라스푸틴(V. Rasputin), 표트르 아브라모프(F. Abramov)와 솔류킨 같은 저명한 작가들의 집단이 형성된다.<sup>38)</sup>

스탈린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들 중에서 시민사회 내의 일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러시아민족주의 세력들은 대체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러시아적인 가치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중에는 1960년대에 출현한 그룹 중 “인민해방을 위한 전러시아 사회기독교연맹”(VSKhSON, All-Russian Social Christian Union for the Liberation of the People,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оциалиниые союз свободзения народа*)만이 기존 체제를 전면 거부하는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활동했다. 이들은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그 본성에 있어 반민족적이고 반러시아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독교 문명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무장전복에 의해서만 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1967년 2월 KGB에 의해 조직이 와해될 당시에 28명의 회원과 39명의 후보회원을 갖고 있는 소수인원의 미약한 조직체였을 따름이었다.<sup>39)</sup>

러시아민족주의의 흐름은 해빙으로 상징되는 흐루시초프의 통치 기간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러시아민족주의의 주장들은 소비에트 당국이 기존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뢰감이 소비에트 사회 내에서 약해져 가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가치체계를 모색하는 여러 가지 경향성들 중의 하나로 등장했다. 러시아민족주의의 주창자들은 대체적으로 소비에트 체제 자체는 거부하지 않으면서, 과거-전통적인 러시아-에 대한 향수와 갈망을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시점에서 느끼는 불만과 결

37) 키예프스카야 루시 시대에 존재했던 집회로서, 매일 개최된 민중집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했다. 베체는 직접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었던 러시아 최초의 민회의 명칭이다

38) John B. Dunlop, *The Faces of Russian National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pp.40-41.

39) John B. Dunlop, *The New Russian Revolutionaries* (Bermont, Massachusetts: Nordland Publishing Company, 1976), pp.113-117.

함시켜 표출하였다. 이 단계에서 소련정치의 제 세력 중 우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주장들과 흐름은 이후의 러시아 정치 과정 내에 잔존하면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전화되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흐루시초프 통치 시기의 러시아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스탈린주의의 일원론적 세계관을 공격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통일성과 그 이념에 대한 신뢰성을 침식시켰다. ② 흐루시초프가 자행한 고대 교회와 다른 민족적 기념물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정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게 했다. ③ 러시아 민족의 관심사를 반영하는데 근거를 두는 러시아 자체의 조직들을 결성하고 간행물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sup>40)</sup>

## 2) 흐루시초프 이후의 러시아민족주의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를 비롯한 공산당 수뇌부가 형성했던 집단 지도체제의 권력공고화 과정과 더불어 탈스탈린화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토양을 뿌리내리게 된 러시아민족주의의 제조류는 흐루시초프가 권력으로부터 축출당한 1964년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각종의 조직을 결성하면서 발흥하게 된다. 그 대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대로, 1964년에 민족주의 혁명 비밀결사 VSKhSO가 조직되었고, 1965년에는 미술사가이며 소설가인 솔류킨이 혁명전 러시아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찬양하는 일련의 문학작품들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솔류킨의 가장 영향력있는 작품인 “러시아 박물관으로부터의 편지”(Letters from Russian Museum, Письмо из Русского музея)가 1966년 문학지 “젊은 근위대”(Molodaia gvardiia,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에 실렸고, 곧 복고주의적인 러시아민족주의의 경향을 대변하는 걸작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41)</sup> 연이어 러시아의 건축, 조각, 미술 및 이론 제작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확산되었으며, 러시아의 문화적·종교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sup>42)</sup> 러시아민족주의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이른바 ‘체제 내의’ 민족주의자들(establishment Russites)<sup>43)</sup>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보존을 위한 전러시아 협회”(VOOPIK, All-Russian 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Monuments,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никого историй и культуры)가 1965년 7월에 결성되면서 고양되었다. 설립 일 년 후인 196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자발적인 결사체는 곧 300만 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으며, 1972년경에는 그 회원 수가 7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sup>44)</sup>

40) 스탈린이 과거에 러시아 민족의 독자적인 기구와 간행물을 갖게 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성을 경계했던 반면에 흐루시초프가 시작한 해빙기에는 “러시아 공산당”이 비중을 증대시켜 나갔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1956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초로 러시아공화국(RSFSR) 공산당 지국의 창설을 허용하였고, 곧 이어 지국은 러시아공화국 각료회의와 더불어 신문 “소비에트 러시아”(Soviet Russia,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신설된 러시아공화국 자체의 당 조직과 기관지는 당연히 전 연방 차원의 그것보다 러시아 민족의 관심사(ethnic Russian concerns)를 보다 더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신문은 이후에 1970년대에 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간행물로 성격이 변모하게 된다. Edward Allworth, "Ambiguities in Russian Group Identity and Leadership of the RSFSR," Edward Allworth, *Ethnic Russia in the USSR* (New York, 1980), pp.24-25; John B. Dunlop(1983), pp.32-33.

41) В. Солукин, Письмо из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9~10 (1966).

42) Jack Haney, "The Revival of Interest in the Russian Past in the Soviet Union," *Slavic Review*, vol. 32, no. 1 (March 1973), pp.1-3.

43) 러시아의 역사적 기념물, 특히 교회에 대한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러시아공화국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RSFSR)의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44) Dmitry Pospelovsky, "The Resurgence of Russian Nationalism in Samizdat," *Survey*, vol.

체제 내 러시아민족주의 운동의 다른 양상은 잡지 “젊은 근위대”와 “현대인”(Nashi Sovremennik, Наш современник) 같은 합법적인 간행물들을 통해 1960년대 후반부터 표출되었다. 이 매체들에 발표된 글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1968년 4월, “젊은 근위대”에 실린 미하일 로바노프(Mikhail Lovanov)의 “소시민 계급”(Meshchanstvo, Мещанство)<sup>45)</sup>과 같은 해 9월 동 잡지에 발표된 빅토르 찰마예프(Viktor Chalmaev)의 “필연성”(Neizbezhnost, Неизбежность)<sup>46)</sup>이라는 글이었다.

전자의 글에서 로바노프는 소비에트 사회 내의 병폐로 미국적 정신에서 나타나는 부르조아적 속성을 본받고 있는, 소위 교육받은 사람들의 정신적 타락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그들에게서 뿐 만 아니라 대중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러시아 민족 내부의 최대의 적으로 여겼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로바노프는 소비에트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향의 러시아화와 더불어 소비에트 체제의 공식 전략을 러시아화할 것을 주장했다.

찰마예프 또한 근대 서구문명을 비도덕주의, 새디즘과 잔혹성으로만 이루어진 야만성으로 포장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소비에트 지식인들이 정신적으로 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개탄했다. 그는 미국이 우상 없이 사는 역사상 유일한 국가라는 독특한 주장을 전개하면서 로바노프보다 운명론적으로 러시아의 사명을 전한다. 찰마예프에게 있어 러시아의 전 역사는 “민족정신” 즉, “러시아 정신”(Russian sprit, душа Россия)의 전개와 성숙으로 파악되었고, 러시아 정신이 부르조아의 악을 중국에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성스러운 전투를 “미국주의”(Americanism)와의 마지막 한판의 결투라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혁명도 사회주의 탄생의 신기원이 결코 아니라 “러시아 정신”이 성숙되는 또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신을 배양하고 조직화해내는 세력으로서 러시아 정교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로바노프와 찰마예프 양자의 주장은 “비잔틴주의”(Byzantinism)로 수렴된다. 러시아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부르조아적인 서구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동로마제국의 세계적 사명을 전수받은 하나의 특별한 세계이며, 하나의 특별한 문명이라는 19세기의 보수주의적 민족주의의 거두 콘스탄틴 레온티예프(Konstantin Leont'ev)의 사상처럼, 현대 러시아는 “정신의 미국주의”(Americanism of the spirit)에 대항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보았다.<sup>47)</sup>

상기한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 전의 러시아 민족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적 관점을 제기하는 체제 내의 논자들로서, 그들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기존의 레닌주의적 관점과 배치되는 파격적인 내용들이었기에 소련 공산당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견책 및 편집인에 대한 해고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있던 후 러시아민족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표현은 훨씬 온건해졌고,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명백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고는 합법적인 간행물이 아닌 ‘사미즈디트’를 통해 발간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민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침묵하거나 국외로 추방되었다. “민족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부제가 붙은, 러시아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자는 스쿠르라토프(Skurlatov)의 “도덕적인 신조들”(Rule of Morality, Правила моралы)은 1971년 “러시아 애국자”라는 익명으로 사미즈다트에 기고되었으며,<sup>48)</sup> 그 해에 VSKhSON의 전 멤버였던 블라디미르 오시로프(V. Osipov)가

19, no. 1 (1973), pp.52-53.

45) М. Лованов, “Мещанство,”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4 (1968).

46) В. Чалмаев, “Неизбежность,”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9 (1968).

47) Alexander Yanov, *The Russian New Right: Right-Wing Ideologies in the Contemporary USSR*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78), pp.39-47.

러시아민족주의의 윤리적,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미즈다트 “베체”를 만들었으나 곧이어 탄압을 받게 된다.<sup>49)</sup> 추방의 사례로는 러시아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소수민족들의 소련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했던<sup>50)</sup> 알렉산더 솔제니친(A. Solzhenitsyn)의 1974년도의 국외 추방을 들 수 있다.

소비에트 당국의 러시아민족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억압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계기를 얻거나 새로운 지지자들을 획득해 나갔다. 발족 일 년 후 100만 명에 달했던 VOOPK는 1982년에 그 성원이 1,40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당국이 비공식 그룹들과 간행물들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탄생이 뒤를 이었다. “베체”가 폐간했을 때, 오시로프는 더욱 종교적인 경향성을 띤 사미즈다트 잡지 “대지”(Zemlia, Земля)를 창간했고, 그가 체포된 이후에는 역시 비슷한 성향의 사미즈다트 간행물 “모스크바 선집”(Moskovskii Sbornik, Московский сборник)이 출현했다. 1974년에는 러시아민족주의의 정향의 띤 종교-철학 연구 단체들이 모스크바에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레닌그라드와 키예프에서도 곧 이어 결성되었다. 1976년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지위를 고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소련의 신자 권리 옹호를 위한 기독교 위원회”(The Christian Committee for the Defense of Believer's Rights in the USSR, Христианский комитет защиты провы веруищици в СССР)가 결성되었다. 1979-1980년에는 모스크바 종교-철학 세미나와 기독교 위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일대 체포 물결이 있었고, 1980년에는 러시아민족주의 기독교여성 단체인 “마리아 클럽”(Maria Club, Клуб, “Мария”)이 조직되었다.<sup>51)</sup>

러시아민족주의적인 관념은 1980년대에 들어 와서 공식 지면에서 이전보다 덜 엄격하게 당국에 의해 통제되면서,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표현되어 왔다. 대중적인 신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소비에트 러시아가”가 대변지라고 볼 수 있으며, “프라우다”(Pravda, Правда)와 리제라투르나야 가제타(Literaturnaia gazeta,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같은 전 연방 차원의 신문에서도 종종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며, “소비에트 러시아”, “말라다야 그바르지야”, “나쉬 소브레멘니크” 같은 몇 개의 커다란 출판사들도 러시아민족주의적인 정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러시아의 농촌 정서를 강조하는 문학에서의 “농촌주의자”들은 점차 러시아 민족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존립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 왔다. 미술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방치되고 있는 러시아의 민족혼을 화폭에 강렬하게 묘사한 일리야 글라주노프(Илья Glazunov)의 전시회에 수십 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렸다.<sup>52)</sup>

이러한 추세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서기장 취임 이래 시작된 글라스노스트(Glasnost)의 도래와 더불어 러시아민족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조차도 허용되게 되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단체인 “빠야치”(기억, Pamiat', Память)가 러시아 국가를 파괴하려는 유대인들의 공모로부터 러시아를 지켜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러시아의 전 영역에 사악한 영향을 미치는 유대인들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대도시들에서 개최할 정도로 언론자유를 억압했던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48) “A Word to the Nation,” *Survey*, vol. 17, no. 3 (Summer 1971), pp.191-199.

49) Darrell P. Hammer, “Vladimir Osipov and the Veche Group(1971-1974): A page from the History of Political Dissent,” *Russian Review*, vol. 43, no. 4 (October 1984), pp.355-375.

50) Alexander Solzhenitsyn, *Letter to the Soviet Leaders* (New York: Haper & Row, 1974).

51) John B. Dunlop, “The Rusisan National Spectrum Today: Trends and Movements,”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vol. 11, no. 1 (Spring 1984), pp.63-64; John B. Dunlop (1983), pp.51-56, 292-293.

52) Vladislav Krasnov, “Russian National Feeling: An Informal Poll,” Robert Conquest (1986), pp.131-150.

결국 흐루시초프가 권좌에서 제거되고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장악하여 공고화한 시기 동안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었다. 개별 민족들의 민족주의가 허용되기 보다는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을 창출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민족 간의 통합이 우선시 되었다. 이같은 사고를 수용할 때 러시아민족주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소비에트 당국의 입장이었지만, 스탈린 시대와 마찬가지로 체제의 유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외정책적인 요청에 의한 러시아 민족주의적 정서의 이용은 브레즈네프 시대에도 과거처럼 여전히 존재했다.

소련과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가장 큰 외부 위협세력인 중국과의 이념분쟁이 1960년대 중반 이래 전개되어 가면서 소비에트 지도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중국인과 러시아인 간의 민족적인 대결로 공공연하게 구도화함으로써 러시아 민족 집단의 민족적인 통합과 함께 소련 체제와 러시아 민족과의 동질성을 강화시켜 나갔다.<sup>53)</sup>

소련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주의는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 양식(state-to-state mode)과 그보다는 덜 전통적인 세계혁명 과정(world revolutionary process)이라는 영역에서의 -이전 보다 훨씬 더 소비에트라는 말로 위장된-러시아의 군대가 과거, 현재 및 미래에서 성공하는 것을 찬양하는 협소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narrowly statist nationalism)였다.<sup>54)</sup> 이 시기 동안 러시아민족주의는 대내외적으로 그 잠재성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대내적으로 그것은 체제 내 우파들이 견지하는 하나의 이념적 신조로써 자리를 잡아 갔고, 이에 체제가 이를 용인 내지는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부의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됨에 따라 소련정치과정에서의 러시아민족주의의 일정한 참여 양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1960년대 보다 1970년대에 러시아민족주의의 신우파적인 주장이 더욱 확산되고, 지지자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해나가는 데에서 드러난다. 소비에트 사회가 브레즈네프의 시대의 접어들면서 사회적 기강이 침체되고 나태해지자 이 때 사회에 내재하는 정신적 공허감을 메우는 역할을 자임한 일부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의 토대 구축은 다분히 소비에트적인 상황의 산물로 여겨진다. 당시 러시아민족주의의 부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침체에 처한 상황에서 체제 이데올로기 속에 내재한 한계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 요소를 갖고 있던 이들 민족주의자들의 이념적 정향도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당국과 이들은 갈등-배척하지만 때로는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다.

## 7. 페레스트로이카와 러시아민족주의의 분출

### 1) 페레스트로이카와 민족적 가치의 재발견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나서 행한 최초의 개혁 전략은 소비에트 국가의 국내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적 위상을 잠식하는 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바로잡을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개혁을 착수하자마자 경제적 침체가 더욱 뿌리 깊은 사회적·정치적 문제들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화

53) 조정남(1994), p.145.

54) Frederik C. Barghoorn, "Russian Nationalism and Soviet Politics," Robert Conquest (1986), p.66.

가 필수적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사회 침체의 기원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결국 고르바초프의 개념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로 전개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과거 반체제인사들의 체제 내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그 대표적인 슬로건인 ‘글라스노스트’와 더불어 국가 문제의 진지하고 비판적인 공공토론을 제창한 이후 소비에트 언론에서는 새로운 폭로와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인텔리겐차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요구가 계속되었던 것은 물론 이제껏 지하에서 연구 서클을 조직하여 서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비에트 사회의 문제점을 연구해왔던 학자들도 글라스노스트의 도래와 더불어 자신들의 견해를 학술잡지와 공식 출판물들을 통해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에 정보공개의 기치 아래 전개된 글라스노스트는 점차 소비에트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문제들까지 거론하게 되면서 소수의 의견그룹에 불과했던 시민사회 내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55)</sup> 처음에는 러시아공화국 내의 대도시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자생적인 시민조직체들은 비러시아 공화국들을 포함한 소련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다양한 이념적 정향들을 노정했다. 이들은 이제껏 소련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대중들의 공개적인 견해 표명과 청원, 시위를 통해 대중동원을 꾀하면서 새롭게 시민사회에서 맡게 된 정치사회화의 기능도 나름대로 수행해 냈다.

페레스트로이카 등장 이후 최초로 카자흐 공화국에서의 제1서기 임명과 관련한 1986년 12월, 알마아타에서의 폭동 이후 소련에서 민족문제는 1988년과 89년 발트공화국들과 카프카즈에서의 더욱 심각한 민족분규로 확대되었다. 민족 간의 심각한 갈등은 1989년 발트 삼국에서 본격화되어 1990년에 들어와서는 리투아니아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서 전연방적 차원에서의 민족분규로 확산되어 소연방 체제를 위협했다.

소련은 소수민족 공화국을 통치하는데 있어 토착 민족엘리트에 의존해 왔고, 이들로 하여금 민족적 열망이 분출되는 것을 막도록 한 가운데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진행과 더불어 이들 집권 엘리트들도 경제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같은 민족 내의 민족적 열망의 분출을 봉쇄하고 잠재적 대항 엘리트들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유인요소인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자 스스로 중앙에 대해 소속 민족의 대변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바꾸게 되었다.<sup>56)</sup> 결과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표방한 세부적인 개혁조치들, 혹은 슬로건들은 연방의 권위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주어졌던 권한을 놓고 연방과 공화국이 그 배분의 문제에 있어 대립하는 형국으로 양상이 전개되었다.

민족감정의 폭발을 촉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여러 조치들은 비러시아 민족 집단들의 대응을 촉발시켰는데, 그 여파는 곧바로 러시아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러시아인들에게 잠재해 있는 제국의식에 가해진 충격, 즉 페레스트로이카의 존건 하에서 제각기 분출하는 비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요구에 대한 반응은 러시아 민족의식의 각성으로 나타났다. 발트제국, 몰다비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같은 연방공화국에서의 민족운동의 증가와 민족 간의 갈등은 물론 타타르(Tatar), 바쉬키르(Vashikir), 야쿠트(Iakut), 튜바(Tuva), 부루야티아(Buryatia) 같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들이 독립공화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시도도 러시아인들의 민족의식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러시아인들이 이러한 행동양

55) Geoffrey Hosking, *The Awakening of the Soviet Union* (London: Heinemann, 1990);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no. 70 (Spring, 1988), pp.26-41.

56) 정한구,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권위의 위기-고르바초프 집권하의 소련, 1985-1991,”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러시아 연구』 제1권(1992), pp.236-237.

식을 나타내는 타민족들에 대해 방어적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러시아인들은 연방 중앙과 지령·명령 체제에 가해지는 비난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켜 내기 위해 단일한 집단으로서 결집하려 했다. 그와 동시에 주변부 및 변방 공화국들에서의 연방 공화국들에서의 민족운동은 러시아인들에게 심리적인 연쇄반응을 몰고 와서, 그들 중 일부는 전선체나 노동자 단체처럼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비러시아인들의 전술에 맞서고자 시도했다, 이 경우들은 심리적 좌절감과 감정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 또한 비러시아 공화국에서 외부인들과 현지 기반이 없는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택된 공용어와 시민권 등과 관련된 입법조치들은 현지에서의 러시아 민족 감정 뿐 아니라, 러시아공화국내의 러시아인들까지 결속하게 만들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시와 더불어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러시아인들이 갖게 된 감정은 양면적이었다. 첫째는 글라스노스트의 전개와 더불어 비러시아공화국들에서 표출된 반러시아 감정에 의해서 러시아 민족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민족 간 대립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깃들여 있다. 두 번째는 연방을 실질적으로 건설하고 책임져 온, 민족을 초월하는 민족 집단으로서의 러시아인은 연방의 유지를 위해 어떤 민족보다도 앞장서서 연방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의 거주 지역을 조국으로 여겨왔다는 데에 있다. 즉 단일한 민족 집단으로서의 러시아인의 입장보다는 연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해 온 ‘연방유지자’로서의 러시아인들의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양면성을 지닌 러시아인들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점차 진행되면서 여러 비러시아 공화국들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인민전선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 대신에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정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배출되었다. 그 한 극단으로 검은 셔츠를 착용한 “빠마찌” 운동이 공산주의 소련 시대 이전의 인종적 희생양이었던 유태인과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굴욕감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러시아공화국 작가동맹 및 “나쉬 소브레멘니크(동시대인)” 내에 강력한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복고주의자들’(revivalists)은 언론의 자유와 스탈린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급진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들은 또한 서구의 팽음악과 포르노그래피 같은 서구문화의 ‘과도한 측면들’(excesses)과 러시아가 단순히 서구의 상업적이고 금융적인 이익을 위한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시와 더불어 제기되기 시작한 러시아민족 중심적인 사고에 관한 논의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민족은 정신적·도덕적으로 재탄생해야 하며, 러시아 민족의 생활방식을 복원하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러시아의 찬란한 문화를 중시해야 한다. 2) 문화의 중심적인 근거로 예로부터 민중과 함께 해 온 문화와 러시아정교회를 들 수 있다. 3)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레닌과 스탈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집단농장, 노동수용소, NEP(신경제정책)의 폐지 등과 같은 레닌, 스탈린의 잘못된 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나타나는 위기의 역사적 기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한 볼셰비키 정권이 러시아 인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에 대해 자행했던 탄압이 극심했다. 5) 뿐만 아니라, 혁명 이전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면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다. 6) 짜르 시대의 역사적 경험 중에서 러시아 민족에게 있어 가장 현명했던 정책으로 스톨리핀(Stolypin)의 개혁 정책을 들 수 있다. 7) 소비에트 시대에 진행된 러시아 정신의 모체인 러시아의 자연과 대지에 대한 파괴는 환경적인 재난을 충분히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러시아 민족의 가치에 역점을 두는 이와 같은 논점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반체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을 대체로 잇고 있는데, 다만 구별되는 것은 과거에 논의할 수 없었던 역사적 소재를 정보개방이라는 개선된 조건하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논의는 초계급적내지는 비계급적이며, 권력비판적이고,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때, 과거 지향적이고 내부지향적인 보수성을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시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진보성을 띠고 있다. 러시아 사상사적으로는 19세기에 있었던 슬라브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 간의 논쟁의 역사에서 슬라브주의의 논점을 계승하고 있다. 현대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의 논리는 러시아 민족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에 전개된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여러 민족주의 단체 및 정당들의 슬로건과 정책으로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채택되면서 현실 정치의 주역들이 실제로 구사하는 언술체계로 고착화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페레스트로이카의 도입과 더불어 시민사회 내의 인텔리겐차 집단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러시아 민족’ 우선(Russia first)의 관념은 한편으로 과거의 가치에 지향을 두는 전통주의적인 가치체계를 전수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지만, 동시에 그동안 진행되어 온 소비에트적인 가치의 역사적 왜곡과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체계와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자본주의 경제가 불러올 사회적 타락성에 대한 경고를 페레스트로이카의 진행 속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러시아의 가치’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역설한 점에 있어 다가올 시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지식인들의 고뇌에 찬 모색이었다.

## 2) 민족주의 그룹연합의 결성과 그 의미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최초로 대중들이 참여하는 자유선거에 의해 실시된 1989년 3월의 인민의원대회 대의원 선거 결과는 개혁에 대한 보수적 비판자들과 다양한 러시아민족주의 그룹들 간의 연계를 중요하게 만든 분기점이었다.<sup>57)</sup> 이들 연합의 인적 구성은 귀족화된 엘리트와 군산복합체 및 지방 당관료로 이루어진 1980년대 초반의 연합 구도에 과거에 체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참여하더라도 일정한 부분만 참여했던 신러시아민족주의적인, 혹은 신슬라브주의적인 지식인 부류가 추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58)</sup> 여기에는 귀족화된 엘리트인 노멘클라투라 집단 중의 보수적인 일부, 특히 소련군 고관의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상황논리에 의해 심정적으로 러시아민족주의자들에 동조하며 그들을 비호한다. 이러한 비호 인사들 중에서 가장 고위급으로는 당 정치국원 이고르 리가체프(Egor Ligachev)를 들 수 있다. 그는 1987년 중반에 자신이 주목하고 있던 러시아공화국 작가동맹 소속의 일부 문인들의 언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sup>59)</sup> 작가동맹 내의 이 집단은 자유주의파의 신문이 소련의 고전적 문헌이나 사상에 대해 공격을 가할 때 이들에 저항했었고, 특히 서방에 의한 부르조아적 대중문화의 도입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리가체프는 이런 그들의 행동을 지원했으며, 이때부터 보수주의적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민족주의 세력은 리가체프, 특히 당내 구체제 옹호파의 대변자들과

57) 존 던롭은 1987년 3월 러시아공화국 작가동맹 비서국 전체회의에서 나타난 보수적인 러시아 민족주의자들, 민족 불체비크들과 신스탈린주의자들의 ‘보수연합’(conservative coalition)을 이러한 연계의 최초 형태라고 지적한다. John B. Dunlop, "Russian Nationalism Today: Organizations and Programs," *Nationalities Papers*, vol. 14, no. 2 (Fall 1991), p.149.

58) Alexander Yanov (1978), p.169.

59) Ritta H. Pittman, "Perestroika and Soviet Cultural Politics : The Case of the Major Literary Journals," *Soviet Studies*, vol. 42, no. 1.(January 1990), pp.114-116.

폭넓게 제휴하기에 이르렀다.<sup>60)</sup>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민족주의 세력연합은 페레스트로이카의 급진적인 전개가 몰고 온 사회 일각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 저항하면서, 소비에트 체제의 근간을 허물면서 진행되는 자본주의적인 움직임이 인민들의 방향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러시아와 소련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서방국가들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 1970년대에 보수적인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은 보수적인 당국가기구의 부문들을 공격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급박한 상황 전개 과정에서 소연방을 보존하고 시장경제로의 흐름을 둔화시키는데 공동의 이해를 갖고 당-국가기구의 비자유주의적인 집단과 연합했다. 이것은 페레스트로이카가 낳은 산물에 대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적인 산물이었다. 따라서 이 연합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었으며, 또한 목표하는 바가 성취되지 못할 때는 언제라도 쉽게 연계가 단절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1989년 이후 선거를 통한 대중적 지지 기반 확보와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유명한 보수주의적 러시아민족주의자인 발렌틴 라스푸틴(V. Rasputin)과 노동자 행동가인 벤야민 야린(V. Iarin) 같은 민족 불쇄비극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대통령위원회 혹은 내각에 입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자신이 맞서야 할 적들 중에서 급진개혁파들을 애국주의자들보다 더 큰 적으로 설정하면서 그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사실상 보존하면서, 소련의 정치적인 해체를 늦추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sup>61)</sup>

1990년 3월 실시된 러시아공화국 의회와 각급 지방의회 선거는 러시아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지지 확산의 두 번째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1989년 12월 자유주의 그룹의 블록인 ‘민주 러시아’에 대응하여 “러시아 사회-애국주의적 운동블록”을 형성하여 선거에 임했지만, 선거 결과는 민족주의자들의 재차 패배였다. 보수적 러시아민족주의 연합은 ‘분리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공화국에 더 많은 주권을 요구하였고, 시장에 반대하여 중앙집권적인 계획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간섭’을 공격했다. 이러한 태도 속에 깃들여 있는 광범위한 러시아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대중들 속에 확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여 약 1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극히 적은 의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자유주의 세력연합은 소련의 주요 대도시 의회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를 산하에 둘 수 있어 중앙정부보다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더구나 러시아공화국을 대표하는 지도자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과 신설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연방과 러시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것은 소련의 민족 공화국들에서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의회에서 승리하여 연방 중앙에 대한 투쟁을 선도하게 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옐친도 이미 대중적 수준에서 조성되어 있던 러시아 민족 우선의 기운에 편승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면모를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 준다. 옐친은 이와 같은 대의를 일단 정한 후에는 공화국의 주권 요구에 있어서 민족주의자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앞서 나갔다.

### 3) 옐친의 부상과 ‘러시아주권’ 옹호

1990년 5월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 당선된 이후의 상황은 정치적인 수사로서

60) Ritta H. Pittman (1990), pp.111-132; Hedrick Smith,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m House, 1990), pp.402-403.

61) John B. Dunlop (1991), p.164.

민족주의적인 발언들이 난무하는 정국으로 급변했다. 러시아의 가치를 처음 내세우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러시아민족주의의 목표 및 가치를 선점하는가가 관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옐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러시아공화국 지도부와 애국주의 블록은 모두 부활한 러시아민족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각각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 경쟁하게 되었다.<sup>62)</sup>

1990년 3월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선거 후에 옐친이 러시아공화국의 주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면서 러시아민족주의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도 옐친 쪽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래 민족주의적인 주장의 창안자였던 민족주의 대변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순수성면에서도 대중의 지지를 업고 등장하면서 역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옐친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옐친은 갑자기 다른 소수민족 공화국들의 희생이 되어 왔던 러시아를 구하는 대변자로 등장했다.

옐친은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애국주의 세력의 수사를 활용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연방 중앙에 맞서면서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을 자신의 진영 내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주권’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구사하던 슬로건이었고, ‘러시아’가 민족주의자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가치였다면, 옐친은 양자를 결합한 ‘주권 러시아’라는 관념을 채택하여 권력투쟁에 임하기 시작했다. 소연방에서 새롭게 조직된 러시아공화국의 주권이란 러시아공화국이 공화국 내의 풍부한 자연자원 및 공화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처럼 옐친은 일견 타협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의장 당선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는 러시아공화국의 주권의 선언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는 결코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3)</sup>

그러나 옐친의 제안은 전반적으로 연방결속에 대한 주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첫 번째 100일 내에 보다 큰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그가 제안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공화국의 석유, 가스 및 기타 자원의 판매에 있어 소연방의 다른 공화국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재산, 기업 등에 관한 소연방의 법률을 러시아공화국이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 연방법에 대한 공화국법의 우선, 공화국 대통령과 소연방 대통령의 권위에 있어서의 동등성.<sup>64)</sup> 이같은 조치들을 제안함으로써 옐친은 소연방 내에서의 원심력을 강화했을 뿐 만 아니라, 경제개혁의 중심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옐친의 연방 중앙에 대한 도전은 러시아민족주의에 기반하는 신념체계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다기보다는 연방으로부터의 권력의 광범위한 이전 및 분권화에 대한 욕구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옐친이 더 빨리, 결정적으로 변화의 길로 나가도록 고르바초프를 자극하는 동시에 러시아공화국에서 실제적인 개혁 수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분권화에 대한 공약의 일환으로 옐친은 러시아공화국 내 모든 민족 공화국들과 지역들에게 연방탈퇴권과 함께 충분한 자율성을 약속했다. 옐친은 뿐만 아니라, 민족자치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공화국의 지도자로서 다른 공화국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나섰다. 옐친은 특히 발트 지역의 각 공화국들과 관계를 맺고, 헝가리 등 외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특히

62) Hedrick Smith,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m House, 1990), p.412; 조정남 역,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 (서울: 교양사), p.320.

63) *The New York Times*, May 31, 1990.

64) *Financial Times*, June 13, 1990.

엘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 선출된 후 다른 공화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결성한 사실은 고르바초프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에 대한 새로운 압력이 되고, 소련의 기본 구조를 해체하려는 원심력과 타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엘친의 이같은 연방 이탈 노력은 초기에 고르바초프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을 합법적인 단일 국가 소련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1990년부터 엘친의 고르바초프에 대한 전략은 그의 경쟁자를 소련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력화시켜 공화국 지도자들의 뜻에 굴복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또한 엘친이 공화국 지도자로 부상하고 나서 곧바로 착수한 “샤탈린 500일 안”의 채택을 위한 고르바초프와의 타협과 대립과정도 경제문제를 매개로 한 치열한 권력투쟁이었다. 엘친은 고르바초프가 오직 샤탈린 안을 지지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지만, 샤탈린 안은 고르바초프에게 자신의 행정적 권위를 위해 의존해야만 했던 중앙 정부의 권력을 너무도 많이 양보하라고 했던 것이다. 러시아 공화국의 주권을 획득하려는 엘친의 욕망은 소연방에 대한 전반적 개혁안의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 수준의 행정 지위 체계의 장악이 어려워지자, 지역수준에서의 민족주권을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소련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민족주의의 지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차에 의한 구분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인 지형 속에서 그 때 그 때 이루어지는 세력분포가 더 큰 기준이 될 수 있다.

## 8. 신연방 조약의 체결과 소연방 붕괴

### 1) 신연방 조약 협상 과정

1990년 6월 12일에 엘친은 러시아공화국의 ‘국가주권 선언문’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동 선언은 연방 법률에 대한 러시아공화국 법률의 우위를 핵심으로 하면서 러시아공화국이 연방 관할로 자발적으로 넘기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공화국의 자체적인 해결을 명시했다. 고르바초프와 연방 중앙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이 선언은 또한 러시아공화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소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공화국의 신헌법과 다른 공화국들과의 신연방조약에 관한 협상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소연방이 단일국가로 유지하되 신연방으로 개편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고르바초프는 그러한 발상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구연방은 진정한 의미의 연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초기 레닌주의적 견해로 복귀할 경우, 진정한 연방이란 ‘강한 중앙, 강한 공화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65)</sup> 경제적 분리주의는 각각의 공화국들을 이미 통합이 된 거대한 소련 시장에서부터 격리시켜 놓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엘친을 정점으로 하는 러시아공화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급진 개혁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자들에 대해 전통적인 러시아민족주의의 관심사를 포함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러시아 상황

65) 고르바초프의 이 슬로건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강한 주권공화국들은 ‘강한’ 중앙, 특히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지닌 중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 대한 비판을 더해 개혁 세력에 대항해 온 이른바 ‘범애국주의’ 진영도 고르바초프에 대해 공세를 강화해 나가지만, 차츰 진영 내 연합이 무너지고 행동과 이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행동하게 된다. 두 차례의 대중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새로운 조직화의 시도를 하기 위해 조직기반을 갖추고 체제정비에 나선 애국주의적인 공산당원들의 결집이 러시아공산당 결성을 통해 나타났다.<sup>66)</sup>

반면 시민사회 내의 보수적인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은 급진개혁파들이 조성해낸 “민주주의적 무정부상태”에 대항하여 법과 질서를 지지하면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을 반대했다. 그들은 소연방에 대한 러시아 민족의 평형추로서 러시아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생각을 지지했으나, 1990년 옐친의 당선 이후에는 친제국적인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 보수적인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은 갈피를 못잡고 왔다 갔다 하는 고르바초프를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연방이 단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에게 동의했다.<sup>67)</sup> 고르바초프가 했던 공적인 연설들은 그가 분명히 제국의 수호자이며 강한 중앙국가의 보존을 신봉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고르바초프가 분리주의자들과 했던 타협도 실용주의적 결과물이었을 뿐, 분리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신념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고르바초프는 개편된 형태로 소련 제국을 유지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국수호자 집단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제국 수호자들은 급진 개혁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일종의 ‘서구화’ 정책들이 소연방을 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방의 기반을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킬 것임을 고르바초프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91년 여름에 고르바초프가 구상한 새로운 연방 조약이 중앙 권력의 대부분을 공화국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 분명해졌을 때, 고르바초프에게 대항하는 8월의 미수에 그친 쿠데타 모의를 자극한 것도 이 ‘제국적’ 이념이었다. 쿠데타 모의자들이 가장 수호하길 원했던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라 러시아와 소연방 제국의 통일체였다.

러시아 애국주의 진영에 또 다른 혼란과 타격의 계기가 된 것은 1991년 4월 23일, 모스크바 근교 노바 오가레보(Novo ogarevo)에서 있었던 이른바 “9(분리를 원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공화국들)+1(연방 중앙)” 협정타결에 따른 합의였다. 이것은 연방의 장래와 관련한 대외적인 충격이었다.

고르바초프가 연방조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3월 자신이 소련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였다. 그해 11월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새로운 연방조약 초안은 국명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각 구성 공화국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연방대통령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sup>68)</sup> 1990년 12월 연방 최고 회의에서 확정되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 조약안은 곧이어 열린 소연방 제44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국명 변경이 부결되는 등, 원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신연방 구성에 있어 차후에 적용될 원칙만 채택되었다.<sup>69)</sup> 그 후 연방의 갱신과 공화국 독립과 관련된 문제들은

66) 러시아 공산당은 시민사회 내의 조직 중 하나인 ‘러시아공산당 발기위원회’에 러시아인 공산당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고르바초프는 처음부터 이 조직의 결성을 반대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러시아 공산당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출발했다. 소연방 공산당의 교조적인 원칙 적용과는 달리 공산당 권력독점 폐기를 수용했고, 경제적으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소련공산당과 다른 점이다. 중앙에 대해서 러시아 주권을 옹호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 공산당도 민족주의적이지만, 제국의 영토적 보존을 갈망했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강경 애국주의 세력들-군부와 국영산업체, KGB의 유력 인사들 등-과 이해를 같이 한다.

67) 존 모리슨, 정형근 역, 『보리스 옐친』 (서울: 고려원, 1992), p.219.

68) *Правда*, November 24, 1990.

1991년 들어와서 1월에 리투아니아에서의 유혈사태와 2월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및 3월에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연달아 진행되는 등 고르바초프가 설정한 궤도를 벗어나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대응이 연방제 존속 여부를 묻는 3월 17일의 국민투표였다. 투표 결과 연방제 유지에 찬성하는 76%의 지지를 통해 고르바초프는 연방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힘을 다시 얻게 되었다.<sup>70)</sup> 그 결과 1990년 말에 연방최고회의에서 확정되었다가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던 연방조약 개정 초안을 다시 일부 수정한 안을 1991년 3월 8일 연방 최고회의에 다시 제출했으며,<sup>71)</sup> 이를 토대로 고르바초프는 국민투표에서의 승리 이후에 신연방조약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앞서 언급한 노바 오가레보에서의 합의를 통해 진행된 연방과 공화국측간의 협상은 7월 말 과세권-공화국들에 과세권을 부여한다는-과 관련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타협을 이루고, 서명은 8월 20일로 결정되었다.

연방조약은 첫 부분에 “조약에 참가할 공화국들은 주권국가이다.” 소비에트주권공화국연방“은 주권 민주연방 국가이다. 그것은 동등한 공화국들의 연합체이며, 조약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새 중앙정부에 국방, 외교, 국가안보 및 일부 경제적 권한을 위임하며, 권한 행사는 대부분 공화국들과의 공동 관할 하에서 이루어지며, 공화국들은 연방의 군사외교정책 수립을 돕고, 금, 다이아몬드, 및 외화 등의 지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공화국들은 과세 및 예산편성(확정)권을 갖게 될 것을 명기하고 있다.<sup>72)</sup>

이처럼 새로운 연방조약은 국제법상으로 하나의 주권 국가이면서, 구성 공화국 역시 주권국가로서 국제 공동체의 정식회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신연방조약안은 실질적인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측면에서 조약이 조인된다 할지라도,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에 반대하는 민족주의-공산주의 연합 세력은 당혹감과 의심의 눈초리로 4월 이후에 고르바초프를 경원시하게 되었다. 새로운 연방조약에 내재된 일종의 분권화는 결국 소련의 해체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연방 해체의 가능성은 민족주의-공산주의 연합의 시각에서 볼 때 공포 자체였다.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의 비러시아 지역을 전통적인 러시아 지배 지역으로 보았고, 정통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세계 최초의 노동자국가의 잠재적인 해체와 동일시했다.<sup>73)</sup> 특히 공화국에 주권이 이양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약화될 초강대국 지위를 염려하는 군부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컸다. 군부 입장에서 볼 때, 문서상으로 공화국 수준에서 단일 군대 결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련군의 고유한 단일지휘체계는 그 작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연방조약안에 서명한 공화국은 9개뿐이고, 나머지 6개 공화국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이후에 고려할 것이라는 점도 군부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 2) 8월 쿠데타 실패와 열친의 공세

노바 오가레보 협약에 뒤이어 연방당국과 러시아공화국 및 여타 공화국들 간의 연방조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타결이 7월을 기점으로 이루어지자 애국주의 세력들에겐 기존의 연방유지

69) *Известия*, December 24, 1990.

70) *Правда*, March 22, 1991.

71) *Правда*, April 26, 1991, April 27, 1991.

72) “Договор о союзе сувер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равда*, August 15, 1991.

73) Michael Hughes, “The Never-Ending Story: Russian Nationalism, National Communism and Opposition to Reform in the USSR and Russia,”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9, no. 2 (June 1993), p.53.

를 위한 합법적인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당연히 이들 세력들이 조약안에 반발하고 나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연방조약안 반대 세력들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연방조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중들에게 호소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애국주의 세력 내부의 여러 분파들마저도 제대로 하나로 아우르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러시아 민족주의, 더 나아가 범-애국주의 세력 내의 여러 분파들의 세력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들이 지닌 목표들이 모순되기 때문에 단일한 정치적인 운동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sup>74)</sup> 따라서 미수에 그친 8월 쿠데타의 경우도 소비에트 지배층 최상층부의 “제국수호자” 세력 일부가 규합하여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들은 막강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공권력의 담당자들이었지만, 국민의 직접선출을 통해 요직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었다. 행정부서의 최고 기관장들 몇몇이 규합되었을 뿐 이었다.<sup>75)</sup> 더구나 보수적인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을 위시한 애국주의 인텔리겐차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쿠데타의 주동자들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국가 강권력 밖에 없었다.

결국 입법부 내 급진개혁파들의 득세와 이들의 정점에 서있는 지도자 엘친의 대중적 인기 상승에 의해 애국주의 세력이 압박을 당하게 되자 대중적 지지기반은 미약하고 각종 국가행정기관과 공권력의 실행책임을 맡고 있는 인사들 중의 일부가 신연방조약 저지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감행한 것이 불발 쿠데타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8월 18일 국가의 전권 장악을 선언한 8인의 “국가비상위원회”(State Emergency Committees,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чрезвычайному положению)는 당일에 발표한 “소비에트 인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를 통해 고르바초프에 의해 창안된 개혁 정책이 그 종말을 고하고, 소비에트 조국에 어둡고 위태로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운을 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인민에게 부여된 자유를 이용하여 소련을 파괴하고, 국가의 붕괴를 획책하고,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지닌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의 발호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sup>76)</sup>

연방조약 갱신과 관련하여 국가비상위원회는 이들 극단주의자들이 애초에 확정된 소비에트 연방을 유지한다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연방당국과 줄속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입법부를 불참시키고 입법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공식견해와 유사하다.(1991).<sup>77)</sup> 국가비상위원회는 새로운 연방조약의 초

74) Stephen K. Carter, *Russian Nationalism: Yesterday, Today, Tomorrow*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p.128.

75) 쿠데타 주도부가 결성한 “국가비상위원회”가 알크니크스 대령의 입법부 내 ‘소유주’ 그룹과 결합했다면, 비상사태의 모든 임시조치들을 강제하는데 성공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있다. Richard Sakwa, "A Cleansing Storm: The August Coup and the Triumph of Perestroika,"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March 1993, Special Issue: The Soviet Transition: From Gorbachev to Yeltsin, pp.131-149.

76) “Обращение к советскому народу”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August 20, 1991; *Известия*, August 20, 1991.

77) 루키야노프(A. Rukianov) 소련최고소비에트 의장은 연방조약 최종안에 노바-오가레보 협약 당시에 반영되었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보존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연방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단일경제구조에 대한 분명한 언급들이 개정된 조항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련 최고회의에서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키야노프의 견해는 쿠데타 직전인 8월 16일에 표명되었으나 타스 통신을 통해 19일에 공표되었고 20일에서야 활자화되었다. 이것은 쿠데타 지도자들이 루키야노프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명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듯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방조약에 관해 루키야노프의 견해를 따르기 때문이었다. “Заявл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August 20, 1991; *Известия*, August 20, 1991.

안에 대한 광범위한, 전국 규모의 토론을 시행할 것이며, 만인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 문서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표명했다.<sup>78)</sup> 이를 통해 볼 때, 이들 쿠데타 주동 세력들은 8월 20일로 예정된 연방조약 체결을 일단 막고 보자는 의도가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쿠데타 주동 세력들은 애국주의적 정서의 확산을 통한 소비에트 제국의 보존 움직임 고양과 이에 대한 보수적인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을 위시한 애국주의 인텔리겐차들의 동조를 쿠데타를 통해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지도부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 쿠데타 기간 동안 구공산당 고위관료와 국가기관의 고위관료, 일부 지방 당서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은 침묵을 지켰고, 오히려 쿠데타 실패 이후에는 반연방적인 분위기로 급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쿠데타 주도세력들이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의 의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쿠데타 주도 세력들은 러시아민족주의 세력들이 그동안 나타내 보였던 반고르바초프적인 태도를 연방 독립과 공화국들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러시아 민족 세력의 부정적인 태도로 쉽게 해석하려 했으며, 이러한 태도가 결국 옐친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공화국 지도부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민족주의 세력들의 반연방적 정서에 둔감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sup>79)</sup>

쿠데타 실패 이후 전통적으로 러시아 우선을 내세웠던 민족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해졌다. 이것은 쿠데타에 뒤이은 세력재편과정에서 기존 애국주의 집단들이 주요한 정치적 기반이었던 연방 공산당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연방 주요 기구들의 요직마다 쿠데타를 저지하는데 공을 세웠거나 쿠데타 주도세력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인적 재편의 구도는 쿠데타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된 영향력을 지니게 된 옐친의 기본적인 구상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사 조치의 가장 큰 계기는 소련공산당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였으며, 이로 인해 소련정치의 주도세력이 부재하게 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옐친과 그의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기득권층에서 누구도 실제적인 정치세력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쿠데타가 종식되고 포로스섬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상실했다. 인사문제 이외에도 쿠데타 이후에는 실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고르바초프의 이름만 빌린 비상포고령의 형식으로, 혹은 옐친 자신의 이름 하에서 포고령으로 선포되었다.

이제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애국주의 세력의 현실정치 기반과 정치적 동원의 가용능력은 사라지거나 대단히 협소해졌다. 반면 옐친을 위시한 러시아공화국의 주요 인사들은 정치적인 기반뿐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이념과 자원의 범위도 광범하게 확장되었다. 옐친은 반공산주의 무드와 민족운동의 결합 속에서 1991년 12월 까지 자신의 주도 아래 단일전선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옐친이 구사한 러시아공화국 독립 노선은 신민족주의적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러시아민족주의와는 다른 점이 특정한 시기의 국가 건설을 위한 동원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다만 대외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명백하게 신러시아 국가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적인 동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러시아민족주의라는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의 민족주의와 이런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점에서 ‘신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옐친과 그의 세력들의 민족주의적 정향은 소연방 내의 다른 비러시아공화국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러시아민족주의가 발현되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볼 때, 특히 러시아적인 유산의 계승이나 국가구조와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 같이, 과거부터 러시아민족주의가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러시아민족주

78) “Обращение к советскому народу”(1991).

79)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p.216.

의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sup>80)</sup>

### 3) 러시아 독립 노선과 소연방 붕괴

쿠데타 실패 이후 실권을 지닌 새 지도자로 등장한 옐친을 위시한 러시아공화국의 지도자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지지를 배후에서 표명하고 나선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사들은 새로운 지도층에게 과거의 소연방과는 다른 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했다. 그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차별성을 갖음은 물론, 러시아민족에게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방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새로운 연방적 통일성을 가진 공존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러시아공화국이 없다면 나머지 공화국들은 연방을 반대하는데 있어 단순히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이후의 상황 전개는 러시아 민족 집단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우선 가장 커다란 도전의 하나로 대두가 된 것은 기존 소연방의 공화국 수준에서 개별 민족들의 민족독립 내지는 민족자치를 표방하는 운동이 구체화되었던 점이다. 그것은 8월 쿠데타의 수습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독립선언을 채택하고, 이 공화국들은 먼저 독립을 선언했던 리투아니아와 곧바로 합류했다. 8월 28일에는 독일이 발트 3국의 독립을 공식인정했고, 그 시점부터 발트 국가들의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과의 공동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발트공화국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국 옐친을 필두로 하여 발트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국들의 지도자들 간에 존립 가능한 연방구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공동의 이해 기반을 찾으려고 하였다. 11월에 어렵게 마련된 새로운 조약 초안은 느슨한 국가연합 결성을 의도로 해서 작성되어 진 것이었다. 새로운 연방은 연방보다는 국가연합에 훨씬 가까운 실체를 재구성함으로써 공화국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중앙의 권위가 일부 잔존하는 형식을 이루고 있었다. 새 연방 안을 조인하는 공화국들은 완전한 주권을 향유하게 되며, 새로운 연방최고소비에트에 대표를 파견하며, 연방의 지도자들은 ‘국가위원회’(A State Council) 라는 신연방의 중앙기구를 창설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는 구연방 영역에서 존재했던 경제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전 러시아 총리 이반 실라예프(I. Silaev)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 결과, 10월 초에 공화국 간의 전통적인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경제공동체에 관한 조약’이 이루어졌다.

개별 민족 집단의 다양한 민족독립 요구 확산은 또 다른 면에서는 소연방 구성 민족 집단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던 러시아 민족들의 타민족집단과의 공존의 틀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 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결과적으로 쿠데타 이후 상황은 보다 강력한 러시아 및 러시아공화국로의 위치 부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성숙되어 갔다.<sup>81)</sup>

쿠데타 이후에 옐친이 주도하는 ‘러시아 독립과 분권화’ 흐름에 대해 각 공화국들이 갖고 있는 경계심이 차츰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공화국 다음으로 큰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선택’이 지닌 의미를 가중시켜 주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태도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연방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0월에 우크라이나는 경제연합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태도 표명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연방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0월에 우크라이나는 경제연합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으며, 11월에 7개 공화국이 발의한

80) Stephen D. Shenfield, "Post-Soviet Russia in search of Identity," Douglas W. Blum, eds., *Russia's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5-16.

81) 조정남(1996), pp.217-218.

연방조약 초안을 거부하였으며, 결정적으로 12월 1일에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진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민족주의에 대한 견제이면서 새로운 연방 구조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절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이 시기(1991.8~1991.12)를 통해 형성된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기반이 신임 대통령인 온건 민족주의자 크라프추크(L. Kravchuk)로 하여금 강경 민족주의 노선으로 선화하게끔 만들었다.

엘친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오자 고르바초프와의 신연방 창설을 위한 공동작업을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슬라브계 공화국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독립국가연합”(CIS, СНГ)을 발족시켰다. 12월 8일 슬라브계 3개 공화국 대표들은 독립국가연합 협정인 “벨로베쉬 협정”(Веловежские соглашения)을 체결하여 소연방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새로운 협정은 12월 12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 비준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을 기하여 독립국가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소연방 해체와 새로운 독립국가연합 결성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연방불참 선언이 주요한 변수로 갑자기 작용하였지만, 이와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도록 몰고 간 것은 역시 러시아였다. 벨로베쉬 협정도 러시아의 제안으로 연방해체 문제를 거론한 후 토론을 통해 소연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쿠데타 실패 이후 연방의 재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연방 재산을 공화국의 재산으로 이관시키는 등, 실질적인 연방기능을 잠식시켜 온 주체가 러시아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공화국의 입장에서는 연방의 존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 9. 맺는 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러시아민족주의와 관련한 문제들은 일부 공식적인 출판물이나 혹은 지하 간행물을 통해서 유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지식인 집단에서 전개되었던 문화적 논쟁이었다.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러시아의 가치와 관련된 역사적, 현실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지식인들이 제기한 러시민족주의의 시원은 내면적이고, 자기연민적이며, 문화 지향적이면서 민중지향적인 사고로부터 비롯되었다.

연방의 통제력과 민족평등 가치를 주창해 온 크렘린 당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탈린이 그랬듯이 필요할 때는 민족주의의 상징을 조작했다. 브레즈네프 체제에 아르기까지 소비에트 당국이 배타적인 러시아의 이익을 거론하는 것은 대체로 금기사항이었으며, 이는 레닌과 스탈린의 유지를 받은 소비에트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측면이 크게 작용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러시아 민족 우선’의 관념들은 실제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후르시초프가 단행했던 ‘해빙’ 이래 체제 내에서 발아한 소비에트의 ‘비공식사회’에서의 논의가 ‘공식사회’에서의 논의로 부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와 더불어 정치국원인 예고르 리가초프 같은 최고위 당관료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시민사회 내의 민족주의 인사들과 집단들을 암묵적으로 비호·지지하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진전되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전과 더불어 새롭게 득세하는 서구지향적인 급진 개혁 세력들을 견제하는 시민사회 내의 대항 집단으로 공산당 내 보수파가 민족주의 집단과 제휴하였다는 점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러시아 민족주의, 더 넓게는 러시아 애국주의의 가치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반서구적이며, 소비에트 국가주의의 성향을 지닌 정치 사회내의 정치엘리트와 시민사회의

일부 인텔리겐차 집단의 연합은 이른바 ‘애국주의적’ 그룹으로 명명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말기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 정치에 영향력을 지닌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러시아민족주의 집단 연합은 현실 정치 참여를 염두해두고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이론이나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기와 환경에 따라 연합의 형태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연합의 최초의 결속은 1989년 3월 소비에트연방 인민대의원 선거과정에서 시민사회 내의 러시아민족주의 지향적인 집단들이 선거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스탈린 시대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 러시아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창설, 러시아의 환경 보호, 연방 내 러시아인의 권리보호 등 러시아의 일반대중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세우면서 경제적으로는 급진적인 서구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반대했다. 민족주의자들은 서구화보다 러시아의 전통적 공동사회인 ‘미르’와 노동자 동업조직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조직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의 ‘정신성’을 잃지 않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역설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중의 궁핍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대안 제시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거기에 더해 대부분 ‘복고주의적인’ 이들의 성향은 보수주의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기 쉬웠으며, 때로는 외국인 혐오 집단인 “빠야찌”같은 극단세력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등, 보수적인 당내 관료세력과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불분명한 경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정치세력으로서 민족주의자들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민족주의 집단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러시아의 권리보호와 연방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가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권리보호 부분은 옐친을 위시한 급진개혁 그룹과 공동으로 공유하는 가치체계로 진화되어 나갔다. 과거 문학적 사조를 창출했던 농촌주의자들과 러시아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자들은 갖고 있는 러시아 민족에 대한 애정은 ‘어머니 대지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애정에서 비롯되었고, 현대 소련의 개발과정에서 파괴된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의 역사적 기념물을 보호하고 자본주의의 도입 속에서 황폐화되어 가는 러시아적인 가치를 옹호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반면에, 옐친을 위시한 러시아공화국 내 급진 개혁파의 ‘러시아 우선’ 관념은 소연방의 권력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러시아 독립 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표상으로서 러시아의 관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일부 러시아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한 연방 관료집단내의 고위 인사들과 제국유지세력은 무엇보다도 제국 상실에 따른 기득권상실을 막기 위해 연방 유지를 선호했기 때문에, 서구에 대한 예측화와 수 백년 동안 역사적으로 흔들림없이 보존되어 온 러시아영토의 단일성을 훼손하려는 음모에 맞서 조국 러시아를 수호하려는 임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은 연방 말기에 갑자기 발생한 연방 붕괴 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방편이었을 따름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연방공화국에서의 민족들의 요구와 주장이 증대되면서 각성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민족의식의 저변에는 두 가지 무순되는 측면이 존재했다. 그 하나는 제국관념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인들의 피해의식이었다. 러시아를 조국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조국으로 여기는 심리는 러시아인들에게 깃들여 있는 제국의식의 발로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연방 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만형 노릇을 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차별과 피해의 관념은 러시아인으로 하여금 당연히 자기 권리의 요구를 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민족주의의 이와 같은 이중적 속성은 전자가 이후의 러시아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범사회-애국주의 세력의 소비에트민족주의 노선을 대변하고 후자가 옐친을 비롯한 러시아공화국 지도부의 러시아공화국민족주의로 발전되어 가지만, 현대 러시아민족주의의 정치적 패권을 둘러싼 최초의 공식적인 투쟁에서 옐친 중심의 신생국가 건설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공화국 우선의 관념이 담긴 러시아공화국 우선의 민족주의가 승리를 거둔다.

러시아공화국이 주도한 러시아의 연방 내 역할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러시아민족 우위 구조 확립 노력이 터부를 깨고 공개된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다른 민족공화국들에 최소한 끌려가지 않으면서 최대한으로 새로운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형식으로의 재편문제가 대두했다. 연방과 공화국간의 새로운 연방협정을 둘러싸고 1991년 8월 미수에 그친 쿠데타 발발 이전의 상황은 물론 쿠데타를 후속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두했던 옐친의 연방 장악과 더불어 연방의 권력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파생되었던 러시아공화국 내 민족주의의 대두는 양상을 완전히 급변시켰다. 러시아공화국이 연방 내에서 강력한 ‘자민족 중심주의’의 전개를 통해 연방의 패권을 장악해 나가려는 조짐이 보이자 러시아 다음으로 큰 공화국인 우크라이나를 위시하여 이를 경계했던 다른 비러시아 공화국들도 이에 대응하여 자민족 보호 내지는 자민족 우선의 분위기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공화국의 러시아 우선 움직임에 대해 의구심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던 우크라이나공화국의 공화국 차원의 대응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주권국가연합체제의 결성을 거부함에 따라 그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슬라브연방공화국들이 중심이 되어 창안된 새로운 독립국가연합도 실상은 러시아가 시종일관 주도하였으며, 독립국가 창설 이후에 러시아의 새로운 권위구조 확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소연방 구조 내에서의 러시아의 실속없는 ‘만형’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완결적인 체제운영 형식을 채택하면서 러시아 민족의 위신과 권위를 추구한 결과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세션 II, 「소비에트 지역의 민족 상황과 갈등」

■ 사회 : 정은숙(세종연구소)

■ 발표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의 민족 상황과 민족운동 | 우준모(선문대)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새로운 민족의 형성과 발전 | 박정호(한국외대)

열린 민족, 닫혀진 국가: 소비에트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형성과 발전 | 현승수(한양대)

■ 토론 : 김경순(국방대), 정세진(한양대), 강삼구(연세대)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의 민족상황과 민족운동\*

우 준 모(선문대)

## I.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민족주의

### 1. 역사와 민족의 기원

우크라이나<sup>1)</sup>의 역사는 A.D. 882년 동슬라브족 최초의 도시국가 키예프 루스로부터 시작되는데 러시아 역사와 상당 부분에서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측 사가(史家)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여겨 소(小)러시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 사가들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와 자유를 강탈하고 우크라이나 문화를 파괴한 침략자로 인식한다.<sup>2)</sup> 그들은 러시아가 수백 년 간 우크라이나의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이익을 착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우크라이나 민족이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독립과 고유한 정체성 확립이 지상과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3)</sup>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대비시켜가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러시아사를 동시에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측 사가들의 다른 해석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정통성을 지닌 적자임을 주장하는 양 민족의 기원은 키예프 루스에서 출발한다.<sup>4)</sup> 키예프 루스는 블라디미르 대공(재위: 980-1015)이 기독교(正敎)를 수용하는 등 도시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야로슬라프 1세(재위: 1019-1054)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위 계승을 놓고 분열이 지속되면서 쇠락하다가 몽골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키예프 루스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 12세기 중엽부터 동슬라브족의 정치적 중심은 점차모스크바로 옮겨갔다. 모스크바는 1147년 키예프 루스의 왕자 돌고루키가 수즈달을 거점으로 하여 불

\* 미완성 줄고이므로 다른 연구를 위해 인용하거나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1) '우크라이나'라는 국명의 유래는 19세기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될 때 비로소 등장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이 지역 명칭이 루스, 말라야 루스, 말로 로시야, 말라야 로시야 그리고 로시야(러시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숙, 2004, "키릴-메토디우스 형제단과 근대 우크라이나의 민족정체성," 『러시아연구』, 제14권 2호, pp. 394-399.
- 2) Alexander J. Motyl, 1993, *Dilemmas of Independence: Ukraine After Totalitarianism*,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p. 99.
- 3) Yaroslav Bilinsky, 1994, "Basic Factors in the Foreign Policy of Ukraine," S. Fredrick Starr, *The Legacy of History in Russia and the New State of Eurasia*, Armonk, New York: M.E. Sharpe, Inc.
- 4) 라자노프스키, 니콜라이 V. 이길주·김현택 譯, 1994, 『러시아의 역사 I』. 서울: 까치, pp. 47-48.

가장 연안과 노브고로드 등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세운 새로운 도시였다. 키예프 루스의 소멸로 이 지역은 수 세기에 걸쳐 몽골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터키 등 인접 강국들의 할거지가 되었다. 그러나 1648년 페레야슬라프 조약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sup>5)</sup>

우크라이나 민족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바로 우크라이나인의 대(對) 러시아 독립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다. 러시아의 사가들은 키예프 루스를 최초의 러시아인 국가로 규정한다. 최초의 도시 국가 키예프 루스를 건설했던 러시아인들이 몽골의 침략으로 근거지를 잃고 동북쪽으로 이주하여 블라디미르-수즈달, 모스크바 등 여러 공국을 세워 재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뻘제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은 14-15세기에 카르파티아로부터 유입된 종족과 폴란드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인들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지 언어, 풍습, 외모 등에 있어서 일부 접경지역(폴란드 등)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19세기 우크라이나 사가 흐루셴스키(Mykhailo Hrushevsky)는 제국주의적 사관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독자적인 역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키예프 루스가 모스크바 중심의 북동쪽으로 이주했다기보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남아서 갈리치아-볼리니아 국가들과 합해져서 결과적으로 리투아니아-루스가 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따라서 키예프 루스는 러시아의 근원이 아니며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그 동쪽에서 별도로 흥기한 블라디미르, 수즈달, 모스크바 공국의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즉 키예프 루스는 우크라이나 역사의 시원(始原)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양측의 운명이 직·간접적으로 교류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자는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것이다.<sup>7)</sup>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적 소유권과 민족적 정체성을 놓고 키예프 루스의 적자 논쟁을 벌이는 형국인 것이다.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에서 제정 러시아로 확대발전하는 과정에서 몽골을 비롯한 접경한 외세에 지배를 받던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 자국으로 재편입한 것을 정당한 민족적 통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논리는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과 1차대전에서 갈리치아 지방 점령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전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러시아화를 유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sup>8)</sup>

## 2. 코삭 신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경계 성립

우크라이나 사가들은 리투아니아-러시아 이후 16-18세기 우크라이나 역사의 명맥을 코삭 신화에서 찾는다.<sup>9)</sup> 코삭은 폴란드, 터키, 파타르, 러시아에 맞서 투쟁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영광스러운 역사인 것이다. 코삭 역사에서 17세기 중엽의 추장 흐멜린츠키(Bogdan Khmelintsky)는 가

5) John Morrison, 1993, "Pereyasaly and after: the Russian-Ukrainian relationship,"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2(April). pp. 677-680.

6) Zenon Kohut, 1994, "History as a Battleground," in S. Frederick Starr, (ed.), *The Legacy of History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Armonk, New York: M. E. Sharpe, Inc. p. 124.

7) Ibid. p. 126.

8) Ibid.

9) Serhii M. Plokyh, 1994, *Historical Debates and Territorial Claims: Cossack Mythology in the Russian-Ukrainian Border Dispute*, in S. Frederick Starr, (ed.), op. cit., chap. 7.

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그에 의해서 새로운 민족적 신화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우크라이나 코삭은 원래 15세기 말엽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1백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막강한 군대와 더불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코삭인들은 원래 대부분이 폴란드 지배지역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인 귀족들의 봉건적인 농노제와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남부 스텝 지역으로 도망쳐온 이주민들로서 개척자들과 그들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모스크바 공국의 증가하는 징세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도 코삭인 대열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드네프르 강 하류 자포로제 지역을 중심으로 코삭 공동체를 만들고 폴란드에 대적하면서 독립적인 정치체로 자리를 잡아갔다.<sup>10)</sup>

그러나 1654년 폴란드의 공격을 받은 흐멜린츠키는 모스크바 공국의 속국을 자청하는 페레야슬라프 조약을 체결하였다. 추장 중심의 부족 공동체가 공국의 자치구역이 된 것이다. 이 때 키예프를 중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경계가 마련되었다. 이 경계의 기원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03년 모스크바와 리투아니아 간에 전쟁이 발발하자 체르니히브 왕조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충성서약을 폐기하고 모스크바 편을 들었으며 영토도 그쪽으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초 러시아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체에게 이 지역을 다시 뺏겼고 1618년 돌리노 평화협정으로 체르니히브지역은 폴란드 지배로 넘어갔다. 1620-30년에 반(反) 폴란드 봉기가 실패하자 우크라이나 코삭인들은 모스크바 공국 영토로 이주하였는데 짜르는 그들을 도네츠 강변에 정착하도록 허락하였다. 후에 이들을 슬로보단 우크라이나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가 되었다.

1654년 페레야슬라프 조약의 결과로 모스크바는 서쪽으로 영토를 팽창해 나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 간의 전쟁 이후에 페레야슬라프 조약은 동유럽 질서의 근본이 되었다. 1667 안드루소보 협정(Treaty of Andrusovo)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폴란드의 분할지배로 예속되었다. 드네프르 강을 기점으로 양측이 나뉘어졌는데 좌측이 러시아의 지배 지역이 되었다. 그곳은 코삭 자치지역으로 허락되었다. 우측은 폴란드령이 되면서 코삭 공동체가 급속하게 쇠퇴하다가 소멸되고 말았다. 러시아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1708년 이반 마제파 추장은 스웨덴의 도움을 받아서 코삭을 재건하는 반란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폴타바 전투에서 패배하여 자치권은 더욱 축소되고 말았다. 강을 경계로 한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은 1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것은 지금 체르니히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벨로루시 간의 국경으로 남아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러시아 제국의 영토팽창은 서남부로 계속 확대되어 갔다. 터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아조프 해와 흑해연안을 획득하였고 1783년에 결국 크림미반도도 차지하였다. 러시아의 영토팽창에는 우크라이나 코삭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당시 러시아 제국과 손잡은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적수인 폴란드, 터키, 파타르와의 싸움에 앞장섰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팽창하면서 코삭 자치제는 폐지되고 말았다. 1770년대 드네프르 강 하류의 코삭인들과 자포로지예의 코삭인들은 흩어졌다. 그 중 일부는 아조프해와 흑해연안에, 일부는 쿠반 지역과 다뉴브 접경지역(지금의 루마니아)에 정착하였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팽창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던 드네프르 강 양안지역의 우크라이나 인들은 남·동부와 보로네츠, 도나우, 쿠반, 세바스토폴, 등지로 이주할 수 있었다. 이같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와 새로운 정책은 17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는데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인의 영토 경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19세기 이후 코삭 역사 발굴과 재해석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10) 라자노프스키, 앞의 책, p. 253.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복사업을 통해 확장한 흑해연안과 크림리아를 비롯한 코삭인들의 정착지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영토 경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었다.<sup>11)</sup> 우크라이나 사가들은 코삭 연대기를 제작하고 표트르 대제의 절대주의적 지배체제에서도 코삭 지배층들이 페레야슬라프 조약을 근거로 자치권을 요구했던 점을 발굴하여 우크라이나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코삭 신화는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주요 지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 3. 민족주의의 확립과 민족운동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루드니츠키(Ivan L. Rudnytsky)는 “역사란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끊임 없는 대립, 상호작용 그리고 해석을 의미하며 민족의 독특성은 바로 이러한 진행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3)</sup>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와 끊임없이 대립, 상호작용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민족의 독특성을 만들었다. 폴란드와 러시아는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우크라이나에게 지배적 위치에서 깊은 문화적 흔적과 세력을 남겨 놓았다. 폴란드와 러시아 그리고 소연방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정복 사업과 동화정책은 최악의 형태로는 우크라이나 정치 엘리트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우호적인 형태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탈색시키는 작업으로 지속되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의 갈등 끝에 스스로 페레야슬라프 조약을 제안하여 러시아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갔다.<sup>14)</sup> 그 결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러시아화 과정에서 독립적 정체성을 잃어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갈리치아 지방에서 폴란드-우크라이나간의 갈등이 계속적인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지자 이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강력하고 완전한 민족주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에는 제정 러시아의 강력한 러시아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갈리치아는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갈리치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인은 중동부 러시아령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민족주의의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폴란드와의 갈등은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정치적 테러리즘을 불러왔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서부 우크라이나의 볼히니아에서 유혈적 ‘탈(脫) 폴란드화’와 갈리치아의 소수 인종 폴란드인 학살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반목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제 이주와 추방 등의 방식으로 자국 내의 상대방 인종을 탄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동유럽에 대한 전후 질서 재편 작업이 양측의 적대 관계를 결정적으로 중단시켰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에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졌고 그에 맞추어 양측 간의 인종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국경선과 민족경계선이 일치하게 되었다. 양국 간의 갈등은 소연방의 억압적 지배체제 속에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민족운동에 있어 두드러진 점은 계몽주의적 사회사상의 영향과 민족 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코삭 역사의 발굴이었다. 사실 갈리치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코삭 공동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우니아트교가 지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코삭인들이 신봉한 러시아 정교와는 인연이 없었다. 그런데 갈리치아 지역에서 코삭 신화를 복원시키고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을

11) Plokhy, pp. 158-163.

12) Plokhy.

13) Ivan I. Rudnytsky, *Essay in Modern Ukrainian History* (Edmonton: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University of Alberta, 1987), p. 45.

14)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에서 페레야슬라프 조약에 이르는 과정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Ivan L. Rudnytsky, op. cit., pp. 49-90.

되살려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었다. 여하튼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민속학 연구가 진행되어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인과 민족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시도되었고 우크라이나어 문학이 창작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인민주의의 선구자인 코스트로마노프와 시인 쉘렌코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범슬라브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식 연방제 방식의 슬라브연방을 건설하고 키예프에 수도를 두자는 제안을 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연방주의를 지지하지만 러시아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전제군주제 임을 내세워 우크라이나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1900년 미크노흐스끼로부터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카르파티아로부터 카프카즈까지 단일한, 통일된, 자유로운 독립 우크라이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광범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연방, 또는 분리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해방이 인근지역에서의 해방에 파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3. 최초의 독립국가 건설과 소연방 구성

1917년 2월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 제국은 붕괴하고 우크라이나는 국가건설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1917년 3월에 우크라이나는 대의기구인 중앙 라다(Rada)를 구성하면서 러시아인들을 포함한 각 민족들에게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들의 연방”으로 묶어 우크라이나 자치 민주공화국 창설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의 입장과 역량은 성공적으로 라다를 운영할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웠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숙했고 오랜 세월동안 러시아 지배를 받으며 진행된 러시아화의 정도가 심각했으며 급진적인 사상으로 인해 효과적인 정부구성이 불가능했다. 즉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하고 관료-행정기구를 만들어 대중들을 국민으로 묶을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라다의 입장은 레닌의 혁명정부와 불화를 빚었는데 레닌은 라다의 백군 코삭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남부에 반(反) 볼셰비키 거점을 마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였다. 라다 정부와 볼셰비키와의 관계는 악화되고 결국 전쟁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의 공격에 대해 1918년 1월 우크라이나의 중앙 라다는 러시아와 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선언하고 러시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월 초순에 수도 키예프가 적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중앙 라다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독일과 협정을 맺고 소비에트의 적군을 몰아냈다. 그러나 1918년 4월 독일군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자치정부를 해체시키고 우익정부를 지지했다. 1918년 12월 중앙 라다 집행부는 독일군이 퇴각한 이후에야 우익정부를 다시 축출할 수 있었으며 1919년 1월 갈리치아 지방을 병합하였다. 그러나 중앙 라다 정부는 백군에 의해 다시 와해되는 수모를 당했으며 적군의 도움으로 백군을 몰아낸 다음에야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적군의 위세가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이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은 우크라이나의 자치를 보장하고 언어와 문화 보급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당, 학교, 언론, 출판 및 행정기구에서 우크라이나어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벨라루스, 트랜스카프카스와 더불어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조약을 체결하여 소연방 구성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sup>15)</sup>

15)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는 동부지역을 러시아에게,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는 다시 폴란드에게,

그러나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소비에트화(러시아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인은 당을 비롯한 공직 진출이 제한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집산화(Collectivization)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비에트화 정책은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sup>16)</sup> 정책 내용을 유형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정책으로 강제이주, 도시화, 농업 집단화, 여권(신분증)제도 및 혼혼(混婚)의 장려 등이다. 둘째는 언어정책인데 문자개혁, 교육정책, 러시아어의 보급과 사용의 의무화 등이다. 셋째는 종교·문화정책인데 러시아 정교로의 종교적 단일화와 민족종교의 탄압 그리고 러시아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장려를 통한 단일 소비에트 문화의 창조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우크라이나 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전통을 멸절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전체 소비에트 시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는 지역적으로는 서부 우크라이나 일부 및 농촌 지역에서, 사회계층적으로는 일부 지식인(작가)과 농민계층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소연방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화 과정은 성공적이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언어문제의 경우, 1993년 봄에 조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 57%가 러시아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며 단지 43%만이 우크라이나어를 러시아어와 같이 일상적 언어로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sup>17)</sup>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설명이 있지만 소연방 체제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부분이 러시아화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연방 붕괴와 독립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120개가 넘는 소수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의 목표를 인종적 민족주의를 배제하고 영토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 서구적 민주국가 형태인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개념은 우크라이나 내에 거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을 부여(zero citizenship principle)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구적인 우크라이나 국민이 되었다는 개방적인 시민권 개념이었으며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사회의 창조를 위한 개념과 대부분의 원칙들, 세부 사항들은 대체로 우크라이나의 대중운동 단체인 루흐(rukh)가 주도하였다.<sup>18)</sup>

#### 4. 민족주의의 정체성<sup>19)</sup>

##### 1) 지역별 정체성

역사적 맥락과 경제 상황 그리고 인구학적 기초를 근거로 우크라이나는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최초의 동슬라브족 도시국가가 건설되어 기독교를 수용했던 루시의 본토로써 모든 동슬라브 민족들의 시원인 곳이

트랜스카르파티아 루테니아는 신생국 체코슬로바키아에게 그리고 북부 부코비나와 베사라비아는 루마니아에게 분할된 상태였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분할된 영토가 소연방에 재합병되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영토의 모습이 대강이 갖추어졌다. Yaroslav Bilinsky, p. 176.

16) 백민수, 1993, 『구소련의 러시아화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외대 석사논문.

17) Ilya Prizel, "The Influence of Ethnicity on Foreign Policy, The Case of Ukraine," in Roman Szporluk ed., 앞의 책, p. 107.

18) Serhiy Tolstov, "Dimensions of Inter-ethnic Relations in Ukraine," *The Ukraine Review*, (Summer, 1993), p. 29.

19) 이 부분은 1997년의 줄고를 간추려 인용하였으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함.

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몽골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13세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정치적 독립체를 구성해 본적이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를 구분하는데 이 강은 수도인 키예프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키예프를 중심한 이 지역은 비옥한 흑토 지대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농업국으로써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릴 만큼 많은 농산물을 생산했으며 소연방 시기에도 전체 농업 생산량의 1/4을 감당하였다.<sup>20)</sup>

둘째는 하리코프와 돈바스를 중심한 동부 지역이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역사적, 언어·문화적, 인종적으로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 접경 지역인데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소연방 시기에 집중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하리코프,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도네츠크 등은 특히 소연방에서 군수 산업과 항공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1)</sup> 따라서 상대적으로 러시아화의 정도가 높고 러시아인의 비율도 크림리아 지역 다음으로 높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

셋째는 크림리아 지역이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 공화국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3정도가 러시아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인의 비율은 1/4 정도로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인이 소수 인종으로 구분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크림리아가 분리 독립을 주장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크림리아는 소연방 시기에 공산당 간부들의 휴양지였을 뿐만 아니라 흑해 함대의 기지가 있고 러시아 조선 산업의 핵심 시설도 위치해 있다.

넷째는 르비프를 중심한 서부 지역이다.<sup>22)</sup> 서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폴란드와 가까웠고 폴란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르비프는 서부 우크라이나의 중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한다. 르비프는 장엄한 바로크 양식의 도시로서 유럽풍이 강하며 건물들은 폴란드의 귀족들이나 대공들의 소유물이었다. 서부 우크라이나 가운데 갈리치아 지방의 마을은 폴란드어를 쓰는데 유태계가 다수의 정착민을 이루고 있고 게르만적인 요소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서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소연방에 합병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므로 그만큼 러시아화의 영향력을 덜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전통도 가장 많이 유지·계승해 온 지역이다.

다섯째는 카르파티아 접경 지역 및 체르니프치(북 부코비나)지역이다.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기에 제국의 영토에 속했으며 1920-30년대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배하에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동화된 정도가 높지 않으며 지역적 분리주의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통합성 창출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이 비옥한 평야 지대인 것과 달리 이 지역은 산악 지대로서 다양한 인종-우크라이나인, 헝가리인, 슬로바키아인, 독일인, 러시아인,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등-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지역의 저지대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역사적으로 루시니(rusiny, 독일식으로는 루테네스ruthenes)라고 불렀고, 고지대의 인종들을 렘키(lemky)와 후츨리(hutsuly)라고 불렀다.

20) Alexander J. Motyl, op. cit., p. 2.

21) Ibid., p. 130.

22) Norman Stone, "Ukraine I - The Mark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No. 27 (spring, 1992), p. 32.

2) 종교적 정체성<sup>23)</sup>

우크라이나에는 대체로 3 가지의 종교가 존재하는데 각 종교는 인종과 언어 문제 및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면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종교를 구분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동부, 남부, 중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는데 러시아 정교는 모스크바 총주교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왔다. 둘째, 우크라이나 정교는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러시아 정교와 지역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나 보다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한 편이다.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보존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18세기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와 합병된 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구분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1920년에 우크라이나 자치 정교회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는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였는데 자치 정교회는 1930년대에 들어서 소련에 의해 지시 받는 우크라이나 지방 정부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것은 민족주의 운동의 부흥을 상징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자치 지향적 정교회(Ukraine Autocephalous Orthodox Church)는 스스로 우크라이나 정교회라고 칭하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분리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정교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러시아 정교회는 동슬라브족 전체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형제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분리주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4)</sup>

셋째, 갈리시아인들과 카르파티아 산맥 지대, 그리고 부코보디아 인들이 주를 이루는 서부 지역의 우니아트(그리스 가톨릭) 교회이다. 우니아트 가톨릭은 지난 200년 간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폴란드의 가톨릭적 요소와 러시아의 정교적 요소로부터 지켜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니아트교는 카리스마적인 대주교 안드레이 셉투츠키의 지도하에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지위를 보존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2차 대전 후에 소련에 합병되면서 교회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 후 지하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교회는 1989-90년대에 르비프에 성 조지아 성당을 복구하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 3) 민족·민족주의적 정체성

소련방으로부터 독립을 주도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문화적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를 유럽국가로 만든다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 달리 완전하고 순수한 유럽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5)</sup> 물론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인종과 지역에서 부분적인 반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커다란 줄기는 서구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서구에 대해 친밀감을 나타낸다. 1992년 초에 우

23) Michael Bourdeaux, ed., *The Politics of Religion in Russia and New States of Eurasia* (New York: M. E. Sharpe, Inc., 1995), pp. 129-200.

24) Zenon E. Kohut, "History as a Battleground," in S. Frederick Starr, ed., *op. cit.*, pp. 129-131.

25) 우크라이나가 역사문화적으로 러시아와 달리 유럽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세우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핵심 특징은 ①개인주의 ②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 ③대지와 민속문화에 대한 사랑 ④감성주의/낭만주의 ⑤관용과 인내 등으로 요약된다. 홍석우, 2010 "우크라이나의 국가정체성: 구성요소와 형성과정,"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역음,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pp. 104-111.

크라이나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2/3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에 호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국내적 진행 과정에 서구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대답하여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 1/4과 대조를 보였다.<sup>26)</sup>

우크라이나 내에서 폭넓게 유포된 정치적 자극은 국가적 시민권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종보다는 영토적 공민권(civic-territorial)에 입각한 것이었다.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은 우크라이나 내의 인종적 배경이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규합해 내고 있었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이러한 접근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나아갈 방향은 활기찬 시민사회의 건설, 시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건설을 위한 근간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충고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열성적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종적 우크라이나인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989년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언어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90년대 중반까지 우크라이나인이 다수인 모든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우크라이나어로 통일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크림리아를 제외한 전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어만을 사용케 한다는 의미이다.

언어 문제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의 포괄적 개념을 확립하는데 잠재적으로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된다. 언어법은 대체적으로 상징적인 이유에서 채택되었을 수도 있다: 1989년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처음으로 광범위한 대중성을 얻기 시작한 때이고 많은 의회 의원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족주의자들에게 자신의 신뢰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쉬운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에 언어법을 상정하고 통과 되도록 만든 열성적 민족주의자들은 법이 그대로 실행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91년 의회가 “우크라이나 내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선포했으나 그것은 일종의 함정이었다. 이 선언은 비우크라이나계 인종들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비우크라이나 계의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지방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우크라이나어와 동등한 지위에 놓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어는 소수 민족인 러시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화된 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의 결정 요소로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보다도 인종을 더 강조하는 이 법은 우크라이나어가 지역 내에서 주요한 의사 소통 수단이 되게 만들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권의 정의에 대한 투쟁은 국가의 다양한 지역간의 중요한 차이점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주지하 다시피 언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언어 정책에 관한 논쟁을 떠나서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점은 우크라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 구조에서부터 경제 개혁과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쟁점들마다 다른 입장을 갖게 하였다.

지역간의 차이점은 특히 우크라이나 연방주의에 관한 논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91년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 입법부 구성원들과 정치가들은 국가의 일원적 정부 구조가 연방제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많은 입법부 구성원들은 연방제가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원심력과 외부적 압력의 결합으로 인한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연방제에

26) Karen Dawisha & Bruce Parrott,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the Politics of Uphea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70-74.

반대 의견을 내었다. 키예프로부터의 중앙 권력이 분권화 된다는 것은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1989년의 언어법을 번복시킬 수 있겠기에 열성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도 연방제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나아가서, 동부와 남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외부 국경에 접하기 때문에-혹해나 러시아와 인접한-많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연방제의 공식화는 러시아화된 지역 주변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발시키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극적으로 해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불안감 때문에 1991년 우크라이나 의회는 독립선언 직후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범죄적 처벌대상이라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였다.<sup>27)</sup> 1992년 12월 루흐의 공동의장들은 이 법의 강력한 시행을 요구하였다. 그들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안보 기구들이 크리미아, 카르파티아 접경 지대, 그리고 돈바스 지역 등의 분리주의자 조직들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일부 정당들이 연방제의 확립을 당의 목표로 받아들였다. 연방제를 지지하는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돈바스와 다른 동부의 광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 의회(Citizen Congress of Ukraine)” 등의 부류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구조와 국가의 적절한 개념에 대한 이같은 긴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의 다양한 인종들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양차대전 기간에 민족주의 운동에서 나타냈던 배타성과 다른 인종에 대한 완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소비에트 체제에서 희생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설자들은 나치에 협력하여 소비에트에 저항한 사람들을 민족적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나 현재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예전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인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인에게”라는 슬로건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내의 소수 인종들을 모두 품고 가는 포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sup>28)</sup> 의회의 “우크라이나 내 민족들의 권리선언”은 모든 소수 인종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며 우크라이나 시민법은 분명히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기하고 있다. 루흐가 반유대주의의 태도 표명과 싸우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도 우크라이나 내에 제법 많은 수를 차지하는 헝가리인과 루마니아인들에게 서남부 지역에 자치 구역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취해 나왔다. 비록 TV방송이나 대학 교육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은 나타났으나 1989년의 언어법을 시행하라는 조직적 시도는 아직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비교적으로 인종 간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적 피폐는 우크라이나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된다.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 위기는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지역 상호간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동부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에게 더욱 타협적인 정책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 동안에 루흐운동에 의해 주도된 연합은 러시아와의 관계 축소와 CIS에서 철수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급격한 시장화 과정은 동부 지역에서 매우 무거운 사회·경제적 짐을 지우는 것이었다. 악화된 경제 상황은 우크라이나 민족운동 내부의 근본적인 분열을 촉진하였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해 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주를 삼계끔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열렬한 민족주의자들과 토착 러시아인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민족주의 운동 세력간에 내부적 분열이 발생하면 모스크바의 강경론자들

27) Taras Kuzio & Andrew Wilson, op. cit., p. 191.

28) 우크라이나의 소수인종정책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Susan Stewart "Ukraine's Policy toward Its Ethnic Minorities,"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6 (September 10, 1993).

을 자극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적 정책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덧붙여서 국내적인 실패는 영토 회복 주의자들을 더욱 부추겨서 부코비나와 남부 베사라비아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루마니아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후속과제:**

1.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멧음말로 <소연방 제국의 유지와 해체>와 관련된 소결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2. 벨라루스 부분은 아직 원고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몰도바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새로운 민족 국가의 형성과 발전

박 정 호(한국외대)

## I. 서론

인류의 오랜 역사발전과정을 한번 추적해 본다면, 우리는 제국의 흥망에 대한 내용들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마케도니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터키, 중국, 영국, 소련, 미국 등이 역사적으로 제국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사실 이들의 국가 형성 및 발전의 역사가 곧 세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국'(Empire)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먼저, 제국이란 특정 국가 혹은 정복 민족의 위대함과 강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와 함께, 제국이라는 개념 속에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지배와 탄압, 즉 식민 통치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들이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제국은 본질상 영토 확장에 대한 강한 욕구와 무력을 동원한 정복의 결과로 만들어 지기에 더욱 그렇다. 제국의 정복자들은 자신의 통치체제 아래 피정복 민족들을 복종시키고 안정적으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무력과 이념 등을 제국의 통치 도구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자면, 소비에트 제국은 공산주의라는 통치이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수 민족들을 소련방이라는 방대한 구조 속에 흡수하려 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병합과정 속에서 토착 민족들은 때론 엄청난 탄압과 박해를 당해야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련 정부로부터 새로운 문명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근대화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

소비에트 통치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은 엄청난 정치 경제적 및 사회 문화적 변동을 경험해야 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상 최초로 민족 국가들이 형성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근대화의 혜택 역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피지배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은 지배자들에 대해 순응하거나 혹은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도 했으며, 때론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펼쳐 나가기도 했다. 이처럼 제국과 민족은 정복자와 피정복자라는 지배 연속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갈등과 순응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생활방식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과 민족은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부산물인 것이다. '민족이 만든 제국'과 '제국이 만들어 낸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역사의 핵심 이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따라서 제국의 건설과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국과 민족’이라는 담론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제국과 중앙아시아 민족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현된 역사적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74년 동안의 소비에트 제국의 통치와 영향력,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갔던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국가형성과 발전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소비에트 통치 이전의 중앙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의 지역 개념 정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문지리적 환경,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역사를 개관해 볼 것이다. 3장은 소련의 형성과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수립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비에트 정부가 추진했던 민족정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련의 통치 원리로서 민족정책이 중앙아시아의 민족 공화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소비에트 통치에 대한 중앙아시아 민족 공화국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발생 배경과 성격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5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앞 장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 II. 소비에트 통치 이전 중앙아시아

### 2-1.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아시아계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자연 지리적 경계선 내지는 민족적 영역 구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명확한 경계 구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의 범위와 개념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개념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내려 보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협의적 분류 방법이다. 이 분류 기분에 의거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원이었던 5개 국가들, 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주로 지칭하는 것이며, 때때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위구르 등과 같은 아시아계 민족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둘째, 광의적인 측면의 분류는 대개 서방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1843년 훔볼트(Humbolt)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동과 서로는 카스피 해에서 서부 만주지역까지, 남과 북으로는 알타이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외에도, 중국 서부의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이란, 북부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의 남 시베리아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역 개

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광의적 의미의 중앙아시아 지역 개념은 사실상 ‘중앙 유라시아’(Central Eurasia)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본고에서는 협의적 의미의 중앙아시아 지역 개념, 즉 소비에트 시기 형성되었던 5개 중앙아시아 민족 공화국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2.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문지리적 환경

중앙아시아 지역은 광활한 사막과 고산준봉, 지나치게 건조한 기후 등 상당히 가혹한 자연환경을 발산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지역별로 기후변화가 매우 다양한 편에 속한다. 중앙아시아의 북부 지역에는 광대한 카자흐 초원이 동과 서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카자흐 초원 지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천산산맥과 파미르 고원의 눈이 녹아 흘러 내려오는 시르다시아강과 아무다리아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천을 따라 오아시스 지역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또한, 오아시스 지역들 사이에는 키질쿰이나 카라쿰과 같은 거대한 사막 지역들이 가로놓여져 있다. 특히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거대한 평야 지역,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신비로운 산악 지역, 갈색의 끝없는 사막 지역, 신록으로 우거진 오아시스 지역 등의 묘한 대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자연 풍광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인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담당하였고, 이들이 인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겨왔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명은 고대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명을 창조해 낸 실제적인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북부 지역에 위치한 초원의 유목민들과 남부 지역에 산재한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살아왔던 정착민들이었다. 먼저, 중앙아시아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 지역과 계곡이 있는 산간 지대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계 유목민들의 훌륭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다. 고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란계, 투르크계, 몽골계 등의 유목민들은 뛰어난 기동성과 군사력, 불굴의 의지와 생활력을 토대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면서 중앙아시아 땅의 실제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한편, 오아시스 지대에서는 대체로 농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상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덕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크고 작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런 이유로 오아시스 지역은 자연스럽게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결국 오아시스 주변 지역에는 각종 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 문명과 도시 국가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예로부터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해 주는 육상 교통로들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인 것이다.

근대 이전의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사실상 초원 지대의 유목민과 오아시스 주변의 정착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협력과 공생을 통해 형성된 역학 관계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목민들이 보유했던 탁월한 기동력과 강한 군사력, 그리고 정주민들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관계는 티무르 왕조(1370년-1507년)를 위시하여 근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성립하고 융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현대시기에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 사회적 현실상황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근대화의 진척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유목민에 대한 정주민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유목민 집단은 중앙아시아라는 역사 무대에서 점차 세력이 축소되어 갔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는 과거의 활력을 잃게 되었으며, 타 민족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 2-3.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상술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대 시기 이래로 아시아계 유목 민족들(흉노, 돌궐, 위구르, 투르크, 몽골 등)의 생활공간이자,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켜 주는 실크로드의 중심 무대였다.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는 모든 역사 과정을 고찰해 볼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나 민족 공화국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11세기 혹은 12세기부터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복속될 때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투르크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적 공통성에 기초를 두면서,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통합된 하나의 역사적 세계만이 형성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근대 이후 시기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19세기 유럽에서와 동일한 의미의 국가 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다만 다양한 유목민들의 연합체들만이 활동하고 있었다. 현재의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민족들에 대한 경계 구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 위로부터 만들어진 인위적인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16세기 초반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티무르 제국이 붕괴되면서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력한 통치 권력의 공백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기회삼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남하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러시아의 이반 4세가 1552년 카잔한국과 1556년 아스트라한한국을 차례로 정복해 나감에 따라, 이때부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 지역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초에는 카자흐 북부 스텝 지역에 요새들을 건설하면서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한편, 3개의 부족 연합체로 분리되어 있었던 카자흐는 몽골계 유목민인 준가르(Dzungarian)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 황제에게 복속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카자흐 간에 군신관계가 체결됨에 따라, 카자흐 영토는 1820년대부터 러시아의 직접통치를 받게 되었다. 결국 1847년에 이르러 카자흐는 러시아 제국의 일원으로 완전하게 통합되고 말았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병합 노력은 1865년부터 1876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일련의 군사 원정에 의해 완수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남부 정착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코칸드(Kokand), 부하라(Bukhara), 히바(Khiva), 사마르칸트(Samarkand) 등을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다. 또한, 1865년 대표적 상업 도시인 타슈켄트(Tashkent)와 1876년 비옥한 땅인 페르가나(Fergana) 지방이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게다가, 1881년 러시아는 투르크멘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그 이후 카스피 해(Caspian Sea)를 넘어서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대폭 확장해 나갔다.

이처럼 19세기에 들어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

작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본격적인 중앙아시아 진출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먼저, 국내 정치적으로 러시아는 1855년 크림 전쟁의 패배에 따라 실추된 국가적 자존심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통해 영토 확장과 국가적 위신 회복을 도모했다. 둘째, 대외적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 제국은 중동과 서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식민지 정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영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강력하게 견제하고자 했다. 셋째, 경제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세기 후반기 러시아에서는 섬유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러시아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면화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미국에서 남북전쟁의 발발하였던 관계로 미국 남부로부터 면화 원료의 수입이 힘들어 졌기에 더욱 그러했다.

상기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1867년 타슈켄트에 투르키스탄 총독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식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러시아 당국은 1881년 총 길이 1,755km에 달하는 카프카스 횡단철도와 1906년 중앙아시아 철도를 건설하였고, 이를 토대로 투르키스탄을 러시아의 내륙지방 및 카스피 해를 경유하여 카프카스 지역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러시아 본토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철도가 연결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농민들의 대규모 이주, 러시아 자본가들의 진출, 러시아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 등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로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이주와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의 민족 구성은 이전 시기와 다른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급증과 이주 지역의 확대는 카자흐 지역 원주민과의 사회 경제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흐루시초프 통치 시기 ‘치너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대규모 이주가 실시됨으로써 현대 카자흐스탄의 독특한 민족 구성이 성립될 수 있었다.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 작업은 3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기 동안 러시아 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일개 속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투르키스탄 식민 통치가 정치 사회적인 안정과 근대 문명의 혜택을 제공해 준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무슬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었고, 러시아의 식민 정책에 대한 중앙아시아인의 반발도 종종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837년부터 40년 동안에 걸쳐 진행된 케네사르의 반란, 1892년 타슈켄트 콜레라 폭동, 1898년 5월 페르가나 동부 지역에서의 안디잔 봉기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가운데 안디잔 봉기는 러시아의 통치 아래 타락한 무슬림 사회의 정화와 러시아 이주자들의 축출을 내건 일종의 성전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무슬림 사회의 변혁과 무슬림의 지적 각성을 촉구한 자디드 운동이 태동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자디드 운동이 러시아 문명과 공존을 전제로 이슬람을 재구축하려는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혁명과정을 거치면서 당국은 자디드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범 이슬람 주의와 범 투르크 주의의 확산은 러시아 제국 혹은 소비에트 정권에게 있어서 중대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Ⅲ. 소련방의 형성과 중앙아시아

### 3-1.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수립: 민족과 국경 획정

20세기 초반 제정 러시아는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다. 러일전쟁에서의 치욕적인 패배에 따라 국가적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피의 일요일 사건과 1905년 혁명 등이 발생하여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 제정에 대한 불만이 더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05년에 발생한 혁명의 결과로 러시아에서 입헌민주제 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제국의 정치체제 역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고조된 혁명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무슬림의 정치운동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카자흐 민족운동과 자디드 운동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07년부터 니콜라이 2세의 반동정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들도 일정정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혁주의자들은 잡지와 신문 발행 등과 같은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제정은 전쟁 수행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동원령을 반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급작스런 당국의 동원령에 충격을 받았던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의 통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러시아 정부에 의해 반란은 무참하게 진압되었지만, 중앙아시아인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의 강도는 한층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혁명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1917년 2월 마침내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니콜라이 2세는 퇴위하였다. 또한, 투르크스탄 총독부의 기능과 역할도 전면 중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식인들의 정치 활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었고, 카자흐 지식인들의 ‘아라슈당’과 ‘투르크 연방주의자당’ 등과 같은 정치 단체들도 생겨났다.

게다가, 볼셰비키 집단의 주도하에 1917년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이 발발하여 제정은 마침내 붕괴되고 말았다. 그 이후 러시아 땅에서 소비에트 국가의 건설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레닌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에서도 러시아인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 정권을 탄생시켰다. 혁명직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공포되자 중앙아시아 지식인들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러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성숙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민족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종속된다는 이유로 1918년 초까지 무슬림 주민들은 정권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소비에트 정권도 무슬림의 민족 자치 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혁명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수립된 투르크스탄 자치 정부와 ‘아라슈 오르다’ 자치 정부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투르크스탄 자치 정부는 붉은 군대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르가나 지방 일대에서 ‘바스마치’로 명명되는 반 소비에트 저항 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공산당 정부는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군대를 파견했을 뿐 아니라, 현지 출신 인사들을 당과 소비에트 조직에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혁명이라는 정치적 변혁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식인 집단들도 혁

명파와 반혁명파로 각각 분열되었고, 이들 간에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1922년 소연방이 잠정적으로나마 성립되고 내전이 점차 종식되어감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행정 구분을 설정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혁명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범 투르크주의와 범 이슬람주의의 재등장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에트 지도부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연대 의식과 유대감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리주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디드 운동과 바스마치 운동의 잔재를 근절할 목적 아래 소비에트 정권 차원에서 많은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가 진행되었다.

1924년과 1925년에 걸쳐 소비에트 정권은 중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초석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 당국은 인위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면서, 소연방 구성 원리에 입각하여 민족 공화국들을 건설해 나갔다. 이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행정 구분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 호라즘 인민 소비에트 공화국, 부하라 인민 소비에트 공화국을 해체하고, 이들을 민족별로 재편성하여 역사상 최초로 영토적 경계를 구분한 것이었다. 소련 당국은 러시아 영토와 가장 인접한 중앙아시아 땅에 러시아인을 대규모로 이주시켜 러시아화를 촉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지역을 카자흐스탄이라고 명명하면서 무려 271만 7,300km<sup>2</sup>에 달하는 막대한 영토를 배당해주었다. 이와 함께, 이슬람 투르크 문화의 중심지였던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분리하여 44만 7,000km<sup>2</sup>의 영토를 할당했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지도부의 인위적인 국가들 간의 경계선 설정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컸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경분쟁 및 민족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자면, 타슈켄트의 귀속을 둘러싼 우즈베크인과 카자흐인 사이의 격렬한 논쟁, 타지크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사적 도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우즈베키스탄 양도, 도시나 농지가 부족한 산악 지역을 차지하게 된 타지크인의 불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구성적 측면에서 보자면, 민족 공화국들 간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계를 포함한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소련 당국에 의해 민족별로 지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투르키스탄이라는 공식 명칭은 사라졌으며,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이라고 명명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의 소연방 편입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투르크멘과 우즈베크의 사례이다. 제정 러시아는 16세기 부하라한국과 히바 한국의 영지에 1867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제정 러시아 영토인 투르키스탄 주를 설치했으며, 1920년 이 지역에 부하라와 호라즘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다. 1924년 투르키스탄, 호라즘, 부하라 공화국은 투르크멘과 우즈베크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1925년 5월 이 두 공화국들은 소연방에 가입하여 연방의 구성 공화국이 되었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경우이다. 1920년 카자흐스탄의 전신인 키르기스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어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1924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현재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1925년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자치공화국 지위를 얻었고, 1936년 소연방에 가입하여 연방공화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셋째, 키르기스스탄은 혁명 이후 투르키스탄 자치공화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1924년에 자치주가 되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1926년 자치공화국으로, 1929년 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 소연방에 가입할

수 있었다. 넷째, 타지키스탄의 경우 1924년에 타지크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29년 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 소연방에 가입했다.

### 3-2. 소련의 사회정책과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지도부는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업이었다.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에서 소련 정권은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족문제였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에서 민족문제의 해결원칙은 원칙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조화시킨다는 데 두어졌다. 그렇지만, 사실상 민족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단 기간 안에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레닌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민족문제에 대해 대체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민족문제를 전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레닌은 민족해방운동으로 분출된 피억압 민족의 에너지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민족자결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이후에도 민족자결권의 보장만이 다양한 민족들을 융합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스탈린에 의해 변형되었다. 1922년 12월 30일에 수립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자치화 방안에 입각한 것이었다. 1923년에 개최된 12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의 민족정책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추인되었다. 스탈린은 개별 민족들의 고유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스탈린 통치 시기 강제이주 정책과 농업 집단화 정책, 유목 민족의 정주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는 본질상 농민에 대한 계급투쟁의 일환인 동시에, 소수 민족들을 전통적 가치로부터 단절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말부터 소련에서는 농업 생산량 증대와 공업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전면적인 집단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중앙아시아 남부 농업 지역에서도 농업 집단화 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여파로 부농들과 대규모 가축 소유자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농업 집단화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행해졌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스탈린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에게 정착화 정책을 명령하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에게 민족의 오랜 전통과 생활양식을 바꾸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착생활에 대한 경험 부재와 농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던 유목민들에게 스탈린의 정착화 정책은 ‘유목 생활의 소멸’이라는 문명적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유목 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초반에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와 유목민의 정착화 정책에 반대하는 폭동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물론 소비에트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폭동은 진압되었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들이 발생했다. 특히 1930년대 카자흐인들이 겪어야 했던 인적 및 물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당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카자흐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으며, 대략 80%에 달하는 가족들이 도살당했을 정도였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강제적인 농업 집단화와 유목민의 정착화 정책의 시행으로 또 다른 중대한 사회적 문제, 즉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업과 면화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탈린은 소수 민족의 강제이주 정책을 실시하였다. 크림반도의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의 독일인, 폴란드인, 극동의 고려인 등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민족들이다. 당시 소비에트 정부는 집단 이주된 소수 민족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연대와 단합을 예방할 목적도 갖고 있었다.

또한, 흐루시초프 통치 시기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 정책이 재차 실시되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처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1954년 2월 발표된 미개간지 개척 사업은 식량부족 사태를 대비한 농지 확보 정책의 일환이었다. 소련 당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대략 80만 명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의 북부 초원 지대에 정착하여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다량의 목초지들이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러시아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심지어 1960년대 초반에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 중에서 러시아인이 43%, 카자흐인이 29%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민족 구성 분포가 형성되었을 정도였다. 결국 이러한 이주 정책이 소연방 해체시기까지 카자흐스탄의 민족 구성과 인구 분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민족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주었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3-3. 소련의 문화(언어, 종교)정책과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언어와 종교를 포괄하는 문화 부문에서 ‘코레니자치야’로 불리는 현지화 및 토착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것은 개별 민족 공화국들에게 교육과 공공 업무 등과 같은 영역에서 민족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했으며, 모든 공공 기관의 제반 직무 분야에서 토착 민족 출신 인사들을 보다 우대하여 등용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소련 당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주민들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 속으로 통합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런 맥락에서 중앙은 토착화 정책을 적극 활용했으며, 민족 공화국의 엘리트 집단 역시 당과 국가 기관들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토착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미숙련 민족 관리들의 경우도 실제적인 현장 교육을 통해 당 간부로 양성되었으며, 원주민 출신 인사들의 경우 각종 교육기관 입학 시에 우대 조치가 취해졌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민족어가 고유한 언어로서 정비됨과 동시에, 라틴 문자가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1938년부터 소련 전역에 공용어 중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어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언어들도 키릴문자로 변환되었고, 1950년대 이후로는 러시아어 사용이 더욱 강화되어버렸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는 민족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회로 변모했다. 이밖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중 교육

인프라가 폭 넓게 보급되면서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중앙아시아 민족 공화국의 문맹 문제는 거의 해소될 수 있었다.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는 러시아의 지위를 고양시키려는 언어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1970년대 브레즈네프는 ‘새로운 역사적 국민의 공동체’로서의 ‘소비에트 국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러시아어를 소비에트 국민의 언어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르바초프 시기 개방과 개혁 정책이 추진되면서 언어적 차원의 민족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물론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언어적 민족주의가 고양된 원인은 고르바초프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상황적 산물이라고 하겠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신론을 주창하는 소련 사회에서는 제정 러시아 시기와는 달리 종교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은 철저하게 배척당하였다. 예를 들자면, 무슬림 지식인들의 체포, 이슬람 종교법의 폐기, 이슬람 사원 폐쇄, 와크프의 몰수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은 비공식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생명력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특히 할례, 혼인, 장례 등과 같은 일상 생활의식의 경우에 이슬람식 관습들이 널리 행해졌다. 또한, 소련 정부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민족들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이슬람을 일정한 원칙 안에서 허용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슬람을 관리하는 4개의 종무국이 수립되었으며, 그 중에서 타슈켄트에 세워진 종무국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후르시초프 시기에는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탄압이 재개되었는데, 이는 탈 스탈린화 과정에서 종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당내 이데올로기 옹호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한편, 브레즈네프는 이슬람에 대해 전임자보다 훨씬 완화된 태도를 취했다. 특히 1978년 이란 혁명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기에는 이슬람에 대해 전례 없이 완화된 분위기가 소련 사회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슬람은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다’라는 선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 IV.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은 경직된 소련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대변되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본질상 정체된 소련 경제체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우선적으로 소련 사회에 활력을 주입시키기를 기대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는 당시로선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그의 개혁·개방정책은 전혀 뜻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소련 사회의 개방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 동안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었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만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연방의 구성 공화국들에서 발생했던 각종 시위 사태와 민족 분규들은 소련의 체제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소연방 체제 내부에서 민족주의 운동의 확산은 1991년 소연방 해체의 핵심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기 중앙아시아 민족 공화국들에서 발생한 대중들의 시위 및 소요 사태는 소비에트 통치의 부정적 결과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구 구성비의 인위적 변동, 언어와 종교 문

제와 연관된 문화정책의 성격, 환경오염 문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서 민족주의 성격의 운동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반핵운동 단체인 카자흐스탄의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비를리크’와 ‘에르크’, 타지키스탄의 ‘라스타히즈’ 등이 연방 정부내지는 공화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및 사회 문화적 문제들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지적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 소연방 내부의 지역들 간의 격차를 비판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공화국의 주권 확립, 러시아어에 종속되어 있었던 민족어의 지위 향상, 이슬람의 복원, 환경 오염의 중단 등이 있었다.

#### 4-1. 카자흐스탄의 사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 공화국들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발산하는 다양한 군중 시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에서 첫 번째 민족주의적 주민 폭동은 1986년 12월 16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알마티에서 발생했다. 알마티 폭동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공화국 통치 엘리트의 갑작스런 교체에 있었다. 당시 카자흐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공화국 당 제1서기 쿠나예프가 부정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를 빌미로 러시아인 콜빈으로 전격 교체되었다. 바로 다음날인 12월 17일 쿠나예프의 교체에 항의하기 위한 대규모 군중들의 시위가 알마티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폭동에 참여했던 많은 청년들이 쿠나예프의 고향인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알마티 폭동은 경찰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소연방 민족주의 소요의 시발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말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운동은 주로 교사, 과학자,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 지역에서의 핵무기 실험과 환경오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반핵 운동가 집단은 핵 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미팔라틴스크에서 모임을 열었고, 더 이상의 핵무기 실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들은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Nevada-Semipalatinsk)라는 운동 조직을 결성하여 반핵 시위를 벌여나갔다.

카자흐스탄에서 언어 정책과 역사 기술에 대한 문제도 민족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카자흐스탄 19차 당회의 결의문에서 중앙위원회는 민족의 고유한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좋은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언어정책에 대한 결의문은 1987년 3월에 통과되었다. 게다가, 1989년 9월 카자흐스탄 최고 소비에트는 카자흐어를 공화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새로운 언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카자흐어의 교육과 보급을 위한 새로운 모임들이 생겨났다. 일명 ‘모국어 모임’(The Mother Tongue Society)이 대표적인 단체였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카자흐어를 가르칠 목적 아래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지식인들은 카자흐 역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카자흐 역사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적인 사례로 유명한 카자흐 출신 작가인 솔레이마노프는 1988년 6월 3일 콤포몰스카야 프라우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인을 위한 카자흐 역사 연구와 역사책 편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과거 소련 당국으로부터 숙청당했던 카자흐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복권을 언급했다.

#### 4-2.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1988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인민전선 운동단체 ‘비를리크’(Birlik)가 형성되었다. 이는 현대 중앙아시아의 정치운동 단체들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주로 우즈베키스탄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비를리크는 리투아니아의 인민전선인 ‘사주디스’(Sajudis)를 역할 모델로 삼았고, 타슈켄트 대학 플라토프 교수가 의장직을 맡았다. 이 조직은 우즈베크어를 공화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고, 결국 1989년 10월 입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고르바초프 시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도 환경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민족적 관심사였다. 우즈베크 지식인들은 환경오염이 우즈베키스탄의 토지를 황폐화를 가져 온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였다. 1989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맹의 후원아래 아랄(Aral)해 보호를 위한 모임(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the Aral Sea)이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주로 아랄해 오염의 엄청난 참사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88년 3월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사원들이 문을 열었고, 5만권에 달하는 코란이 새롭게 발간되었다. 또한, 코란의 우즈베크어로의 번역 작업과 부하라와 타슈켄트에 위치한 이슬람 신학교의 확장도 허가되었다. 당시 무슬림 생활에 있어서 모든 장애들이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V. 결론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역사적으로 현재의 '영토-민족' 단위에 기초하여 존재했던 국가들이 아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민족 공화국들은 소련 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위로부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들이었다. 주지하듯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역사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4년 이후부터이다. 당시 소비에트 정권은 민족과 인종을 기본 단위로 삼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5개의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소연방 체제 형성기부터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 시기까지 자유로운 통행과 역내 경제권 간 융합 및 분업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민족과 국가들을 형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근대화라는 선물을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5개의 새로운 민족 공화국들이 수립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혁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생활 시설들과 산업 인프라 건설, 교육과 문화의 제도화, 새로운 민족 엘리트 집단의 출현 등이 소련 지도부가 만들어 낸 근대화의 주된 성과물이었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제국의 근대화 작업은 중대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을 통해 체제와 문명의 급격한 변화를 도모했음과 동시에, 언제나 공산당의 이념적 판단이 우선시되었다. 게다가, 소련 지도부는 스탈린의 숙청과 강제이주, 농업의 집단화와 유목민의 정착화, 민족 구성과 인구 분포의

인위적 조정 등을 초래한 장본인이었다. 소비에트 통치 기간 동안 쌓여왔던 사회 경제적 불만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고,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의 대중 시위들이 발생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1980년대 말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앙의 통제력을 증대시키려는 소련 지도부와 공화국의 민족 엘리트 집단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겨났다. 1990년 연방 재편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엘리트 집단은 민족주의 운동 세력의 편으로 자신들의 중심축을 이동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공화국의 주권을 선언하면서 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마노 에이치 외. 『교양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사』. 현승수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09.
- 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이해』. 서울: 쉐네스트, 2009.
- 안토니 파그덴. 『민족과 제국』. 한은경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임영상 편. 『소련과 동유럽의 민족주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6.
- 존 톰슨.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김남섭 옮김. 서울: 사회평론, 2004.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0.
- Atabaki, T. *Central Asia: 120 Years of Russian Rul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89.
- Caroe, Olaf. "Soviet Colonialism in Central Asia" Vol. 32, No. 1 (October 1953).
- Fedorenko, V. "Central Asia: From Ethnic to Civic Nationalism." *Rethink Paper*, (March 2012).
- Haugen, Arn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publics in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Rumer, B. Z. *Soviet Central Asia: A Tragic Experiment*. Boston: Unwin Hyman, 1989.
- Sartori, Paolo. "Towards a History of the Muslims' Soviet Union: A View from Central Asia." *Die Welt des Islams*, Vol. 50 (2010).

# 열린 민족, 닫혀진 국가: 소비에트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형성과 발전

현 승 수(한양대)

## I. 소비에트화 이전의 남카프카스

### 1-1. 남카프카스의 인문지리적 환경

카프카스 지역은 대카프카스산맥을 경계로 하여 북카프카스와 남카프카스로 나뉘며, 문화적 이질성은 북과 남보다는 오히려 동과 서 사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러시아가 카프카스 전체를 식민지화하기 전까지 서쪽은 오스만 제국과의 문화적 연계가 강했으며 동쪽은 페르시아 및 아랍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먼저 동카프카스 지역에 제국의 발판을 마련한 후 서카프카스를 점령해 나갔다. 대카프카스산맥을 관통하는 조지아군사도로는 1760년대에 착공되어 1790년대에 완성을 보았다.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트란스카프카스 철도가 완성된 것은 1890년대에 들어서였다.

오늘날 러시아령 북카프카스에 속하는 다게스탄공화국의 남쪽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1820년대까지 이슬람을 신봉하는 투르크계 칸국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들 칸국은 명목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역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상당 정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결국 러시아 제국이 카프카스에 군림하면서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칸국들도 러시아에 복속되었지만,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문화는 오늘날까지 페르시아 문명의 강한 영향력을 느끼게 한다. 사실 17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카자르(Qajar) 조는 아제르바이잔 왕조로 불리기도 하는데, 카자르인들은 원래 투르크코만(Turkoman) 유목민의 후예들로서 사파비(Safavid) 조의 멸망 이후 분열되어 있던 페르시아를 통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인들은 현대 터키어와 유사한 아제르어를 구사하지만, 수니파 이슬람을 신앙하는 터키인들과는 달리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시아파 이슬람을 신봉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서쪽에는 카르트벨리어 계통의 언어(Kartvelian languages)를 사용하는 카프카스 토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조지아어를 비롯해 민그렐리어(Mingrelian), 스반어(Svan), 라즈어(Laz) 등이 모두 카르트벨리어에 속하는데, 이 언어들은 전 세계 어느 언어와도 계통적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는 카프카스 토착어들이다. 오늘날 조지아인으로 불리는 이들 언어 사용 민족들은 중세 시기 몇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살고 있었다. 동쪽의 카헤티(Kakheti), 중부의 카르트틀리(Kartli), 서쪽의 이메레티(Imereti) 그리고 규모가 작은 공국들이 그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동

방 기독교를 신앙하던 이들 국가는 서로를 적대시할 때면 주변 강대국들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상당 정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르틀리와 카헤티가 페르시아나 오스만 제국과 같은 이슬람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기독교 제국인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카프카스의 세력 균형은 깨졌고 결국 1801년 두 나라가 정식으로 러시아 제국에 복속하면서 조지아 지역은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다.

조지아의 남쪽에는 아르메니아가 위치해 있다. 이 나라는 구 소련 국가들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지만,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거주지는 오늘날의 터키와 이란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과거 헬라인 왕국과 페르시아 태수령(satrapies), 기타 무슬림계 칸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곳이며, 일찍이 확립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덕분에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문화를 상실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시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를 진정한 아르메니아인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아르메니가 위치한 지역이 아르메니아인의 고지(故地)이며 전통적으로 이 곳에 거주해온 이들만이 아르메니아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주변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대한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를 아르메니아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르메니아어는 카프카스에서 드물게 인도-유럽어계에 속한다.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존재하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은 비교적 근대에 들어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르메니아라는 지명은 이미 고대에 사라졌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부활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 존재가 확인되어 왔지만 그들이 하나의 민족집단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오스만 제국 초기이며 1890년대 들어 오스만 제국 영내의 터키인들에 의해 조직적인 폭력과 대학살을 경험하면서 근대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조지아라는 지명 자체는 15세기에 지도상에서 일단 모습을 감추고 봉건 왕국과 공국들이 그 지역에 분립해 있다가 1801년 러시아 제국이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통합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조지아인들의 단일 정체성은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명칭은 20세기까지 민족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주로 이란 북서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국가는 물론 민족명으로 통용된다.

결국 오늘날 지역명 혹은 국명으로 사용되는 이들 3개 명칭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며,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라는 집단의 명칭이 수백년 아니 천 년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지라도 그 명칭이 가리키는 집단과 오늘날의 조지아 민족, 아르메니아 민족은 일치하지 않는다. 카프카스 지역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제국들과 각 집단들 사이에 체결된 수많은 조약, 인구의 강제적 혹은 자발적인 이주, 사회적 관습과 공식적 문화 정책 사이의 상호관계, 전쟁, 정치 지도자 개인의 자의적인 결정 등이 오늘날의 카프카스와 그곳에 사는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sup>1</sup>

1 조지아의 민족주의는 과거 지향적이다. 아득한 과거에 자신들의 국가가 지배하고 있던 영역에 조지아 민족을 다시 모은다는 것이다. 과거 조상들이 세웠던 위대한 왕국의 회복, 그것이 조지아인들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바였다. 사실 조지아 민족의 기원을 고대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민족 일반의 기원만큼이나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그들의 종교와 문어, 독특한 문자 체계, 고대의 왕궁 등이 조지아 민족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기제들이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민족과 민족 국가를 근대성의 이식 수단으로 생각했다. 조지아인 들이 상상된 과거로의 회귀로 민족을 바라본 것과는 달랐던 것이다.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는 그 이념으로서, 또 운동으로서 상기한 두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즉 근대화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역사회귀주의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합적 성격은 다분히 환경에 기인한다. 오늘날 아르메니아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 원래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거주하던

## 1-2. 러시아 혁명과 남카프카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오스만 군이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인 동부 아나톨리아에서 철수하자 러시아 군은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916년 한 해 동안 러시아 군은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여 상당한 전승을 거두었다. 그 해 초, 러시아 군은 동부 아나톨리아에 있는 주요 요새들을 함락하고 봄이 올 무렵 흑해 연안에 도달했으며 재빨리 트레비존드(Trebizond)를 급습했다. 오스만 군은 전력 손실로 인해 기본적인 대응에만 나설 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지 못했다. 1915년 11월부터 19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만 군 병력은 약 40만 명 줄었는데 이 숫자는 총 병력의 4분의 3이 러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군은 메소포타미아에 주둔해 있는 영국군과의 대규모 합동 작전을 위해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오스만 군을 압박해 들어 갔다. 만일 이러한 작전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뒀다면 전쟁은 수 개월 단축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1917년 2월 러시아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켜 제정이 붕괴되었으며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황제가 퇴위했다는 소식이 전장에 전해지면서 러시아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탈영이 속출했다. 장교들은 정당들이 유폐하는 선전 선동에 넘어가 정치화되었으며 사기가 급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전장에 세력 균형을 초래했다. 오스만 군 역시 다른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었던 탓에 적진의 동요를 만족스럽게 활용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새로 구성된 러시아 임시정부는 제정 시기에 만들어진 카프카스 총독직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에 파견했다. 그러나 사실상 권력은 사회주의 정당이 조종하는 현지 소비에트들이 장악했으며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아보려는 이들도 발호했다. 카프카스 전역에서는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시장이 장관이 되고 신문 편집장이 외교관이 되었으며 지하 활동가들이 다 뛰쳐나와 대통령이나 총리로 행세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1917년 10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카프카스의 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정한 위협은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볼셰비키들의 정치적 야심이었다. 남카프카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볼셰비키를 배제한 채 트란스카프카스인민위원회(Transcaucasus Commissariat)를 결성했다. 이 기구는 볼셰비키 혁명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평가 가능해지고 카프카스에 대한 혁명의 영향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정부로서 기능할 터였다. 볼셰비키 측 역시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Brest Litovsk)에서 열린 볼셰비키 측과 동맹 국가들(Central Powers) 사이의 평화 회담에 트란스카프카스인민위원회 측 대표를 참석시키지

---

땅이며 아르메니아인들의 역사적 고지는 동부 아나톨리아다. 고대 도시 아니(Ani)는 14세기 지진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아르메니아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 중세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이 상업 등의 이유로 세계 각지에 이산된 까닭에 베니스, 크라코프, 이스탄불, 예루살렘, 캘커타 등지에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으며 이들 공동체 사이에 무엇이 아르메니아이며 어디가 아르메니아인을 둘러싸고 골이 깊은 의견 대립이 생겨났다. 아르메니아인들이 민족적 상징으로 존송하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조차도 분열되어 있었고 십자군 전쟁 이후 지금까지 교회 수장이 둘이다. 하나는 예레반 근교의 에치미아진(Echmiadzin)에, 또 하나는 레바논의 안텔리아스(Antelias)에 있다. 언어 또한 아르메니아인의 역사적 고지인 아나톨리아 지역과 유럽 및 레바논 지역 디아스포라들이 사용하던 아르메니아어 서부 방언과, 현 아르메니아공화국과 이란 및 주변 지역에서 사용하는 동부 방언이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19세기 정치적 분열로 더욱 심화되었다. 두 개의 주요 정당인 훈차크(Hunchak, 아르메니아어로 경종이라는 뜻)와 다슈나크는 전자가 1887년 체네바에서, 후자가 1890년 티플리스에서 각각 조직되었다. 다슈나크는 아르메니아 민족국가의 중심 세력이 되어 볼셰비키와 싸웠으며, 1920년 독립 공화국이 폐지된 이후, 다슈나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를 여전히 자민족 정체성의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 반해, 다슈나크 세력은 이에 반대했다.

않았다. 이렇듯 카프카스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결된 이른바 브레스트 리토프크스 조약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 측과 평화 교섭을 추진하던 남카프카스 정부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자국 사이에 그어져 있던 국경선 주변 분쟁 지역에서 러시아 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하게 티플리스(Tiflis)에서 열린 카프카스 정부의 회합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카프카스인들은 볼셰비키가 평화를 위해 카프카스를 오스만 제국 측에 넘겨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1918년 4월 말, 트카프카스민주연방공화국(the Democratic Federative Republic of Transcaucasia)이 독립국가로 선포됐다. 그러나 남카프카스 최초의 통합 국가는 그리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한 달을 갓 넘겼을 때,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가 각각 탈퇴하여 개별 공화국으로 독립해 나갔다. 이들 3국은 볼셰비키의 음모와 제정 부활을 획책하는 백군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3중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1918년부터 불과 2년 남짓 누렸던 3국의 짧은 독립은 그러나 카프카스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남카프카스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국가였으며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최초의 무슬림 의회제 국가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3국은 소연방 해체 이후 발생하게 될 영토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이기도 했다.

### 1-3. 독립 조지아의 멘셰비키

여기서 조지아의 멘셰비키에 대해 언급해야 하겠다. 1903년, 망명 중에 있던 러시아사회민주당 노동당의 전당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분열이 초래됐다. 그들은 당규의 문구, 특히 당원 규정과 관련된 조항을 둘러싸고 갈등했다. 레닌이 이끄는 분파는 협의의 규정을 주장했으나, 오랫동안 사회주의 활동에 투신해 온 율리 마르토프(Iulii Martov)의 분파는 규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레닌의 생각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의 공모적 당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마르토프는 다양한 노동운동을 포함해 부르주아지 정당들과의 타협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마르토프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았으나 마르토프 지지자들의 일부가 회의장을 퇴장해 버리자 레닌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졌다. 바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계기는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 파벌의 대립은 1924년 볼셰비키 파가 멘셰비키의 ‘자발적’ 폐지를 선언한 시점까지 계속됐다. 비록 멘셰비키가 레닌의 카리스마나 스탈린의 잔인한 결정에 저항할 만한 지도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1917년 10월 이전까지 러시아제국 주변부, 특히 비러시아계 민족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모았던 것은 멘셰비키였다. 그리고 볼셰비키 주도의 혁명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멘셰비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곳은 조지아였다.

조지아의 멘셰비키는 1905년 이전부터 활발한 사회주의 지하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해 발생한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의회인 두마를 설치하자, 조지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지하에서 나와 의회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록 러시아 최초의 입헌군주제 실험이 좌절되고 황제가 다시금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두마로 인해 시작된 정당 정치는 발전을 보았다. 당시 두마 내의 멘셰비키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조지아인들이었다. 또 1917년 2월 혁명으로 제정이 붕괴되고 임시정부가 페트로그라드에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 주축 세력 역시 조지아 출신의 멘셰비키였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가 권력을 찬탈하자 이들은 카프카스로 내려가 1918년 5월 26일 독립 조지아를 선언했다.

비록 조지아에서 멘셰비키들이 핵심 정당을 구성했지만, 정치 엘리트들은 전체적으로 계급과

민족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다. 멘셰비키는 주로 조지아인들이었는데 특히 서부 지역 출신들이 많았다. 그들은 도시 노동 계급과 농민 계층이었으며, 토지 개혁과 완전한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대를 이탈한 구 제국군 병사들이 여전히 도처에 남아 있었다. 주로 러시아 농민 출신이었던 이들 병사들은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에 포섭되었다가 결국 볼셰비키의 핵심 당원으로 탈바꿈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티플리스에서는 도시 부르주아지의 대다수가 아르메니아인들이었으며 그들은 볼셰비키나 멘셰비키보다는 자유주의 정당들 특히 우파에 더 치우쳐 있었다.

신생 공화국의 사회와 정치는 조지아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조지아의 독립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멘셰비키는 민족국가 건설보다는 사회 정의와 계급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 당시 조지아 국회의장이며 메사메 다시(mesame dasi)의 지도자였던 노에 조르다니아(Noe Jordania)는 독립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인 것” 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독립은 민족 주권에 대한 집단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혼란에서 자기 보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독립선언문의 머리말에 적시된 것처럼, 한 세기 전 조지아인들이 러시아 제국으로의 병합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주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의 분리 역시 유사한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처음 조지아 정부는 터키인들과 러시아인들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에 강력한 동맹을 요청했다. 그러나 1918년 독일이 동맹국 세력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그 관계는 끝이 났으며, 이제 영국이 조지아의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영국군은 오스만 제국군이 바쿠 유전 지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카프카스 지역에 파병해 있었고 오스만군과 독일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위임 통치를 확대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와 변화하는 전략적 관계들의 한복판에서도 정치 체도는 빠르게 발전했다. 전쟁이 끝나자 멘셰비키 지도자들은 의회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지방 곳곳에서 발생하는 농민 봉기를 잠재우기 위해 광범위한 토지 개혁을 실행했다. 1919년 1월에 새로운 조지아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멘셰비키가 130석 가운데 109석을 획득하는 쾌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볼셰비키는 조지아 정치에서 일단 패배했지만 지하 활동을 계속했다. 티플리스에서는 볼셰비키가 습격과 선동선전 활동을 계속했고 지방에서는 무장 반란을 획책했다. 국내 질서는 조지아와 백군의 관계에 의해 더 복잡해졌다. 제정의 부활을 노리는 백군 세력은 조직을 재구축하고 러시아 제국 곳곳에서 볼셰비키와 충돌했다.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백군을 지휘하는 안톤 데니킨(Anton Denikin) 장군은 남카프카스의 신생 공화국들이 북카프카스 주민들의 반러시아 저항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여 1919년 11월,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경제 봉쇄를 획책했다. 조지아 군과 데니킨 군은 특히 흑해 해안 지역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으며 데니킨 군의 일부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조지아 신 정부는 나라 안에서는 볼셰비키를, 또 국경 지역에서는 백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1919년 조지아 신 정부가 국가 예산의 절반을 국방부에 배당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 속에서도 당시의 조지아는 민주주의와 활발한 경제, 개인적 자유가 보장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당시 조지아를 방문한 미국과 유럽의 방문자들은 증언한다.

#### 1-4. 아제르바이잔의 독립과 무슬림 사회주의

아제르바이잔민주공화국은 조지아가 독립을 선언한 이틀 후인 1918년 5월 28일 수립되었다. 비록 아제르바이잔 국가가 트랜스카프카스연방으로부터 조지아가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긴 했지만, 그것은 수십년간 러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 숨쉬던 이슬람 개혁주의의 이상이 맺은 결실이기도 했다. 오랜 기간 주변인들로부터 ‘타타르’로 불리던 남카프카스의 투르크인들이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은 무슬림 지식인들의 염원이었다.

제정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무슬림 정당들 가운데 대표격인 무사바트(Msavat, 평등)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설립됐다. 조지아의 멘세비키처럼 무사바트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 내용은 민족주의적이었다. 다시 말해 설립 당시에는 좌파 지식인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민족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했던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화국 창설을 주도한 이들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독일이나 터키의 보호 하에서 새 국가가 페르시아 북서부 국경에 걸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고지와 융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곳에는 투르크 언어를 사용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이 페르시아인들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자유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신들만의 나라, 아자디스탄(Azadistan) 공화국을 설립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아자디스탄은 1920년 여름 몇 개월 동안 조속하기도 했는데, 그 때는 이미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후였다.

신생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영토는 제정 러시아 당시의 바쿠와 엘리사베폴(Elisavetpol) 지방을 합친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동 공화국이 존속한 2년 동안 정부가 공화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독립을 선언할 당시, 수도인 바쿠는 공화국의 통제 밖에 있었다. 1917~18년 동안의 바쿠의 역사 자체가 험난한 신생 공화국의 운명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도시 바쿠는 그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가장 복잡하게 혼재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석유 산업으로 등장한 산업계 프롤레타리아가 있었는데, 부유한 도시 부르주아지도 있었으며 토착 지식인 계층도 있었다. 이들 계층에는 무슬림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인과 러시아인들이 섞여 있었다. 이들 집단은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는 1904~6년의 도시 폭력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전쟁, 혁명 등과 얽힌 결과였다.

10월 혁명 직후, 바쿠의 도시 정부는 볼셰비키의 수중에 떨어졌다. 볼셰비키는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무사바트가 갖고 있지 못했던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즉 지략이 뛰어난 아르메니아인 활동가 스테판 샤우미안(Stepan Shaumian)과 같은 능력있는 지도자와 민족 간 분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동하는 기술이었다. 1918년 민족 간 유혈 충돌이 바쿠를 휩쓸었을 때 볼셰비키와 아르메니아인 사회주의자들은 무사바트 당과 그 동조 세력에 맞서 싸웠다. 이 사건은 10년 전 무슬림과 아르메니아인 사이에서 벌어졌던 충돌의 재현인 셈이었다. 결국 볼셰비키가 장악한 바쿠 소비에트가 승리했으며 무사바트 세력은 서부 도시인 간자(Ganja)로 추방됐다.

오스만 군 장교들과 카프카스 자원병들로 알려진 ‘이슬람군’이 볼셰비키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모아 바쿠 공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연합국들에게 오스만 제국의 세력 확대 움직임을 비쳐졌고 결국 1918년 8월, 영국군이 파병되어 이를 막는 데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슬람군은 그 해 9월 바쿠 함락에 성공했고 샤우미안을 비롯한 26명의 볼셰비키 인민위원들은 바쿠를 탈출해 카스피해 동부 연안으로 도주했다가 제정 복권자들에게 붙잡혀 처형당했다.

하지만 이슬람군의 승리는 허무하게 끝을 맺었다. 1918년 10월 9일, 오스만 군은 동맹국과

무드로스(Musdros) 정전 협정을 체결하고 바쿠의 통치권을 영국에게 양도했다. 또 이 협정에 따라 도시의 무장 해제와 석유 산업 및 철도 수송에 대한 연합국의 통제권이 확립됐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의 진정한 독립은 영국 군이 철수한 1919년 8월부터 볼셰비키의 마지막 공격이 가해지는 1920년 4월까지만 지속된 셈이었다.

신생 공화국의 의회는 1918년 12월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장소는 바쿠 시내에 있는 라기예프(Raghiyev) 여학교였다. 의석의 약 4분의 1을 무사바트가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보다 민족주의적이거나 사회 민주주의적 지향을 갖는 무슬림 정당들이었다. 최대 소수민족인 아르메니아인과 러시아인들에게는 특별석이 주어졌다. 그 밖에도 소수민족 조직들이 자기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선거와 뒤이은 영국의 철수 이후 수개월 동안 정부는 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바쿠대학을 설립했으며 도로 복구, 교사 양성, 도서관 설립과 같은 국가 건설 작업을 힘겹게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이전에 국유화 됐던 석유 회사들이 다시 제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젊은이들을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에 유학보내 기계 기술과 조선, 건축, 항공, 의학, 법학 및 기타 학문들을 배우오도록 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의 절반은 국방과 철도 유지에 투입됐다.

조지아처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일부 정치가들은 공화국 수립을 민족주의 이념의 실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의장인 맘메드 아민 라술자데(Mammed Amin Rasulzade)가 첫 의회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그들의 “탈 러시아 분리는 적대 행위가 아니었다”. 또 그들의 “행동은 현재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의 결과였다.” 공화국이 지향하는 바는 새로운 삼색 국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청색은 투르크 문명을, 녹색은 이슬람을 그리고 적색은 유럽 사회주의를 상징한다. 라술자데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무정부 상태와 정치적 극단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민주주의의 대업에 아제르바이잔과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1-5. 신생 아르메니아의 분열

아르메니아도 아제르바이잔과 사회주의적 이상을 공유했다. 양 공화국은 같은 날인 1918년 5월 28일에 수립됐으며 둘 다 러시아 제국의 기존 영역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제국 시기의 예레반 현(guberiniia)과 카르스 지구를 합친 영역에 세워졌다. 중요한 것은 아르메니아의 독립이 전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1918년 5월 말, 일련의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구 제정 러시아 군의 아르메니아인 부대는 비정규 자원병 부대와 힘을 합쳐 훨씬 규모가 큰 오스만 제국군에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인해 독립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수립이 가능했다. 러시아 제국 각지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아르메니아인 지식인들이 예레반으로 모여들었고 8월에 임시 의회를 소집했다. 의회의 핵심 세력은 다슈나크(Dashnaks)로 불리던 아르메니아혁명연합이었으나 그 밖에도 개혁주의적이고 진보적 성향을 갖는 정당들이 의회 구성에 참가했다. 여기에는 무슬림 대표들도 있었는데, 이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무슬림 세력을 신생 아르메니아 국가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화폐를 제정하고 법 체계와 세법을 개혁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무슬림 소수민족의 불만, 그리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볼셰비키의 계략으로 인해 갖 생겨난 신생 정부는 위험에 빠졌다. 무장 집단들이 농촌 지역에서 제멋대로 통치했으며, 부대에서 이탈한 적잖은 수의 병사들과 혼란을 틈타 한 몫 챙기려는 불한당들까지 가세해 국내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아르메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도 신생 공화국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전쟁을 피해 도처에서 밀려든 아르메니아인 피난민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 당시의 통계를 보면, 1919년

아르메니아 영내에는 51만1000명의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터키 국경에서 온 이들과 러시아령 아르메니아 본토로부터 쫓겨 온 난민들이었다. 이 숫자에 인근 카프카스 지역에서 온 15만명의 난민들(여기에는 무슬림 주민들이 포함된다)과 자선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2만명의 고아를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났다. 현지를 방문한 미국과 유럽의 사절단은 당시 아르메니아에 창궐한 각종 질병과 난민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빵을 얻기 위해 자식을 내다 파는 부모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굶주리는 아르메니아인들”이라는 표현은 한동안 미국인 엄마들이 자식의 편식을 꾸중할 때 종종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다.

예레반의 정치적 분열도 심각했다. 신생 국가의 건설과 악화하는 국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정당들 간 의견 불일치가 도를 넘었다. 각 정당 안에서도 무슬림 주민에 대한 처우와 치안 회복을 위한 방법을 놓고 분파 별로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평화 회의에서는 아르메니아인 대표들이 자기네 정부와 충돌했는데 특히 러시아 제국령 출신자들과 오스만 제국 출신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다. 이러한 총체적 분열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국경 문제로 더욱 위험해 보였다. 북으로는 조지아와, 남과 동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그리고 남과 서로는 터키와 국경 분쟁이 심각했다.

1919년 6월에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다슈나크가 신생 의회를 장악했으며 88석 가운데 72석을 차지했다. 국가와 정부의 요직도 다슈나크 당원들로 메워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무슬림 주민들의 이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볼셰비키 스파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준 꼴이 됐다. 아락스(Arax) 강 협곡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주민들의 대규모 봉기는 그 해 여름 동안 계속되었으며 국경의 분쟁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의 충돌이 그 해 내내 이어졌다.

#### 1-6. 좌절된 독립

서구 열강이 볼셰비키 세력의 위협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남카프카스 3국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는 이들 국가의 독립 승인을 주저하고 있었다. 1920년 1월,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가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티플리스와 바쿠에 전해지자 이를 환영하는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티플리스에서는 거대한 파티가 벌어져 아르메니아의 총리와 아제르바이잔 대표들이 참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폭죽을 너무 성급하게 터뜨렸음이 곧 밝혀졌다. 국제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도 전에 구두로만 전달된 국가 승인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파리 회담은 카프카스의 복잡한 영토 문제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1918년 5월, 북카프카스 소수민족들이 수립한 북카프카스산악공화국에서는 볼셰비키군과 백군 그리고 현지인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전자의 두 세력은 새로 형성된 산악공화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다게스탄 지역에서는 데니킨의 백군과 산악공화국 의회 세력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이를 피해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밀려들어 왔다. 제정을 복권시키려는 백군의 만행이 도를 더할 수록 산악민 소수민족들은 볼셰비키 쪽에 붙었다. 결국 1920년 초, 볼셰비키가 북카프카스 지역을 장악하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서둘러 북쪽 국경을 지키기 위해 볼셰비키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그 해 4월 말, 적군이 바쿠를 점령하고 아제르바이잔 의회에 무사바트 정부의 종언을 고하도록 강요했다. 의회는 권력을 볼셰비키에게 넘겨주는 데 동의하고 말았다.

다음은 아르메니아의 차례였다. 1920년 5월, 볼셰비키의 스파이들은 공화국 전역에서 반란을

획책했다. 반란군에는 일부 무슬림 지역의 지도자들과 불만을 품고 있던 아르메니아 군 병사들까지 가세했다. 다슈나크 당원들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군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반격에 밀린 반란군들은 무슬림 거주 지역으로 퇴각했으며 일부는 터키와의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소개된 무슬림 거주 마을들에는 아르메니아인들로 채워졌고 아르메니아 농업 경제의 중심지라 할 아락스 평야도 아르메니아인들이 차지했다. 다슈나크 군은 공세를 남쪽으로 더욱 확대해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 지역인 나히체반(Nakhichevan)을 차지할 속셈이었다. 그러나 터키 군이 아르메니아 영내로 진격해 들어오고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을 장악한 볼셰비키가 아르메니아로 밀고 들어오자 아르메니아는 두 개의 점령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그 해 12월 예레반 정부는 볼셰비키에게 권력을 넘겨 주고 말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점령 당하자 조지아의 상황도 풍전등화처럼 보였다. 원래 볼셰비키는 조지아의 독립을 승인한 것처럼 행동했으며 우호조약까지 체결한 상태였다. 1920년 조지아의 외교관을 만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좋소, 그곳에서는 당신들 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십시오. 민주적 소부르주아지(petit-bourgeois) 식 사회주의를 말시오. 우리는 혁명적 방식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소.” 그러나 1921년 2월, 볼셰비키 군은 아르메니아로부터 조지아로 진격해 들어왔고 뒤이어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도 볼셰비키 부대가 조지아 영내로 들어왔다. 북쪽으로부터는 난을 피해 내려오는 난민들과 이들을 뒤쫓아 온 적군들이 조지아군사도로를 가득 메웠으며 이 틈을 타 터키 정부도 민감한 국경 지대에서 조지아 군이 철수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2월 말, 조지아 군은 티플리스에서 철수해 바투미로 거점을 옮겼으며 이 곳마저도 3월 중순 볼셰비키 군과 터키 군의 공략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 정부는 가까스로 배를 타고 바투미를 탈출했고 이들과 협력했던 주민들과 볼셰비키의 강제 징발에 저항한 농민들은 적발되어 처형당했다.

5월 27일, 조르다니아 대통령과 게게치코르(Evgeni Gegechkori) 외무장관, 치헤이제(Karlo Chkheidze) 제헌회의 의장, 라미슈빌리(Noe Ramishvili) 내무장관 등 조지아 지도부는 망명지인 이스탄불에서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 앞으로 호소문을 발표하여 조지아에 대한 침략과 멘셰비키 정부의 종언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으며 서유럽 열강들도 남카프카스 3국의 운명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 II. 민족 및 국경획정 문제

### 2-1. 스탈린의 민족정책

볼셰비키가 남카프카스 3개 공화국을 점령한 이후, 이들 국가 사이에 온존하던 국경 분쟁은 사실상 사라졌다. 물론 대아르메니아 구상은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대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의 독립도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했다. 이제 악명 높은 스탈린이 등장할 차례였다.

조지아 독립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조르다니아는 1953년 1월, 망명지인 파리에서 숨을 거두지만, 그가 생전에 요시프 스탈린(Joseph Stalin)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오세브 주가슈빌리(Ioseb Jughashvili)가 본명인 스탈린과 조르다니아가 처음 만난 것은 1898년 조르다니아가 티플리스의 주간지인 <<크발리>>(Kvali, 주름이라는 뜻) 지의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을 당시였다. 크발리 지는 러시아제국에서 간행된 최초의 합법적 마르크스주의 신문이었다. 어느날 신문사 사무실을 찾아온 주가슈빌리는 자신을 크발리의 열성 독자이자 사회

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티플리스 신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운동에 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르다니아는 이 당돌한 젊은이에게 사회학과 역사, 정치경제에 관한 지식을 물었지만 주가슈빌리는 거의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크발리 지에서 얻은 토막 지식과 어설픈 마르크스주의 이론 몇 개 뿐이었다. 조르다니아는 사무실을 나서는 주가슈빌리에게 계속 신학을 공부하도록 조심스럽게 충고했다고 전한다. 물론 청년은 그의 조언 따위 귓전에도 두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1921년 7월, 볼셰비키의 민족 담당 인민위원이었던 스탈린은 조지아를 방문했다. 1917년 혁명 이후 그가 고향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남카프카스 지역 내부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카프카스 지부(Caucasus Bureau)가 연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스탈린은 레닌으로부터 민족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나 그와 그의 부관인 오르조니키제(Sergo Orjonikidze)는 조지아의 민족주의를 파괴하는 중앙화 정책을 선호했다. 결국 3개 공화국을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하는 것이 스탈린의 최종 결정이었다. 이 연방 하에서 경제 구조는 단일화될 것이지만,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3개 공화국은 여전히 국가로서 남아 있게 된다. 회의 석상에서 스탈린은 청중들을 향해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어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연대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질타했다. 그는 연방 구상이 각 민족 공화국의 독립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sup>2</sup>

스탈린의 민족정책은 그가 19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방지인 <<프로스베시체니예>>(Prosveshchenie, 계몽) 지에 기고한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제하의 논문에서 그 근본과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민족에 대한 그의 시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몇 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지만 이 논문을 보면 그가 민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 다민족 국가 소련과 다민족 지역 카프카스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하는 초기부터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에 대한 스탈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서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카프카스를 고찰하는 이 장에서 주목할 것은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논문의 일개 장을 할애해 자신의 민족 이론을 카프카스라는 지역에 적용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스탈린은 민족 자치를 주장하는 멘셰비키와 민족주의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또는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를 위해 계급 투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스탈린은 “카프카스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볼 때 민족의 문화적 자치는 의미가 없으며 또 난센스” 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카프카스는 사실상 '민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곳에는 단지 '사람들'(peoples)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며 그들 중 일부는 문어를 갖고 있지만 일부는 단지 원시적인 방언만 구사할 줄 안다. 또 어떤 이들은 일관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단지 물물교환과 원시적 형태의 시장 교역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족들'로 볼 수는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 그는 조지아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조차도 고작해야 50년 전에 형성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보다 더 소규모의 집단들은 궁극적으로 보다 큰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성급하게 독립운동을 발전시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스탈린은 이 두가지 선택지가 모두 민족주의를 이용하려는 부르주아지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토에 주목하는 것뿐이었다. 즉 개별 집단이 가장 가능성 있는 영토

2 레닌은 스탈린과 오르조니키제가 ‘대러시아 쇼비니즘’에 사로잡혀 있으며 카프카스의 민족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자신의 후계자 후보에서 스탈린을 배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단위를 갖는 형태로 자결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개별 인간 집단이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지만 사회적 대립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카프카스는 전체적으로 자결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개개 인간 집단들로 나뉘지 않은채 말이다. 그리고 이 단위 하에서 제민족(형성과정에 있는 민족들까지 포함해)의 정당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계급투쟁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스탈린은 사회주의와 민족 번영이 제대로 이해만 된다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든 민족 전통이 보존될 필요는 없었다. 노동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동적인 관행(예를 들어 무슬림 여성들의 얼굴 가리개 등)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은 그것이 근대화 및 국제주의와 결합될 수만 있다면 진보적인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프카스에서는 소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탈린의 생각이 민족주의를 파괴하기보다는 감싸안는 형태로서 광범위한 정치 체제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또 카프카스를 새로운 소비에트 질서 속에 통합하는 과업은 인민의 의지로 해석되었다. 즉 남카프카스의 노동자들이 북카프카스 지역의 형제들과 '자발적'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형성된 소연방은 과거 러시아제국의 영토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1921년 경 볼셰비키는 제정 러시아의 카프카스 총독이 관할하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기에 이른다.<sup>3</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토착민들에 의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볼셰비키에 패배한 다슈나크 세력이 1921년 봄 동안 소규모의 무장 공격을 계속했다. 조지아 북서부의 고지대에 사는 스바네트인(Svaneti)들은 22~23년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볼셰비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24년 봄에는 지하 활동을 하던 멘셰비키들이 해외 망명 반체제 세력과 공조하여 조지아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북카프카스에 비하면 남카프카스에서 볼셰비키 정권의 수립 과정은 비교적 쉬웠다.<sup>4</sup>

## 2-2. 소비에트 카프카스의 성립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 21년 7월의 결정에 따라 1922년 3월, 남카프카스 3개 공화국의 중앙집행위원회(새로운 소비에트 통치 권한 기구)가 단일한 트란스카프카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성립을 승인했다. 남북 카프카스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며 아직 소연방이 성립하기 이전 상황에서(소연방은 1922년 말에 성립) 트란스카프카스연방은 독립 국가로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동맹국이었을 뿐이었다.<sup>5</sup> 이후 1922년 12월에 새롭게 트란스카프카스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이 티플리스를 수도로 하여 성립하고 소연방에 단일 주체로 편입되었다. 이후 1936년에는 3개 공화국이 각각 독립 연방 주체로서 소연방 구성 공화국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영토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사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조지아공화국에서는 세 개의 지역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북서부의 압하지아(Abkhazia)는 항구 도시인 수후미(Sukhumi)를 수도로 하며 별도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었다가 31년에 조지아공화국 내 자치공화국으로 격하되었다. 조지아 중북부에 위치한 남오세티아(south Ossetia) 지역은 츠хин발리(Tskhinvali)를 수도로 하여 자치주(oblast')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사한 시스템은 아제르바이

3 단지 예외가 있다면 1920년 겨울부터 21년 봄에 걸친 기간 동안 터키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로부터 빼앗은 카르스(Kars)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결국 터키공화국의 영토로 돼버렸다.

4 전쟁의 상흔이 도처에 남아 있었고 특히 아르메니아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심각했다. 1922년에는 메뚜기 떼가 아제르바이잔을 습격했다.

5 이 결정에 조지아의 볼셰비키들이 반발했으며 1922년 10월 집단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잔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에 위치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자치주로서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며 그 수도는 한켄디(Khankendi, 현재 스테파나케르트 Stepanakert)였다.<sup>6</sup> 나히체반(Nakhichevan) 지역 역시 자치를 인정받아 자치공화국이 되었는데, 지리상 아르메니아 영토인 잔게주르(Zangezur) 지역을 사이에 두고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격리되어 있었으며 주민의 대다수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었다. 이들 지역 가운데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소연방 해체를 전후한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격렬한 영토 분쟁의 발원지가 되고 있으며 조지아공화국에 속해 있던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도 소련 해체 직후 조지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 장차 전쟁의 무대가 될 운명이었다.

아르메니아 만은 공화국 영내에 자치 지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유한 곡창지대와 역사적 고지들(옛 왕국의 수도인 아니 Ani와 아르메니아인 정체성의 상징이라 할 아라라트 Ararat 산 등)은 국경 넘어 터키의 영내에 있었다.

이러한 자치 지역의 설정은 특정 민족의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한 역사적,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조지아 영내의 아차라(Achara) 자치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내의 나히체반의 경우는 소련 남부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들의 운명을 위구하는 터키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에 모스크바와 카르스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소비에트 러시아와 터키는 남카프카스에서의 국경 문제를 마무리짓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영토 정책이 비록 장차 분쟁의 화근은 될지언정, 소비에트 당국이 의도적으로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 그랬다는 일각의 견해는 사실이 아니다. 레닌은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을 경계하면서 불세비키가 존재하는 한 조지아가 러시아로부터 분리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중앙인 러시아와 그 국경인 카프카스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여겼다. 1920년에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 혁명의 심장인 중앙 러시아는 국경 지역의 도움 없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 지대에는 천연자원과 연료,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국경 지대 역시 보다 발전된 중앙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혹은 조직적 지원 없이는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또 소비에트 집권 초기에 이러한 국경 획정과 영토 정책에 대해 현지에서 큰 반발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조지아를 제외하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방 성립에 호의적이었다. 어디까지나 공화국 간 경계는 소연방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그어진 행정구역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며 언젠가 이 선이 국경선이 되리라고 예상한 이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1920년 말 토착화 정책으로 인해 남카프카스의 각 민족들은 언어와 문자의 개혁에 돌입했다. 아제리어, 압하즈어, 오세트어, 레즈긴어 문어가 새롭고 진보적인 로마 알파벳으로 정리됐다. 현지 주민들은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모어로 교육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조지아에서 소비에트 통치 최초 10년 동안 50만 명의 주민이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1940년에 아르메니아는 자국의 모든 성인 주민이 완전히 식자 능력을 갖추었다고 선포했다.

### Ⅲ. 소비에트 남카프카스의 정치와 사회

#### 3-1. 스탈린의 테러와 공포 정치

6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인구 중 94%는 아르메니아인들이었다.

레닌은 카프카스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러시아에서보다 훨씬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지의 조건, 특히 농민이 많고 서방 시장에 내다팔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계승자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스탈린은 조지아를 점령한 후 볼셰비키들에게 사정없이 혁명의 적들을 처단하라고 압박질렀다.

소비에트 근대화는 특히 무슬림계 공화국이었던 아제르바이잔에서 더욱 극적으로 전개됐다. 모스크는 폐쇄되었으며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벗어던지도록 명령받았다. 타타르인 공산주의자였던 술탄 갈리에프(Sultan Galiev)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숙련된 프롤레타리아트와 이미 통일을 달성한 공산당을 갖고 있는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그리고 터키를 향한 붉은 햇불이 될 것이다.”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보호 아래 아르메니아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낙원으로 비쳤다. 1932년에 예레반을 방문했던 아서 코슬러(Arthur Koesler)는 예레반이 보면 볼 수록 혼란과 건설 열기로 가득찬 텔아비브를 연상시킨다면서 무엇보다 이곳이 다양한 언어들의 바벨탑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터키와 아르메니아, 유럽과 미국에서 온 난민과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말에는 토착화(korenizatsiia) 정책으로 인해 민족 공화국의 소비에트 국가 기구와 공산당을 현지인들로 충당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흔히 생각하듯 러시아인들의 지배 하에 신음하는 소수민족의 이미지는 사실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련은 ‘인정행위의 제국’(Empire of affirmative action)이었다는 테리 마틴(Terry Martin)의 단호한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1920년대와 30년대 동안 카프카스에서 벌어진 수많은 성과와 비극은 그 지역 출신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전통적인 사회 조직과 구습, 예를 들어 카프카스의 산악 지대에서 널리 행해지던 신부 납치나 어린이 혼인, 피의 복수 등은 ‘관습 범죄’(bytovye prestupleniia)로 비난받아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주도한 이들은 현지의 토착 공산주의 엘리트들이었다. 잠깐의 독립 시기에 토지 개혁의 수혜를 입었던 농민들은 국영 농장이나 집단 농장에 강제로 편입되어야 했다. 농업의 기계화는 농촌의 모습을 바꿔놓았으며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 개혁으로 곡물을 국가에 수탈당한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기도 했다. 산업화와 기계화, 새로운 건물의 등장은 근대화와 소비에트 문화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카프카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연방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집권 초기, 특히 1930년대 후반의 이른바 대숙청 시기에 많은 이들이 인민의 적, 서방의 스파이, 반란의 수괴라는 죄목으로 체포, 추방되거나 처형당했다. 스탈린의 잔인한 테러를 카프카스에서 실행한 이는 악명높은 라브렌티 베리아(Lavrenti Beria)였다. 스탈린처럼 조지아인이었던 그는 조지아 안에서에서도 벽지인 압하지아 출신의 민그렐리인이었다. 1931~38년 조지아 공산당 제1서기를 역임하고 이후 NKVD(전연방내무인민위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원래 비밀경찰(Cheka)에서 경력을 쌓았다. 사실 레닌과 함께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 혁명 1세대 안에서 스탈린은 그리 촉망받는 인물은 아니었으며, 베리아는 이들 1세대와는 무관하지만 스탈린을 통해 출세 가도를 달린 인물이었다. 베리아는 스탈린의 심복이었지만 또 스탈린의 출세를 도와준 것은 베리아 자신이었다. 1935년 7월 트빌리시(티플리스의 바뀐 이름)에서 열린 당 활동가 모임에서 베리아는 <트란스카프카스에서 볼셰비키 조직의 역사 문제와 관련해> 제하의 연설을 통해 공산당의 역사를 날조하고 스탈린을 볼셰비키의 영웅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바투미에서 노동자 시위를 조직한 것도 스탈린이며 티플리스의 볼셰비키 조직을 이끈 것도, 또 남카프카스 전역의 볼셰비키 운동을 주도한 것도 스탈린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어찌됐건 베리아는 스탈린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대숙청을 실행에 옮겼다. 카프카스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다슈나크와 무사바트 당원들 그리고 멘셰비키를 일소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과 베리아의 동료였다가 정적으로 몰린 이들이 대부분 사라져갔다. 일례로 압하지아의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였던 네스토르 라코바(Nestor Lakoba)는 1936년 베리아의 명령에 따라 독살당했으며 그의 측근과 친인척도 모조리 투옥 또는 처형됐다. 또 아르메니아의 공산당 간부들의 상당수도 다슈나크와의 관계를 이유로 면직 또는 체포됐다. 베리아가 아제르바이잔의 비밀경찰 조직에서 일할 때 동료로 있던 이들까지 대부분 숙청당하고 만다. 이후 남 카프카스 3개 공화국의 당과 국가 관료 및 간부에서부터 시 및 지역 당위원회 간부 그리고 신문 주필과 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엘리트가 스탈린과 베리아의 충복들로 교체된다. 조지아의 새로운 당 지도자인 칸디드 차르크비아니(Kandid Charkviani), 아르메니아의 당 지도자인 그리고르 아르투노프(Grigor Artunov), 아제르바이잔 당 지도자인 미르 자파르 바기로프(Mir Jafar Baghirov)가 그들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으로 베리아의 심복들도 운명이 180도 역전된다. 차르크비아니는 이미 1952년에 제1 서기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아르투노프는 1953년 스탈린 사망 직후 축출됐으며 바기로프 역시 반역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베리아 자신은 1953년 6월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ov)가 획책한 음모로 인해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또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인해 스탈린과 베리아 그리고 그들에 충성하던 동료들의 악행이 낱알이 고발되고 비난당하는 한편, 그들의 폭압으로 인해 살해와 수치, 강제이주를 당해야 했던 많은 이들이 명예회복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정작 조지아에서는 스탈린과 베리아를 추모하고 이들의 격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지아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두사람의 피해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조지아의 영웅이었던 것이다.

### 3-2. 스탈린 사후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소련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소연방 자체가 스탈린 개인과 그가 뿌린 피 위에서 건설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국가 건설을 위해 친구와 친척, 혁명 동지들 그리고 민족 전체와 사회 계급 전체를 희생시켰다. 역사학자인 알프레드 리버(Alfred Rieber)는 소련이 서로 맞물리는 세 개의 틀 위에서 철저히 스탈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세 개의 틀이란, 지배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영토 단위로서의 민족문화 지역(the ethno-cultural region) 그리고 국가의 정치적 중심으로서 위대한 러시아가 그것이었다. 소련이 형성되자 스탈린은 이들 세 개 요소가 갈등과 모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으며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요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완성시키려 시도했다. 그리고 그 시도는 폭력과 공포라는 수단을 통해 강제되었다.

하지만 스탈린과 그의 공포를 실행했던 베리아가 사라지자 소련은 더 이상 공포감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되었다. 이후의 소연방 40년은 사실상 이렇다할 이상이 없는, 타성과 신화가 지배하는 국가로 남아 있게 된다. 공산당은 무기력해졌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스탈린 이후의 소비에트 국가를 완전한 전체주의 체제로 볼 수는 없다. 크렘린 지도부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단계에서 많은 불복종에 직면해야 했다. 소련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거에 소련의 상명하달(top-down) 방식의 정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정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소련 시기에도 거리에서 심각한 항의 집회가 종종 열렸고 반란도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주무대는 압도적으로 카프카스였다. 1956년 트빌리시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서도 언급했다. 1963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숨가이트(Sumgait)에서 유혈 폭동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예레반에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집회 자들로 인해 시 전체가 폐쇄됐던 사실도 알려졌다. 민족 감정과 스포츠가 결합되어 폭동으로 비화한 적도 있었다. 바쿠의 네프트치(Naftchi) 팀과 예레반의 아라라트(Ararat) 팀의 경기 당시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당국의 진압은 무자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56년, 군이 트빌리시 거리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수십명의 시민을 사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비에트 국가가 1980년대에 왜 그렇게 취약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정치적 항의를 진압해야 할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시민들의 항의를 허용하기로 했을 때 거리의 정치는 걸잡을 수 없이 분출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이후의 카프카스는 구 세대들로부터 일종의 황금 시기처럼 회상되곤 한다. 비록 국민들이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에 애를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일상과 생활 수준은 눈에 띄게 발전했던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은 남카프카스 공화국들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즐비한 상점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곳은 소련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좋은 풍광과 쾌적한 기후, 신선한 과일들로 가득차 있었고 특히 조지아는 소비에트 엘리트들에게 으뜸으로 손꼽히는 휴양지였다. 1947년 조지아를 방문했던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은 당시의 트빌리시가 전쟁의 참화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에 비해 훨씬 운택하고 활력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3-3. 소비에트 르네상스와 민족의 자각

스탈린 사후 남카프카스 3개 공화국은 각자 민족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트빌리시와 예레반에서는 스탈린의 동상을 대신해 어머니 조지아와 어머니 아르메니아의 기념비가 도처에 세워졌다. 1966년 아르메니아인들은 예레반 시가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추모비를 세우도록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각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흐루시초프 시대의 문화적 해빙 분위기로 인해 혜택을 누렸다. 아제르바이잔의 시인 사비르 루스탐한리(Sabir Rustamkhanli)는 “그 시기, 1960년대와 70, 80년대는 소련의 작은 르네상스 시대였다. 서로 다른 공화국들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민족적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는 늘상 스탈린주의 같은 이념과 관련된 문학을 공부하도록 강요받았지만 이후 세대는 완전히 이를 거부했다. 우리의 시, 우리의 작품 속에는 소비에트 이념이나 러시아와의 형제애에 관한 단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다.”

이러한 '문예부흥'은 사치스럽고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문화 창작물이 다량 생산되는 시대로 기억된다. 1961년부터 91년 사이에 조지아에서는 12,000개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그 가운데 100개 이상의 작품이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트빌리시에서 활동하던 아르메니아인 감독 세르게이 파라자노프(Sergei Parajanov)는 이념화된 영화가 아닌, 몽환적이고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하며 중세 카프카스의 역사를 테마로 한 작품들을 다수 만들었다. 바쿠는 코스모폴리탄적 미술과 극장 예술, 재즈의 중심지였다. 아르메니아인 작곡가 아람 하차투리안(Aram Khachaturian)의 발레 작품 <<스파르타쿠스>>(Spartacus)는 소련방 전역에서 대히트를

기록했다. 또 1963년 예레반 시민 전체가 아르메니아 출신의 체스 선수 티그란 페트로시안(Tigran Petrosian)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하지만 소비에트 르네상스는 어두운 뒷면도 갖고 있었다. 볼셰비키들이 1920년대에 맞서 싸웠던 소비니즘적 징후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이다. 명목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를 먼 과거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기술하면서 주변 소수민족들의 역사는 무시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3국에서 각각 자신들의 민족 문화로 기념되는 것들 속에서 소수민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일례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는 스탈린과 베리야의 사망으로 인해 조지아 동화정책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혜택을 입었지만, 1920년대에 약속받았던 그들의 자치가 허용되는 일은 없었다. 수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아르메니아를 떠났으며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트빌리시를 등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때문에 1989년 소련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Andrei Sakharov)는 남카프카스 공화국들이 '작은 제국'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제국적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연방공화국으로 불리는 작은 제국들에서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지아의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아브하지야와 오세티아 그리고 다른 민족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 3-4. 작은 제국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부터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직전까지의 33년 동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4명의 당서기장이 권력을 이어나갔지만 조지아는 단 두 명 뿐이었다. 바실리 므자바나제(Vasily Mzhavanadze)와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가 그들이었다. 소연방이 마지막을 향해 내달리던 격동의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권력을 장악하던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지아의 셰바르드나제는 1972~85년간 조지아의 당 서기장을 역임했고 이후 고르바초프의 발탁으로 연방 외무장관을 맡게 된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KGB 출신의 헤이다르 알리에프(Heidar Aliyev)가 1969~82년 동안 공화국 당 서기장을 역임하고 이후 소비에트 연방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되어 중앙으로 진출한다. 그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정치국에서 밀려나는 1987년까지 5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1974~88년의 기간 동안 카렌 데미르치안(Karen Demirchian)이 당 서기로 군림한다.

이들 3인은 모스크바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특히 알리에프와 데미르치안은 사이가 매우 나빴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알리에프가 아르메니아를 관통해 아제르바이잔령 나히체반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계획하자 데미르치안은 이를 막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 반체제 인사인 이고르 무라디안(Igor Muradian)을 은밀히 지원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언론에 대해 무라디안은 웃음을 띠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거 보시오. 소련은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다른 공화국들이 존재했을 뿐이지요. 공화국들은 서로 싸우기 바빴으니까. 인류애적 이상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모순적이게도 공화국 지도자들이 연방 중앙에 충성 공세를 더 할수록 카프카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해 갔다. 알리에프는 브레주네프에게 아첨하면서 그가 바쿠를 방문했을 때 선물 공세를 퍼부었다. 셰바르드나제는 “조지아의 해는 북쪽에서 떠오른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러시아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런 한편으로 1978년 소비에트 조지아 헌법에 조지아어의 공식적 지위를 명시하도록 연방 지도부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조지아와 러시아 사이

에 체결된 게오르기예프스크 조약 20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세바르드나제는 조지아군사도로 연선에 19세기 러시아 시인들의 동상을 건립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카프카스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은 점차 쇠퇴하고 있었다. 소비에트 통치가 시작되고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 공화국 내의 이중언어 구사자는 기대를 훨씬 밑돌았다. 1970년 조사에 따르면 트빌리시에서는 인구의 56%가, 그리고 예레반에서는 63%만이 러시아어와 자민족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답했다. 카프카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주민들의 존재감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1970년 이후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1989년 통계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는 1.5%, 아제르바이잔에 5.6%, 조지아에 7.4%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포스트소비에트 남카프카스에서 러시아인의 권익 문제는, 카자흐스탄이나 발트해 국가들에서처럼 중심 이슈가 되지 못했다.

소비에트 시기 카프카스인들이 갖고 있던 자긍심의 뿌리에는 그들의 경제적 부가 놓여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의 계획 경제는 심각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다. 3개 남카프카스 공화국은 소연방 전역을 연결시키는 경제망 속에 갖혀 있었으며 1988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총 무역액 가운데 93~98%는 연방 내 타 공화국들과의 무역이었다. 그것도 주로 러시아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남카프카스 총 무역액의 10분의 1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1989년 이후 국경과 철도가 봉쇄되자 3국의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도시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부유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자동차 소유율은 대단히 높았다. 사유 재산 소유 비율은 연방 전체에서도 가장 높았으며 1989년 조지아의 도시 주택의 절반 이상이 이미 개인 소유였다.

소비에트 말기로 가면 당국이 이 지역의 부를 감시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였는데 이는 이 지역 특유의 비공식 지하 경제 때문이었다. 지하 시장에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이 거래됐으며 지방 특산품인 과일과 채소, 와인, 캐비어 등이 지하 경제망을 누볐다. 또 이들 거래는 카프카스 전통의 씨족 네트워크의 비호 하에 활성화됐고 가족과 친족을 돕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인지라 이들 네트워크의 이익이 국가보다 우선시됐다. 소비에트 지하 경제에는 범죄집단이 깊이 관여해 있었고 특히 조지아는 마피아의 천국과도 같았다. 독립 이후 민족주의자 군벌로 이름을 날렸던 자바 이오셀리아니(Jaba Ioseliani)는 소비에트 마피아의 거두 중 한 명이었다. 카프카스의 그림자 경제는 합법적인 경제와 맞먹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고 대규모 공장들이 생산 및 판매에서 불법과 합법을 겸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또 그 과정에서 뇌물은 필수였다.

조직적인 부패는 정치 시스템과 결합하여 근절이 불가능했고, 공산당의 당직까지 거래되는 지경이었다. 지구 당서기 직은 5만~10만 루블에 거래됐다. 현지 인적 네트워크와 결합한 이러한 매관매직은 독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이 모두 소비에트 국가를 내부로부터 도려냈다. 점차로 독립성을 획득해 간 정치 엘리트들은 그들을 살지우는 경제 안에서 마음껏 권력과 부를 향유했으며, 소비에트 사회에 만연된 타성과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 러시아 주도의 안보 기구 덕분에 이러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3국이 주변부이기를 그치고 스스로 중앙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던 요소들이 그들의 독립을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은 역사의 모순이었다.

#### IV. 결론을 대신하여

남카프카스에서 70년 동안 계속된 소비에트의 실험을 러시아제국의 연속선 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물론 소연방 안에서 권력은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었고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이 '큰 형님'으로 역할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련을 단순히 러시아인들이 주변 민족을 지배하는 악의 제국으로 단순화시키기에 소련이라는 체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다. 소비에트 국가는 카프카스를 근대화시켰고 그곳의 영토를 일일이 획정했으며 러시아화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카프카스에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련은 또 자신의 70년 생존 기간 동안 몇 개의 급진적인 변화 국면을 경험했다. 볼셰비키가 국제 계급 해방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지상 낙원은 1930년대에 스탈린의 권위주의 국가로 바뀌었다가, 이내 부패하고 정체된 브레주네프의 다민족 국가로 변형되었다. 소련이 추진했던 근대화는 과거의 전통을 파괴하는 동시에 여성을 해방하고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다. 민족에 대한 정책은 애초에 비러시아계 민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자유로운 '인정행위의 제국'(affirmative action empire) 정책에서 대학살로 바뀌었다. 어떤 소수민족은 토착화 정책에 의해 큰 혜택을 누렸지만 어떤 민족은 강제 이주와 대규모 테러에 희생되어야 했다.

볼셰비키와 소비에트의 지배가 지속시켜 왔던 한가지 불변한 특징이라면 그 시기 동안 남카프카스의 국경은 봉쇄되었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차단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비에트 카프카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소련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아락시스(Araxes) 강 건너 이란 땅에 사는 이들로 갈라졌고 20년대까지 매우 유사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갖고 있던 이들의 정체성 또한 변화했다. 1991년 소련이 종식되었을 때, 이란령 아제르바이잔에 살던 이들은 여전히 자기네의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집단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련군에 입대해 근무했으며 보드카를 마셨지만 모스크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것이다. 식자율은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인 쪽이 월등히 높았고 여성들의 지위 역시 그랬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및 문화적 자유를 구가했던 것은 아니었다.

### 세션 III, 「제국의 경제: 체제와 운영」

■ 사회 : 엄구호(한양대)

■ 발표 :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불균등발전과 해체 | 김영진(한양대)

소비에트 분배 및 생산 메커니즘과 지역간 격차 | 김상원(국민대)

■ 토론 : 이상준(국민대), 성원용(인천대)

#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불균등 발전과 해체

김 영 진(한양대)

## 1. 서론

1991년 소련의 정치적 해체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해체를 향한 추세는 1991년 8월 훨씬 이전에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198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련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간 적대와 민족 분규는 오랜 역사적 연원과 아주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긴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요인을 모두 검토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소연방 공화국들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이라는 민족간 긴장의 주요 원천 중 하나를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구소련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체제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적 차원이란 일당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정치·경제체제의 이행이라는 측면을 가리킨다. 공간적인 차원이란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방구조가 정치·경제적으로 붕괴함에 따른 정치·경제공간의 해체를 가리킨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해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제공간의 해체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귀결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구소련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붕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구소련 각 공화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분석은 구소련 구성공화국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던 1970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적인 분석대상으로 한다. 소련의 경제 지표는 각 구성공화국들 간에 경제발전의 균등화를 꾀하는 목표는 1985년 이전에 포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소비에트 공화국간 자본 재분배이다. 이 논문에서는 1966-1991년 기간에 걸친 소비에트의 공화국간 자본이전을 평가한다. 소련에서 이루어진 자본이전의 규모는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거나 국제적 맥락에서 살펴보더라도 대단히 큰 수준이었다.

먼저 이들 국가의 경제실적에 대한 비교분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 국가의 경제는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으로, 1990년대 초의 소연방 해체를 경계로 하여 전혀 상이한 체제적·제도적 환경에서 경제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구소련 시기의 경제발전의 분석에 이용 가능한 거시경제통계의 특수성은 시장경제조건과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부 특징의 비교는 가능할 수 있다. 물질생산체제(MPS)에서 생산의 개념

은 비물적 서비스를 제외시키지만, 버그슨(A. Bergson, 1997)이 보여주듯이, 물질생산체계(MPS)에 기초하거나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하거나 경제성장률의 비교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순물적생산(NMP)과 GDP의 상대적 비율은 어떤 시기에도 다음에 의존한다. 1) 물질재화와 비물적서비스의 상대적인 성장률, 2) 물질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투입물로서 사용된 비물적 서비스 비중의 변화가 그것이다. 1)과 2)가 일정 시기동안 변화하지 않는다면, NMP와 GDP의 비율은 서로 대단히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시점에서 보면 소련방의 최종적인 붕괴는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하락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비에트 경제성장 하락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다음을 강조한다. 1) 노동력의 느린 증가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과 결합하여,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고갈시킨 소비에트의 외연적 성장에 대한 의존. 2) 동아시아를 비롯한 서방에서 도입된 고급기술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과 연관된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혹은 기술진보의 둔화. 3) 국방비 부담. 4) 부패와 사기저하를 비롯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부재와 관련된 소비에트 체제의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의 특징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1971-1990년 동안 구소련 구성공화국의 경제발전과 구성공화국 간 불균등 발전 혹은 경제발전의 격차를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구소련 구성공화국 간 자본이전의 규모와 유형, 투자우선순위의 변동, 그리고 소비에트 경제공간 해체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자본이전의 유형과 관련하여 볼 때, 부유한 공화국에서 빈곤한 공화국으로의 이와 같은 자본이전이 1978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이 유형은 잘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정리하고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 2. 소비에트형 성장모델과 소련의 경제성장

구소련의 경제성장 실적은 계획경제의 유산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으므로, 소비에트형 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비에트 성장모델이란 이름으로 불린 이 경제성장의 특징은 소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경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되었다.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은 외연적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외연적 성장이란 투입물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닌 투입물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 성장을 말한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중앙계획 시스템을 통해 외연적 성장의 과업에 동원된다.

만약 소비에트 경제와 여타 계획경제를 급속히 산업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단 무시한다면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은 효과적이었다. 적어도 자동차, 시멘트, 석유 및 강철의 총생산으로 측정할 경우, 농업경제가 지배적이었던 소비에트는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업강국이 되었다.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은 중부유럽에서 이미 산업화에 착수한 경제(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독일민주공화국(GDR))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국가(예를 들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다양한 정도로 강요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의 실적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하락이 진행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산출을 측정하는 방법에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하락은 동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이는 산출성장에 관한 공식 데이터를 이용한 <표 1>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절대적인 성장률을 분명히

과장하고 있지만 실적의 저하 추세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

1인당 산출성장률은 1950-59년의 5.8%에서 1970년대에는 2.1%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1.4%로 하락했다(Easterly, W. and S. Fischer, 1995: 341-371).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현저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생산성 증가율은 1960년대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한 상태를 유지했다.<sup>1)</sup>

〈표 1〉 주요 계획경제에 있어서 순물적생산(NMP)의 성장률 (단위: %)

	소련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1951-55년	11.3	12.2	8.1	13.2	5.7	8.6	14.2
1956-60년	9.2	9.6	7.0	7.4	6.0	6.6	6.6
1961-65년	5.7	6.6	1.9	3.5	4.5	6.2	9.1
1966-70년	7.1	8.7	6.9	5.0	6.7	5.9	7.7
1971-75년	5.1	7.9	5.7	5.4	6.3	9.7	11.3
1976-80년	3.7	6.1	3.7	4.1	2.8	1.2	7.2
1981-85년	3.2	3.7	1.8	4.5	1.4	-0.8	4.4
1986-90년	1.3	-0.5	1.0	-1.8	-0.5	-0.5	-3.5

자료: Marie Lavigne(1995),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5.

외연적 성장 함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자원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외연적 성장은 높은 투입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전통적인 부문, 즉 농촌으로부터 근대부문으로 노동을 이동시킴으로써 높은 투입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 노동력의 높은 증가는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인구를 이동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저수지가 고갈되면 노동력 참가는 상한에 이르게 된다. 그 후 노동력 증가는 출산율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여전히 자본을 빠른 속도로 축적할 수 있지만, 이제 자본-노동비율은 증가할 것이며, 이것이 자본의 한계생산을 하락시킬 경우 산출의 증가는 둔화된다.<sup>2)</sup> 이것이 외연적 성장의 함정이다.<sup>3)</sup>

1) 이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존재한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로이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면 총요소생산성 추정치는 본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와이즈만(Weitzman)을 따라 그러한 대체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부(負)의 값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에트 성장의 둔화는 노동에 비해 자본 투입의 더욱 급속한 증가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따라 투입을 대체할 수 없게 되어 산출증가의 하락을 가져왔다. 많은 논쟁은 어느 해석이 옳느냐에 집중되었지만, 양 해석은 여기서 논의하는 소비에트 성장모델의 결함과 부합한다. 다음을 참조. G. Ofer, 1987; G. Ofer and A. Vinokur, 1992.

2) 기술진보의 발전을 무시한다면(여기서는 외연적 성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산출의 증가는  $dy/y = F_k \cdot k/y \cdot dk/k$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y$ 는 1인당 산출,  $k$ 는 노동자 1인당 자본, 그리고  $F_k$ 는 자본의 한계생산이다. 외연적 성장은 자본-산출 비율이  $k$ 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의 성장에 대한 효과는  $F_k$ 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존한다. 중요한 문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소득증가분에서의 자본의 비중보다 더욱 빨리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이 낮다면, 자본이 노동으로 대체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은 급속히 하락할 것이다.

3) 외연적 성장의 지속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I/K = I/Y \cdot Y/K$ 로 나타낼 수 있는 데, 여기서  $I$ 는 투자,  $Y$ 는 산출,  $K$ 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외연적 성장은 자본이 소득보다 더욱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Y/K$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공식 데이터는 1958년과 1987년 사이에 자본-산출 비율이 거의 3배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소비에트 국민소득을 재계산한 CIA의 분석은 자본-산출 비율이 1928년과 1987년 사이에 4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퍼(Gur Ofer, 1987)와 이스털리와 피셔(W. Easterly and S. Fischer, 1995)를 참조. 따라서 자본스톡의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산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이것이 외연적 성장 함정의 핵심이다. 외연적 성장은 자본-산출 비율의 증가를 초래하며, 따라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은 훨씬 더 외연적으로 되어야 한다(훨씬 더 많은 투입의 증가가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만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투자재의 (명

외연적인 성장 함정은 부분적으로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의 주요 성공, 즉 동원의 성공으로부터 초래되었다.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은 자원을 동원하는 데 최적의 모델이다. 그래서 산업화의 비결은 중공업의 성장에서 찾게 된다. 이제 이 모델은 강제 수준이 높을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이와 같이 강요된 산업화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곤란해진다. 소비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강요된 산업화를 통해 성장이 달성할 수 없으면, 성장은 주로 기술변화를 통한 내포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이 소비에트경제는 내포적 성장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은 외연적 성장 함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중요한 의문은 왜 소비에트형 성장모델은 외연적 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곤란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한 가지 설명은 소비에트형 경제에는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자동조절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다.<sup>4)</sup> 시장경제에서는 투자가 불충분한 수익률 얻게 될 경우 자본은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소비에트형 경제에서는 수익률이 대단히 낮은 활동에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는 자본시장의 부재라는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킨다. 사회주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본의 사적소유의 철폐였다.

중요한 논점은 소비에트형 경제가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활동에서의 정보의 문제와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인해 투자의 질이 조악했다는 사실이다. 대중은 미래를 위해 소비를 연기하도록 (자발적이지 않은 저축을) 강요받았지만, 투자는 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어떠한 긍정적인 수익도 낳지 못했다.

또한 외연적 성장은 기업들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가격은 낮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다른 1차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가격이 자유화될 경우 많은 산업은 부의 부가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 즉 산출물의 가치가 생산에 사용된 투입물의 가치보다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는 근본적으로 가격설정의 문제이다. 자본은 왜곡된 가격구조 하에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단히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분야에 투자되었다.

### 3. 소련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불균등

#### (1) 소련의 경제성장: 1970-1990년의 전반적 추세

소련의 마지막 20년 동안 대체로 각 구성공화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

목상의) 상대가격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량의 기계의 축적은 상대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I/Y$ 의 증가 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변화가 흡수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외연적 성장은 소득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을 투자에 충당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1959년에 약 14%에 머물렀던  $I/Y$  비율은 1980년에 이르러 33%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1인당 소득 증가율은 하락했다. 오퍼(Gur Ofer, 1987)를 참조.

4) 아마도 이것이 소련방과 신흥공업국(NICs)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영(Alwin Young, 1995)이 주장하듯이, 동아시아의 성장 또한 현저한 총요소생산성(TFP) 실적이 아니라 대체로 요소축적에 의존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연적 성장의 함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신흥공업국(NICs)에서는 시장이 투자로 하여금 자본의 한계생산이 낮은 사용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소비에트형 성장모델과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비교에 대해서는, 크루그만(Paul Krugman, 1994)을 참조.

5) 하이에크(F. Hayek, 1935)는 1935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트랙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물적비용+노동비용+이자)보다 트랙터가 대체하는 노동이 더욱 싸다면, 가장 나은 트랙터 공장은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닐 수 있으며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은 순전한 손실에 불과하다.”

서 발전했다. 예를 들면, 1971-1991년에 나중에 CIS 회원국이 된 12개 구성공화국의 순물적생산(NMP)은 2배로 증가했다. 개별 국가에 대해 보면, 순물적생산의 양적 지수는 카자흐스탄의 1.7배에서 벨라루스의 2.8배에 이르는 증가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 유럽연합(EU) 국가들의 GDP는 1.6배에서 1.8배로 증가했을 뿐이다(〈표 2〉을 참조). 그러나 이 시기를 통틀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든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12개 공화국에 대한 순물적생산(NMP)의 연평균 양적지수는 1971-1975년에 5.7%에서 1986-1990년에 1.4%로 감소하였다. 주요 공화국별로 살펴보면, 1971-1975년 시기 동 지수는 카자흐스탄의 4%에서 벨라루스의 8.3%에 걸쳐 있었으며, 1986-1990년에는 대부분의 공화국에서 1~3%에 걸쳐 있었다. 카프카스 지역 공화국들에서는 순물적생산(NMP)의 규모가 연평균 1~2%씩 감소되었다.

〈표 2〉 구소련 12개 공화국의 NMP 성장률과 유럽 주요국의 GDP 성장률 비교 (단위: %)

	1971-199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128.1	4.2	38.9	6.8	47.2	8.0	24.2	4.4	-10.2	-2.1
아르메니아	161.9	4.9	45.7	7.8	43.8	7.5	30.5	5.5	-4.2	-0.9
벨라루스	184.0	5.4	49.0	8.3	28.3	5.1	29.7	5.4	14.5	2.8
그루지야	112.0	3.8	30.6	5.5	43.6	7.5	26.2	4.8	-10.4	-2.2
카자흐스탄	72.3	2.8	21.9	4.0	24.1	4.4	04.4	0.9	9.2	1.8
키르기스스탄	134.0	4.3	25.6	4.7	22.8	4.2	20.0	3.7	26.5	4.8
몰도바	118.2	4.0	26.6	4.8	26.1	4.8	14.6	2.8	19.3	3.6
러시아	102.1	3.6	32.9	5.9	23.7	4.4	16.1	3.1	5.8	1.1
타지키스탄	109.7	3.8	33.5	5.9	26.6	4.8	13.7	2.6	9.1	1.8
투르크메니스탄	79.3	3.0	31.3	5.6	07.7	1.5	11.3	2.2	13.9	2.6
우즈베키스탄	151.1	4.7	39.1	6.8	31.6	5.6	15.9	3.0	18.4	3.4
우크라이나	89.7	3.3	25.2	4.6	18.0	3.4	18.2	3.4	8.7	1.7
12개국전체	103.9	3.6	31.7	5.7	23.8	4.4	16.9	3.2	7.0	1.4
소연방	104.0	3.6	31.7	5.7	23.6	4.3	17.0	3.2	7.1	1.4
프랑스	73.3	2.8	17.6	3.3	16.8	3.2	7.8	1.5	17.0	3.2
독일	63.5	2.5	11.4	2.2	17.5	3.3	5.9	1.2	18.0	3.4
이탈리아	77.3	2.9	14.5	2.7	24.3	4.5	8.2	1.6	15.1	2.9
영국	57.0	2.3	10.6	2.0	09.3	1.8	10.4	2.0	17.6	3.3

자료: Y. Ivanov and T. Khomenko (2009), p. 17.

소비에트 구성공화국들의 체계적인 경제성장의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중앙계획체제의 결함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소연방의 특정한 발전단계에서 이 체제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특정 영역에 필요한 자원의 축적과 배분을 허용했다. 특히, 1930년대의 공업화 시기와 1941-45년의 전시경제의 조직, 그리고 전후 회복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중앙계획체제는 궁극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피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장애로는 기업의 노동력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생산의 다각화와 자원의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데, 그리고 국내외의 다른 기업과 관계를 확립하는 데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폐쇄경제는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했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란 면에서 소연방이 경제적으로 더욱 앞선 국가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것도 폐쇄경제의 또 다른 귀결이었다. 또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도 자금과 자원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다른 데로 돌렸다.

1980년대 세계 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소연방 경제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제의 규모는 증가하고 그 구조는 더욱 복잡해 졌으며, 따라서 주어진 노동력과 물질자원 및 여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곤란해졌다. 그 결과, 경제의 왜곡은 무엇보다 중요한 많은 생산물의 부족이란 특징으로 나타났다. 중앙계획체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가계획위원회에 특수한 부문이 계획의 목적을 위한 투입산출표를 집계했다. 그러나 믿을 만한 투입산출표를 집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계획체제의 결함을 극복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중앙계획체제의 중요한 결점은 재화·서비스의 흐름과 금융자원의 이동 그리고 가격 변화 사이에 상호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된 많은 중요한 생산물의 가격은 기업과 가계의 수요나 사회적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격결정시스템은 정상적인 경제과정을 자극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가격시스템의 결함을 파악한 몇몇 선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수요와 공급 및 사회적 생산비를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개혁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기업간 거래와 가격형성시스템에서 일부 시장요소의 도입이 개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공산당의 보수적인 관료들은 그러한 개혁 제안을 반대했다. 더욱이 그 개혁은 제한된 숫자의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체제 전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인당 순물적생산의 증가율 지수(〈표 3〉)는 구소련 공화국들의 경제발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각 공화국들에서 전통적으로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인구증가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조차 인구증가율은 종종 순물적생산 성장률을 능가했다(1976-1980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그리고 1981-1985년에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그러했다.). 그 결과 1인당 순물적생산의 증가율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큰 격차를 보인 반면, 순물적생산 총액에 있어서 증가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EU 국가들에 있어서 이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았다.

〈표 3〉 구소련 12개 공화국의 1인당 NMP 증가율과 유럽 주요국의 1인당 GDP 증가율 비교 (단위: %)

	1971-199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15.3	2.5	26.2	4.8	35.9	6.3	14.7	2.8	-16.0	-3.4
아르메니아	97.8	3.5	29.9	5.4	32.6	5.8	24.2	4.4	-7.6	-1.6
벨라루스	150.2	4.7	43.8	7.5	24.4	4.5	25.3	4.6	11.6	2.2
그루지야	82.8	3.1	25.2	4.6	38.9	6.8	21.1	3.9	-13.2	-2.8
카자흐스탄	34.9	1.5	13.0	2.5	17.6	3.3	-1.6	-0.3	3.2	0.6
키르기스스탄	57.7	2.3	12.8	2.4	11.6	2.2	8.4	1.6	15.5	2.9
몰도바	79.7	3.0	18.5	3.5	20.8	3.8	9.0	1.7	15.2	2.9
러시아	77.6	2.9	29.1	5.2	19.8	3.7	12.3	2.4	2.3	0.4
타지키스탄	16.2	0.8	14.0	2.7	10.2	2.0	-1.6	-0.3	-6.0	-1.2
투르크메니스탄	7.0	0.3	14.0	2.7	-5.2	-1.1	-1.4	-0.3	0.3	0.1
우즈베키스탄	46.5	1.9	19.1	3.6	15.3	2.9	1.7	0.3	4.9	1.0
우크라이나	73.0	2.8	20.8	3.9	15.6	2.9	16.1	3.0	6.7	1.3
12개국전체	70.9	2.7	25.6	4.7	18.7	3.5	11.9	2.3	2.4	0.5
소연방	71.1	2.7	25.6	4.7	18.5	3.5	12.0	2.3	2.6	0.5
프랑스	55.2	2.2	13.3	2.5	14.2	2.7	5.1	1.0	14.1	2.7
독일	60.1	2.4	10.0	1.9	18.1	3.4	6.8	1.3	15.4	2.9
이탈리아	65.5	2.6	11.1	2.1	22.1	4.1	6.9	1.3	14.1	2.7
영국	52.5	2.1	9.4	1.8	9.1	1.8	9.7	1.9	16.5	3.1

자료: Y. Ivanov and T. Khomenko (2009), p. 18.

CIS 국가에서 노동자 1인당 GDP 지수는 벨라루스의 159%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2.4%에 걸쳐 있었다. 이 시기 내에 대다수 공화국들의 노동자 1인당 GDP 지수는 하락 일변도의 비슷한 추세를 따랐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지역은 연평균 지수가 1971-1975년의 4-6%에서 1986-1990년에 -3~-2%로 변화한 카프카스였다. 동시에 키르기스스탄과 몰도바에서 1986-1990년의 연평균 지수는 다른 시기보다 더욱 높았으며, 비교대상 시기의 여타 공화국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이한 추세는 노동자의 숫자와 연령, 고정자산의 상태와 효과적인 이용 여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EU 국가들의 경우 노동자 1인당 NMP는 1971-1990년 시기에 62.5-68.0% 만큼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내의 연평균 증가율을 1.4%에서 3.6% 사이에서 변화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표 4〉를 참조).

〈표 4〉 구소련 12개 공화국의 노동당 1인당 NMP 증가율과 유럽 주요국의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 비교 (단위: %)

	1971-199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51.0	2.1	23.3	4.3	30.4	5.5	9.2	1.8	-14.0	-3.0
아르메니아	74.4	2.8	31.9	5.7	22.5	4.1	17.6	3.3	-8.3	-1.7
벨로루시	159.4	4.9	42.6	7.4	22.6	4.2	27.6	5.0	16.3	3.1
그루지야	79.2	3.0	27.3	4.9	35.5	6.3	18.8	3.5	-12.6	-2.6
카자흐스탄	26.1	1.2	9.7	1.9	12.7	2.4	-2.5	-0.5	4.6	0.9
키르기스스탄	54.4	2.2	11.2	2.2	10.4	2.0	6.2	1.2	18.4	3.4
몰도바	11.7	3.8	21.2	3.9	23.5	4.3	14.4	2.7	23.6	4.3
러시아	85.6	3.1	26.4	4.8	17.9	3.3	14.9	2.8	08.5	1.6
타지키스탄	18.1	0.8	14.5	2.7	10.7	2.0	-2.4	-0.5	-4.6	-0.9
투르크메니스탄	-2.4	-0.1	11.8	2.3	-8.0	-1.7	-5.3	-1.1	0.3	0.1
우즈베키스탄	37.2	1.6	20.4	3.8	14.2	2.7	1.7	0.3	-1.9	-0.4
우크라이나	88.1	3.2	21.8	4.0	16.0	3.0	18.8	3.5	12.1	2.3
12개국 전체	78.9	3.0	24.6	4.5	17.5	3.3	14.0	2.7	7.2	1.4
소연방	79.4	3.0	24.7	4.5	17.3	3.2	14.1	2.7	7.4	1.4
프랑스	68.0	2.6	18.7	3.5	15.0	2.8	9.6	1.9	12.0	2.3
이탈리아	62.5	2.5	13.6	2.6	19.3	3.6	7.1	1.4	12.2	2.3

자료: Y. Ivanov and T. Khomenko (2009), p. 19.

(2)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불균등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했을 때, 그는 단일의 경제체제를 공유하면서도 면적과 인구 및 경제발전 수준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진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맡았다(〈표 5〉).

〈표 5〉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면적, 인구, 투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70년과 1988년 (단위: %)

	면적	인구		투자		대용 GNP	
		1970년	1988년	1970년	1988년	1970년	1988년
러시아공화국	76.2	53.7	51.4	59.4	63.3	58.6	59.3
우크라이나공화국	2.7	19.5	18.1	16.1	13.5	17.7	15.9
벨라루스공화국	0.9	3.7	3.6	3.3	3.5	3.4	3.6

몰도바공화국	0.2	1.5	1.5	1.2	1.1	1.3	1.3
<b>발트해 연안지역</b>							
에스토니아공화국	0.2	0.6	0.6	0.7	0.6	0.7	0.7
라트비아공화국	0.3	1.0	0.9	1.1	0.9	1.2	1.0
리투아니아공화국	0.3	1.3	1.3	1.4	1.5	1.5	1.5
<b>카프카스 지역</b>							
그루지야공화국	0.3	1.9	1.9	1.4	1.4	1.6	1.8
아르메니아공화국	0.1	1.0	1.2	1.0	0.7	0.9	0.9
아제르바이잔공화국	0.4	1.8	2.4	1.5	1.6	1.3	1.6
<b>중앙아시아 지역</b>							
카자흐공화국	12.1	5.4	5.8	6.6	6.0	5.3	5.3
우즈베크공화국	2.0	5.0	6.9	3.8	3.5	3.7	4.2
투르크멘공화국	2.2	0.9	1.2	1.0	0.9	0.8	0.9
키르기스공화국	0.9	1.2	1.5	0.9	0.7	0.9	1.0
타지크공화국	0.6	1.2	1.8	0.8	0.8	0.8	0.9

자료: CIA (1990), p. 18.

러시아는 가장 면적이 넓고 가장 강력한 공화국이었지만, 공화국들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한 공화국은 아니었다. 고도로 산업화된 유럽 지역은 오래되고 어떤 경우엔 낙후된 제조업 기간을 갖고 있었다. 극동과 북부지역은 소련방의 신규의 에너지 및 원료 매장량을 가진 주요 원천이었지만, 그곳의 생활조건은 아주 혹독했으며 높은 운송비용과 노동력 유입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은 지체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농업지역이자 중공업의 퇴락하는 중공업과 석탄생산 중심지였는데, 모스크바가 석탄으로부터 타 공화국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투자를 이동시킴에 따라 타격을 받았다. 철강, 중장비, 화학공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지배는 인구밀집 지역에 전력부족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러시아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공화국의 제조업 중심지는 현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벨라루스 경제는 노동생산성과 투자의 급속한 증가, 제조업 기반의 다각화 등으로 나머지 공화국에 비해 실적이 좋았으며 경제적 지위를 크게 개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공화국의 생활수준은 러시아공화국과 인접한 발트해 연안 공화국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

몰도바 경제의 개선은 더욱 느렸다. 동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의 농업지역과 유사하게 농업에 크게 의존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몰도바 산업의 대부분은 농산물 가공과 와인생산에 편중되었다. 몰도바의 포도원과 양조장은 고르바초프의 반음주 캠페인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동 공화국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발트해 연안지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소련방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번영된 지역이었지만, 고르바초프 시기 이전에 일부 주요 경제지표에서 러시아공화국에 선두를 빼앗겼는데,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에너지 자원에 점점 더 많은 중요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발트해 연안국의 생활조건은 과잉발전, 환경오염,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의 대량 유입에 관한 우려 속에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부분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주변부 공화국 중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지위를 유지했다.

카프카스지역의 공화국(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아와 북부의 유럽지역 사이에 위치했다. 카프카스 지역은 중앙아시아에 비해 인구증가는 더욱 느리고 산업은 더욱 발전했으나, 동 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실업문제가 전개되고 있었다. 1985년 이후 이들 공화국의 경제는 반음주 캠페인과 아르메니아의 지진, 그리고 민족분규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아시아(우즈베크공화국, 투르크멘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크공화국, 그리고 북쪽의 카자흐공화국)은 면화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갖고 있었다.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제3세계의 문제와 많은 특징—낮은 교육수준, 취약한 공공보건기준, 실업—을 공유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로 인해 이러한 특징은 지속되었다. 대규모의 슬라브 인구가 거주하는 곡물생산지였던 카자흐공화국 북부지역은 중앙아시아보다 러시아공화국과 더욱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표 6〉 소연방 공화국별 인구1) (단위: 백만 명)

	1970	1980	1985	1988
<b>소연방</b>	242.8	265.9	277.5	285.5
러시아공화국	130.4	138.8	143.6	146.8
우크라이나공화국	47.3	50.4	51.0	51.6
벨라루스공화국	9.0	9.6	10.0	10.2
몰도바공화국	3.6	4.0	4.1	4.3
<b>발트해 연안지역</b>				
에스토니아공화국	1.4	1.5	1.5	1.6
라트비아공화국	2.4	2.5	2.6	2.7
리투아니아공화국	3.1	3.4	3.6	3.7
<b>카프카스 지역</b>				
그루지야공화국	4.7	5.1	5.2	5.4
아르메니아공화국	2.5	3.1	3.3	3.3
아제르바이잔공화국	4.5	6.2	6.7	7.0
<b>중앙아시아 지역</b>				
카자흐공화국	13.0	15.0	16.0	16.5
우즈베크공화국	12.1	16.0	18.2	19.7
투르크멘공화국	2.2	2.9	3.2	3.5
키르기스공화국	3.0	3.6	4.0	4.2
타지크공화국	3.0	4.0	4.6	5.0

주: 1)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 총인구는 공화국 인구의 합계와 다를 수 있다.

자료: CIA (1990), p. 19.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불일치)의 주된 이유는 불균등한 자원부존과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지역 간 격차였다. 소비에트의 지역개발정책은 자원을 더 발전된 지역에서 덜 발전된 지역으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격차를 더욱 확대했다. 소비에트 시기 초에는 균등화를 향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지만, 전후(戰後) 시기에 이 목표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업의 재건, 기존 공장 및 설비의 현대화, 국방부문의 급속한 증강, 그리고 에너지 생산의 증대를 비롯한 다른 국가적 우선순위로 대치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 10년 전부터 진행된 소비에트 경제성장의 현저한 둔화는 자원배분에 대한 결정을 훨씬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직되고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소비에트 경제관리체제는 계획을 입안하고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지역적 고려를 전반적으로 경시했다. 중앙의 각 부처는 대다수 제조업을 통제한 반면, 국가 및 공화국의 공무원은 농업과 경공업(식료품산업) 및 사회적 인프라

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다. 현지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방경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전적으로 공화국의 권한 하에 있었다. 그 결과, 공장들은 종종 현지 노동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었으며, 타 지역에서 유지한 노동력을 위한 적절한 주택이나 사회서비스도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70-85년 동안의 공화국별 투자와 소비 및 그리고 정부지출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소비에트 정권이 지역의 균형발전보다 국가경제의 목표를 추구하는 편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당국은 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의 경제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 곳에 자원을 배분했다.

〈표 7〉 소연방 공화국별 1인당 투자수준 (지수: 소연방=100)

	1970	1980	1985	1988
러시아공화국	110.3	119.1	119.5	123.1
우크라이나공화국	82.4	75.9	76.3	74.7
벨라루스공화국	88.1	86.4	94.4	99.2
몰도바공화국	78.3	74.1	75.1	71.4
<b>발트해 연안지역</b>				
에스토니아공화국	125.7	110.2	111.7	107.0
라트비아공화국	111.1	100.5	112.1	95.5
리투아니아공화국	107.5	93.3	105.6	113.5
<b>카프카스 지역</b>				
그루지야공화국	69.8	69.8	83.7	72.9
아르메니아공화국	97.2	72.6	74.2	61.9
아제르바이잔공화국	79.3	64.6	77.3	65.1
<b>중앙아시아 지역</b>				
카자흐공화국	123.1	107.4	101.8	103.3
우즈베크공화국	75.7	66.5	57.8	50.3
투르크멘공화국	106.3	85.1	88.2	78.3
키르기스공화국	72.0	54.4	53.3	48.5
타지크공화국	63.9	48.8	46.1	44.8

자료: CIA (1990), p. 19.

#### 4. 소비에트 공화국간 자본이전과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해체

##### (1) 소비에트 공화국간 자본이전

소련은 계획경제였다. 공화국간 자본흐름은 이자율이나 위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 공화국간에 계획된 물자교환에서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재화를 수취하는 측에 부채로 기록되거나 제공하는 측에 자산으로 남지도 않았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부채를 쌓지 않은 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화국간 물자교환에서의 불균형은 무상의 자본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8〉는 1966-1991년의 자본이전 시계열 자료를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소비에트의 공화국간 자본이전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여러 공화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국민소득(NIP)의 10%를 넘는 규모를 제공하거나 수취했다. 소비에트 공화국

간 자본이전의 크기는 소연방의 데이터를 일부 EC 통계와 비교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EC 회원국으로부터의 무상 자본이전은 해당국 GNP의 1%를 결코 넘지 않는다. 소비에트 공화국들 간에 자본이전을 평가하기 위해 각 공화국간의 물자거래의 불균형을 사용한 바와 같이 EC 회원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GNP 대비 백분율로서의 EC 회원국의 물자 불균형은 대개 0%에서 4%의 범위에 있다. 이들 수치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백분율에 크게 못 미친다.<sup>6)</sup>

소비에트의 공화국간 자본이전의 패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시계열 범위에 걸쳐 슬라브 공화국들과 아제르바이잔은 자본이전 공여국인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수혜국이었다. 발트해 연안 공화국들은 모두 1980년경에 공여국에서 수혜국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공화국들의 경우 그 방향이 다소 애매하다. 공여 공화국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생산국 민소득(NIP)의 20% 이상을 매년 이전한 데서 두드러진다. 카자흐스탄은 가장 높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생산국민소득(NIP)의 30%에 이르는 자본이전을 수취했다. 이 같은 대규모의 자본이전은 명백히 경제실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표 8〉 생산국민소득(NIP) 대비 자본이전 비율, 1966-1991년 (단위: %)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러시아	3.4	7.9	4.3	1.3	1.7	4.7
우크라이나	8.9	4.4	7.1	6.0	3.5	-0.0
벨라루스	-1.0	5.8	16.7	18.2	12.3	4.3
몰도바	11.6	5.4	5.9	1.0	0.3	-1.9
<b>발트해 연안지역</b>						
에스토니아	1.4	-1.8	3.7	-4.9	-6.2	-11.5
라트비아	7.9	4.2	5.8	5.8	0.6	0.6
리투아니아	16.9	28.6	19.9	-2.8	-6.0	-5.5
<b>카프카스 지역</b>						
그루지야	-7.6	-5.9	-3.1	11.0	4.7	-6.2
아르메니아	-8.0	-10.3	5.3	12.3	10.7	-10.0
아제르바이잔	0.3	4.6	11.3	23.8	21.9	4.9
<b>중앙아시아 지역</b>						
카자흐스탄	-38.1	-13.2	-11.8	-19.3	-20.3	-18.8
우즈베키스탄	-15.5	-4.3	-3.0	-3.1	-5.1	-20.6
투르크메니아	-17.8	-0.0	2.3	4.9	-3.0	-3.3
키르기스스탄	-15.6	-6.8	-15.4	-11.2	-13.3	-20.2
타지키스탄	-18.8	-7.6	-9.7	-10.6	-9.2	-7.2

자료: G. van Seim and E. Dolle (1993), p. 136.

## (2) 투자 우선순위의 변동

공화국간 자본재분배의 유형은 소비에트의 투자결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 부문별 고려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는 부차적인 영향만을 받는다.<sup>7)</sup> 더욱이 소비

6) 이 시기에 EC에서 이루어진 무상이전 데이터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Swann D. (1988: 77). 물자교환의 수지불균형은 Eurostat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7) 그러나 흐루시초프 하에서 지역별 경제회의(Sovnarkhozy)와 함께 전개된 짧은 기간의 실험 동안 소연방 경제는

에트 자본배분은 단일 계획자나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듯이 보이는 많은 부처(ministries)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였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경제의 공간적 양상(aspect)은 대단히 중요했으며 소비에트 권력의 집중화 정도는 아주 높았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주장된 소비에트 투자정책의 입지 원칙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소비에트의 지역적 투자에 관한 대부분의 규율은 엥겔스와 레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었다. 이 “생산력의 입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G. van Seim and E. Dolle, 1993: 137.).

- (i) 생산비용과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원료 공급지나 소비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
- (ii) 전국에 걸친 경제활동의 분산
- (iii) 경제 지역 간의 합리적인 분업과 각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발전
- (iv) 모든 낙후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을 가장 발전한 지역의 수준으로까지 향상
- (v) 중심지와 지방간의 차별 해소
- (vi) 국방잠재력의 강화
- (vii) 사회주의 블록 내의 국제분업<sup>9)</sup>

이러한 원칙은 세 가지 범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산출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고, 마지막 두 개는 지정학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 번째 원칙의 지위는 다소 불분명하다.<sup>10)</sup> 여섯 번째 원칙은 1945년 이후 전쟁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의 투자계획에서 덜 중요하게 되었다.<sup>11)</sup> 더욱이 사회주의 블록 내에서 국제 분업의 장려가 소연방 내의 자본 재분배에 왜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산출극대화와 평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한다. 실제 소비에트 의사결정에서 이들 두 목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적인 문제이다.

부와 (자본)이전 간의 관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이 데이터를 일견하면, 1966-1978년 자본이전은 더욱 발전된 공화국으로부터 덜 발전한 공화국으로 소비에트 국민소득의 재분배가 아주 잘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 다음의 1979-1986년의 시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부유한 공화국에서 빈곤한 공화국’으로의 자본이전이 첫 번째 시기(1966-1978년) 동안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그 다음 시기(1979-1986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산출극대화가 소비에트

1차적으로 지역별로 조직되었으며 부문별로는 2차적으로만 이루어졌다.

8) 자본배분과 관련하여 의도와 결과 간의 잠재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J. Schiffer (1989), p. 10 및 p. 231을 참조.

9) D. A. Dyker (1983), p. 114을 참조.

10) 표준적인 소비에트 정식화를 통해 이 입지규칙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특화와 콤플렉스 개발이라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특화와 콤플렉스 개발이라는 목표는 일견 모순적인데, 전자는 산출 극대화를 지향하는 듯이 보이고 후자는 평등을 지향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원칙이 변증법적인 기만으로 명백한 모순이라고 하여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Dyker (1983: 115)는 이 원칙을 스스로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안을 찾아내었다. 이에 따라 산출 극대화와 평등 지향의 두 가지 목표에 함께 기여한다는 세 번째 원칙을 정식화한 것이다.

11) Schiffer J. (1989: 11)에 따르면, “서방의 전문가와 소비에트의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소연방이 산업의 공간적 분권화를 도모하더라도 핵전쟁 발발시 미국이 소비에트의 모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별 투자정책의 주요 원칙으로서 평등을 점차 압도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9〉 각 구성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자본이전 비교, 1966-1991년

	1966-1978년		1979-1986년		1987-1991년	
	1인당 NIP <sup>1)</sup> (소연방=100)	NIP 대비 자본이전	1인당 NIP <sup>1)</sup> (소연방=100)	NIP 대비 자본이전	1인당 NIP <sup>1)</sup> (소연방=100)	NIP 대비 자본이전
라트비아	133.0	5.5	129.1	4.6	125.8	-2.2
에스토니아	130.2	0.1	121.8	-5.3	127.5	-11.5
러시아	111.4	5.6	112.7	1.4	119.3	3.3
벨라루스	99.3	10.4	112.0	16.5	118.3	9.8
리투아니아	110.8	22.2	102.0	-3.4	107.4	-7.4
아르메니아	81.6	0.2	93.3	12.4	83.9	-1.3
그루지야	74.7	-5.2	95.1	6.1	80.6	0.6
우크라이나	96.1	6.5	89.8	5.5	90.1	1.7
몰도바	82.9	6.5	86.6	4.8	84.4	-4.1
아제르바이잔	66.0	7.9	82.5	22.4	68.0	15.4
카자흐스탄	82.0	-18.9	76.5	-20.2	76.6	-20.3
투르크메니스탄	75.8	2.6	68.2	1.0	59.7	-4.3
우즈베키스탄	62.5	-6.2	60.7	-5.4	47.3	-15.7
키르기스스탄	65.2	-12.9	59.8	-8.6	54.1	-21.6
타지키스탄	59.0	-9.9	52.3	-9.4	43.1	-12.5

주: 1) NIP: 생산국민소득(National Income Produced)

자료: M. V. Belkindas and M. J. Sagers, 1990, p. 636; J. Vanous (ed.), 1992.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소비에트 지도부가 공화국간 평등을 소홀히 하고 산출 극대화에 더욱 강조점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소비에트 경제성장 실적에 대한 중앙계획당국의 불만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잘 알려진 소비에트 추정치에 따르면, 1960-1970년에 걸친 시기의 연간 GDP 성장률은 4.2%이었던 데서 1970-1975년의 기간에는 3.2%, 1975-1980년에는 1.0%, 1980-1985년에는 0.6%로 하락했다.<sup>12)</sup> 소비에트 중앙당국은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부유한 공화국으로부터 빈곤한 공화국으로 자본을 분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유망한 경제부문, 특히 에너지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나르지쿨로프(Narzikulov, 1992)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1970년대 초에는 튜멘(석유지역)과 톱스크 후보다 2.5배 이상의 투자자원을 수취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는 이들 두 투자흐름의 규모는 동일해졌다.<sup>13)</sup> 이는 소비에트 전체의 경제실적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소비에트의 자본이 빈곤한 지역에서 성장유망 지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명제를 뒷받침한다.

1979-1986년과 1987-1991년 두 시기의 자본이전 패턴이 달리 나타난 것은 투자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에트 경제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G. van Seim and E. Dolle, 1993: p. 139). 오랫동안 소비에트의 상대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말 소비에트 지도부는 경제를 개방하고 국내가격을 세계시장의 상대가격에 더욱 일치시키려고 했다.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으며, 이

12) 글라스노스트는 소비에트의 경제성장에 관해 많은 재계산을 이끌었는데, 이 가운데 하닌(Khanin)의 재계산이 가장 널리 인용된다. 하닌의 데이터는 피셔(S. Fisher, 1992: 13)에서 얻을 수 있다.

13) 하지만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시계열의 전 범위에 걸쳐 자본의 수혜국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명백한 모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유입된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소비되었다는 것이다. 나르지쿨로프(R. Narzikulov, 1992)에 따르면, 1988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에서는 소비항목 단 하나가 국민소득보다 더욱 높았다고 한다.

에 따라 여타 대다수 공화국의 계정은 불이익을 보았지만 러시아연방과 같은 원자재 수출국의 국민소득 수치는 크게 개선되었다.

### (3) 소비에트 경제공간 해체의 의미

소비에트 제국의 경제는 존립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광대한 지리적 범위에 걸쳐 내부적으로 고도로 통합되었다. 산업활동은 널리 분산되었고 지역적으로 특화되었으며 소비에트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고도로 통합되었다. 전형적으로 하나 혹은 극소수의 기업이 전체 소비에트 경제에 필요한 특정 생산물을 생산했다. 스나이더(Snyder, 1993)는 이러한 극단적인 산업집중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소련방에 공급되는 농업설비 65개 중 34개에 달하는 각각의 품목이 전적으로 하나의 개별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필수 투입물의 부품조달은 고도로 집중되었다. 이는 키르기스공화국의 건초포장 공장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그 공장의 생산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에 소재한 두 개 기업에서만 생산하는 압축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결정적으로 의존했다 (Hare et al., 2000).<sup>14)</sup>

고도로 발달한 철도 및 항공운송 인프라가 이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러한 인프라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운송시스템은 주요 허브가 된 모스크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소비에트 블록 내에서 내외부로의 교역흐름은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어졌다.<sup>15)</sup>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스 및 석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운송되었으며 대체로 전력망은 지역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운송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투입물도 거액의 간접적인 보조금을 받고 명목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 공급시스템은 집약적인 관개와 전력생산 및 도시지역의 물 소비를 위해 통합되었다. 노동자원은 계획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지역에 걸쳐 재배치되었다. 국가 행정기관은 다른 많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보다 특히 소련방에서 고도로 집중화되었다.

1970년 이전 소비에트 시스템은 높은 투자, 강제 저축과 중앙계획에 따른 노동의 동원, 교육 및 과학 등에 대한 높은 지출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체제는 비효율성과 낮은 소비 및 높은 군사비 지출에 따른 부담을 점점 더 안게 되었고, 따라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투자수익과 총요소생산성(TFP)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졌다.<sup>16)</sup>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정치·경제시스템을 선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려고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경제적 통제의 상실을 가져왔다. 엘만과 콘토로비치(Ellman and Kontorovich, 1992)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결과로서 기업간 연결이 와해되고 공화국 당국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상실되면서 1980년대 후반 동안 소련방에서는 중대한 분열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집권화된 통제의 붕괴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거대한 제국을 접합시켜 왔던 공산당의 실제적인 파괴였다. 1987년의 기업개혁조치와 함께 시작된 기업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의 상실과 결합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의 상실은 1980년대 말에서 1990-1991년에 이어지는 재정위기의 심화, 1990-91년의 경제적 정체 및 심각한 불황으로의 귀결, 1차적으로 중부유럽 위성국 간에 그 다음에는 소비에트공화국 간에 분리주의 경향의 증가

14) 또 다른 예는 전자통신부문이다. “전화기는 라트비아의 리가와 러시아의 페름에서 생산되었는데, 러시아의 이 공장에서 러시아가 만든 모든 전화기의 대략 90%를 생산했다.” Brock and Sutherland, 2000, p. 321.

15)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상품은 발트해 항구에서 수출되었고, 타지크 알루미늄은 벨라루스 산업에 공급되었고, 키르기스 양모는 동유럽에 수출되었다.

16) 예를 들면, 캄포스와 코리첼리(Campos and Coricelli, 2002) 및 가이다르 등(Gaidar ed., 2003)을 참조.

를 가져왔다(Gaidar ed., 2003; Sutela, 2003).

정치적 몰락 과정에서 코메콘이 해체되었으며 중부유럽의 국가들은 서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후 1991년 동안 소련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서는 분열되었으며 1991년 12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또한 이 정치적 분열의 여파는 경제체제의 개혁(거시경제 안정화, 가격 자유화, 사유화, 법제개혁 및 더욱 일반적으로 시장제도의 건설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분열 과정을 앞당겼다.

경제공간 분열의 증거는 국가 간의 경제적·제도적 연결의 와해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같은 큰 국가에서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 내의 운송은 철도부문의 취약성 증가로 인해 사정이 악화되었으며(Kontorovich, 1992), 특히 더욱 멀리 떨어진 지역의 운송은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및 전자통신을 비롯하여 다른 운송·통신수단의 노후화로 인해 더욱 나빠졌다.(Hill and Gaddy, 2003) 화물수송량은 1991년과 1997년 사이에 42% 하락했다. 우편수송량은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83% 하락했다.(de Broek and Koen, IMF, 2000) 우크라이나에서도 초기 수년 동안 지방정부들이 중요한 재화의 손실로부터 지방경제를 보호하고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의 경쟁에서 기업을 보호하려 함에 따라 국내교역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비공식적인 도로검문소를 비롯한 통행의 관문을 전국 도처에 설치했다. 이러한 형태의 국내분열은 극단적인 형태를 취했는데, 내전이 발발하는(타지키스탄) 형태로 전개되거나 분리주의 운동으로 자치영토가 확장되기도 했다(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몰도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공간 해체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다. 첫째, 체제전환 불황을 야기하는 여타 요인(안정화, 가격자유화 등)으로부터 분열에 따른 영향을 분리시키는 것은 실증적으로 어렵다. 둘째, 교역과 국내통신에 대한 새로운 장애로 인해 쇠퇴한 비효율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의 총생산가치에서 가치가 줄어들어 사라진 경제활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분열에 따른 비용을 측정하고 그 비용을 합쳐 그 규모를 간단히 나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복잡하고 동태적인 여러 차원의 분열과정을 이해하고 나타내는 데 국별 회귀분석이 큰 도움을 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몇 가지 단편적인 증거는 경제공간의 해체가 체제전환 불황을 설명하는 중대한 요인이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해체는 외부적인 연결과 금융(자금)이전에 가장 의존했던 내륙에 위치한 소규모의 CIS 공화국에서 체제전환 불황이 가장 극심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에트 체제에 통합된 정도가 낮았던 중부유럽 국가들도 경제공간 해체에 따른 충격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이들 국가가 겪은 체제전환 불황은 최소한에 그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발틱 국가들은 체제전환 불황과 경제공간 해체의 충격이라는 두 가지 고통이란 면에서 양 극단의 사이에 놓였다.<sup>17)</sup> 발트해 연안국들이 중부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는 사실은 해체의 시점에 이들 국가들이 중부유럽 경제의 경우보다 소연방의 나머지 지역과 훨씬 더 통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 더욱 일찍 그리고 더욱 빨리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의 더욱 효과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누적적인 서구와의 통합이라는 양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특징지었던 내적인 분열을 겪지 않았다.

둘째, 교역의 하락은 극적이었는데, CIS에서 역내 교역은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83-84%

17) 러시아는 주로 공여국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간(물자 및 자금의) 이전과 가격보조금을 중단한 데서 이익을 얻었다. 다른 한편, 러시아는 구소련의 모든 대외부채를 떠안았다.

하락했다 (Freinkman, Polyakov and Revenco, 2004). 1990년과 1992년 사이에 구소련 공화국 간의 수출은 3,2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하락했다(Metcalf, 1997). 시간이 지나면서 CIS 국가들은 다양한 정도로 자국의 교역흐름을 세계의 나머지 국가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것이 CIS 역내 상품교환의 붕괴로부터 초래된 교역손실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아바네산과 프라인크만(Avanesyan and Freinkman, 2003)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의 경우 직간접적인 교역충격(가격충격과 수요충격)은 결과적으로 GDP의 85%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기록된 최대 GDP 하락폭인 GDP의 65%보다 더욱 컸다.<sup>18)</sup>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키르기스공화국은 1990년에 약 1,300만 마리의 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소련의 수출시장 대부분을 잃게 된 2002년에는 약 300만 마리만 남았을 뿐이다(Johannes F. Linn, 2004: 9-10).

셋째, 기업수준에서 보면, 새로운 국경이 획정되고 교역과 통행 및 대금지불에 대한 장벽이 설치됨에 따라 개별 기업의 붕괴가 수요·공급의 연쇄의 파괴로 연결되는 증거가 존재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앞서 인용한 전 소연방에 공급을 맡아온 비슈케크의 건조포장공장의 경우이다. 소비에트 시기 동안 이 공장의 생산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두 기업이 공급한 압축기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의존했기 때문에 독립 이후 생산량이 폭락했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 기업이 경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에스토니아로부터의 부품공급은 정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생산량의 약 절반이 감소되는 즉각적인 손실을 입었다. 바터계약을 통해 러시아의 부품생산기업으로부터 당분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에스토니아산 부품의 감소분을 상쇄할 수는 없었다 (Hare et al., 2000).

## 5. 결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연적 성장모델에 따라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해 통제를 실시한 후 1970년대 이후 소비에트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가장 나빴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대적인 실적은 더욱 악화되었다. 소비에트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이끈 것은 자본과 노동 간의 낮은 대체 탄력성으로, 자본의 수확 체감을 특히 극심한 형태로 초래했다. 국방지출의 부담 또한 소비에트의 쇠퇴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소비에트 공화국 간의 경제발전의 격차는 천연자원 부존의 지역적 차이와 불균등 발전 정책 및 인구증가의 현격한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불일치를 축소시킨다는 공인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앙당국의 개발정책 또한 사실상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1970-85년 시기 동안 각 공화국의 투자, 소비 및 정부지출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면, 중앙당국은 지역적 불일치보다 국가경제의 목표를 추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배분은 경제적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의 경제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에 이루어졌다. 1985년 이래, 소연방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에너지 사용의 증가,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경제정책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비에트 투자정책은 공화국 간 경제적 분산을 향하는 경향을 직접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점차 경제발전의 균등화 목표에 관하여 산출 극대화의 목표가 중요성

18) 아바네산과 프라인크만(Avanesyan and Freinkman)은 교역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실제 GDP의 손실 간의 차이를 해명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정책의 개혁과 외부금융지원이 교역충격의 영향을 개선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을 획득했다. 1970년대 말 소비에트 계획당국은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불충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부유한 공화국에서 빈곤한 공화국으로부터의 자본 재분배는 소비에트 경제실적 전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폐지되었으며, 곧이어 공화국간 경제적 불균등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정치적 해체로 소비에트시기에 이루어진 자본이전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그 결과 공화국간 불균등성은 훨씬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제공간의 해체가 구소련을 비롯한 체제전환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붕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경제공간의 해체는 결코 이 붕괴의 배후에 있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자들이 체제전환 과정의 경제적 궤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공간의 해체라는 극히 중요한 현상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지적받을 만하다. 또한 이 지역의 경제적 재통합과 다른 세계와의 통합이 2000년대 이후의 강한 회복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재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내 무역과 경유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국내와 역내에서 노동과 자본 및 지식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다른 세계와 이 지역의 통합을 지향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과거의 극적인 분열이라는 배경을 뒤로 하고 체제전환 국가 서로간의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국가와의 통합은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급속한 성장을 보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CIS 국가들에서 보여진 200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실적은 상당 부분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진행된 재통합 과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소규모의 CIS 국가들의 경우 육지로 둘러싸인 입지를 고려하면 세계의 다른 지역과 더욱 효과적인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는 역내 인접국과의 통합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사실상 이들 지역(예를 들면,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이 빠른 속도로 정치·안보적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은 해체에 뒤이어 나타난 영향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Avanesyan, Vahram, and Freinkman, Lev (2003). "Costing out the Big Bang: Impact of External Shocks on the Armenian Economy at the Outset of Transition." *Working Paper 03/01*. Armenian International Policy Research Group.
- Belkindas M.V. and M.J. Sagers (1990). "A Preliminary Analysis of Economic Relations Among Union Republics of the USSR; 1970-1988." *Soviet Geography*, Vol. 31, No. 9, pp. 629~655.
- Bergson, A. (1997). "How big was the Soviet GDP?"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39, No. 1, pp. 1~14.
- Brock, Gregory and Sutherland, Ewan (2000). "Telecommunications and Economic Growth in the Former USSR" *East European Quarterly*, Vol. 34, No 2, pp. 319~335.
- Burkett J. P. (1992). "Allocation of Investment among Soviet Republics in the 1980s." in Ellman M. and V. Kontorovich (eds.),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 Campos, Nauro F., and Coricelli, Fabrizio (2002).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and What We Shou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0, pp. 793~836.
- CIA.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viet Republics, 1970-89." *A Research Paper*(CIA FOIA Document). July 1990.  
[http://www.foia.cia.gov/docs/DOC\\_0000969762/DOC\\_0000969762.pdf](http://www.foia.cia.gov/docs/DOC_0000969762/DOC_0000969762.pdf) (검색일: 2012.04.10.)
- De Broeck, Mark, and Koen, Vincent (2000). "The Great Contractions in Russia, the Baltics and the Other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 View from the Supply Side." *Working Paper 00/3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Dobrinsky, R., Hesse, D. and Traeger, R. (2006). "Understanding the Long-term Growth Performance of the East Europe and CIS Economi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06.1 (Geneva: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Dyker D.A. (1983). *The Process of Investment in the USSR*, Cambridge.
- Easterly, W. and Fischer, A. (1994). "The Soviet Economic Decline: Historical and Republican Data." *NBER Working Paper*, No. 4735.
- Easterly, W. and Fischer, S. (1994). "What We Can Learn from the Soviet Collapse." *Finance & Development*, Vol. 31, No. 4, pp. 2~5.
- Easterly, W. and S. Fischer. (1995). "The Soviet Economic Declin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9, No. 3, pp. 341~371.
- Ellman, Michael, and Kontorovich, Vladimir (1992).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Routledge.
- Freinkman, Lev, Polyakov, Evgeny and Revenco, Carolina (2004). *Trade Performance and Regional Integration of the CIS Countries*. Washington: The World Bank.
- Gaidar, Yegor (ed.) (2003). *The Economics of Russian Transition*. Cambridge: MIT Press.
- Guriey, S. and Ickes, B. W. (2000). "Microeconomic Aspects of Economic Growth in Eastern

-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1950-2000.”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o. 348.
- Hare, P., Bevan, A. Stern J. and Estrin, S. (2000). “Supply Responses in the Econom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Discussion Paper No. 2000/09. Edinburgh: Centre for Economic Reform and Transform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Heriot-Watt University.
- Hayek, F. (1935).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rit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in N. G. Pierson, Ludwig von Mises, George Halm, and Enrico Barone (eds.), with an Introduction and a Concluding Essay, by F. A. von Hayek, London: G. Routledge & Sons, Ltd.
- Hill, Fiona, and Gaddy, Clifford (2003). *The Siberian Curse: How Communist Planners left Russia Out in the Cold*.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Ivanov Y. and Khomenko, T. (2009).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RRC Working Paper Series No. 17* ( Hitotsubashi University).
- Kontorovich, Vladimir (1992). “The Railroads.” in *The Disintegration of Soviet Economic System*. (ed.). Ellman, Michael and Vladimir, Kontorovich. London: Routledge, pp. 174~192.
-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pp. 62~78.
- Lavigne, Marie (1995).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 Linn, Johannes F. (2004). “Economic (Dis)Integration Matters: The Soviet Collapse Revisited.” The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Transition in the CI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t the Academy for National Economy, Moscow, September 13-14, 2004.
- Metcalf, Lee Kendall (1997).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mer Soviet Un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0, No. .3, pp. 529~549.
- Narzikulov R. (1992). “Kyrgyzstan, Tadzhikistan, Turkmenia, Uzbekista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conomic Consequences of Soviet Disintegration*, Vienna, April 20-22.
- Ofer, Gur (1987).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Ofer, Gur, and Aaron Vinokur, Aaron (1992). *The Soviet Household Under the Old Reg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er J. (1989). *Soviet Regional Economic Policy: the East-West Debate over Pacific Siberian Development*, Houndmills.
- Sutela, Pekka (2003). *The Russian Market Economy*. Helsinki: Kikimora Publications.
- Van Seim, G. and Dolle, E. (1993). “Soviet Interrepublican Capital Transfers and the Republics’ Level of Development, 1996-1991.” *Moct-Most*, Vol. 3, No. 1, pp. 133~149.
- Vanous J. (ed.) (1992). *Plan Econ Report*, Washington DC, Vol. 8, N. 11-13.
- Weitzman, Martin L. (1970). “Soviet Postwar Economic Growth and Capital-Labor Substit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 4, pp. 676~692.
- Young, Alwin (1995). “The Tyranny of Number: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X(3), pp. 641~680.



# 소비에트 분배 및 생산 메커니즘과 지역 간 격차

김 상 원(국민대)

## I. 서론

전통 소련형 경제의 메커니즘은 고도로 집중화된 메커니즘이다. 즉 인공적인 거대한 기계 체계로 구축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기계 체계의 운영자이다. 국가의 관리하에 체계화된 인간의 생활 활동, 즉 소비 활동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그리고 보급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전통적인 소련 계획경제의 기능 메커니즘을 전통 소련형 국가 관리 경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기계 체계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제어되는지 이다. 그리고 이 경제 메커니즘에서 활동이 체계화되는 인간과 구성체(소속 공화국)는 어떻게 대응하는 가이다. 즉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여 이 기계 체계가 유지되고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 활동을 이룰 수 있는가이다. 이 대응은 전통적인 소련형 국가 관리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경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소련 경제의 기본 체제인 스탈린 체제는 외연적인 확장과 임기응변적인 투자가 기조인 자원 낭비형 경제였다. 수직 통합된 중앙 시스템은 외부의 압박과 오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정보 전달, 의사 결정 지연과 왜곡으로 문제가 축적되었다. 계획 시스템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기근과 극한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체제 전략을 수정하고 동시에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재편의 필요성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사후적인 궤도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극심한 확장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위 조직과 구성원들은 조직적인 방위 기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급 기관과의 수직적인 협상을 이룩하면서 수평적인 거래도 형성하였다. 동시에 비공식적인 시스템이나 행동 패턴은 단순한 보완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체제로 통합되어 갔다. 이런 권력의 전략적 행동과 하위 조직 구성원의 적응 행동과 상호 작용을 통해 부처 체제와 생산라인 시스템을 축으로 한 행정명령경제가 확립되었다.

즉 소련의 경제체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원가계산, 경제적 수단, 조직적 관리구조와 생산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메커니즘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생산의 사회화과정과 관련되며, 생산·분배에 관한 계획적 국가규제나 경제관리와 모든 공공문제들에 대한 인민들의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메커니즘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절하는 자연발생적 경제메커니즘을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실시된 분배 정책은 소련 구성 공화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소련이 붕괴한 현 시점에서 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경제

적 성과를 도출했었고, 거대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이 것이 문제라면 분명 다시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련 경제의 기본 시스템인 계획경제의 성립과정을 1차, 2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살펴보고, 계획경제의 성과가 공화국별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를 소득, 투자, 소비, 문화, 주택, 교육, 의료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 II.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분배 제도

1924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한 스탈린은 새로운 경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 제14차 공산당 대회에서 소련 단독으로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이 채택되었고, 1927년 제15차 공산당대회에서 NEP의 중지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결정되었다. 이 결과 전체주의 틀이 확립되고, 경제는 당 중앙지배에 따른 행정명령체제로 형성되었다. 즉 당 조직이 중앙과 지방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 조직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직적 관리체도로 외부 감시 기구도 존재했다. 인사제도를 중앙당이 장악하는 것이다. 즉 자금과 자재의 최종 배분 권한을 가진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당 지도부가 장악한 것이다.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을 통해 경제 기관 간부 인사를 통제하고 중앙위원회의 부문별 부서를 통해 직접 인민위원회와 의견을 조절하였다. 1933년에는 인민위원회의 정치관리부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통제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지방 당기관도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둘째,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집단주의 구축이다. 조직적인 동원주의가 만들어지고, 제도에 의한 통합을 추진하였다. 콤소몰과 빼오네르 형태가 대표적인 조직 동원의 형태이다. 선전과 선동 정책을 통해 이데올로기 주입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감시체제의 제도화로 노동감독인민위원회와 국가정치정보안부가 있다. 노동감독인민위원회는 1920년대 말에는 당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국가기구의 중 하나가 되었다.

셋째, 고용 관료제의 실시이다. 1920년대 말에는 빠른 경제 건설을 위해 할당량 및 가격통제가 실시되고, 임금과 생산성도 대상이 되었다. 생산 할당량과 임금은 노동자들의 협상 대상이 아닌 계획경제 추진의 종속 변수로 경제부서와 노조는 노동자들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독려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공산당 아파라치키 중 노동감독인민위원회는 계획화된 생산 관리에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법을 추가하였다. 대표적으로 테일러주의는 노동 과정의 세분화된 분업 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영 부문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공장은 최고국민경제회의 의견에 상응하는 결과를 산출해야하고, 경영도 이들에 의해 제어되었다. 작업은 산업기술계획실행이라는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매일 할당되는 스케줄에 따라 운영되었다. 노동자의 기술 등급, 공장의 운영, 기계 보수, 공구 정비 등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설치되어, 작업장에서 책임자는 지시서에 표시된 작업을 노동자에게 지시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 시스템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중앙당에 의한 이러한 계획화된 그리고 행정명령식 운영 시스템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행정명령식 제도는 중앙당, 기업경영자, 노동자의 구조로 형성된다. 중앙당은 조직 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을 결정하고 전달하고 실무적인 의사 결정 및 실행을 기업경영자에게 위임한다. 하지만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인 요소들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1) E. A., Rees ed. *Decision Making in the Stalinist Command Economy 1932-37* (London: Macmillan, 1997), p. 26.

즉 중앙당은 성장 극대화, 강한 국가 건설 등과 같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한다. 기업경영자는 지위 유지와 더 많은 보수 확보를 위해 중앙당에 단순히 순응하거나 출세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수직적 기능조직은 중요한 의사 결정은 상부에 집중되고, 그 결과 상하 및 수평 구조 사이의 정보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 이익의 비공유라는 특징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에서 문제가 생긴다. 즉 작업을 위임하는 경영자는 합리성을 가지고 지령을 통해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 단계의 책임자에게 일정 부분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위 단계의 책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계획 주체의 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계획을 설립하는 주체는 인센티브와 모니터링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sup>2)</sup>

스탈린의 행정명령식체제에서 계획의 성공을 위해 물질적 인센티브 제공, 처벌, 조직적 동원을 통해 노동협력 추구, 기회주의 타파를 실시하고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하위 단위 책임자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더라도, 자신에게 불합리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상하 구조 속에서 의존적 체제가 형성된다. 제한된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책임자는 후원자가 되고, 후원자는 하위자에게 복종을 요구함과 동시에 각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하위자는 충성 대가로 비호를 요구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결과 계획체제에서 렌트 씨킹(rent seeking)이 발생하고, 인적 균형과 자원 배분에서 왜곡이 증대하는 이유가 되었다.

## 2-1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 결과

소련은 1929년 공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실시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경제 합리성을 뛰어넘는 목표를 상정하였다. 초기 공업화 전략은 최신 기술의 자본 설비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기능적인 관리 체제에서 젊은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열정에 호소하여 최대의 노동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의 주축은 이전에 존재했던 부르주아 전문가가 아닌 새로운 산업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스탈린의 성장전략 시나리오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동 운동과 사회주의 경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강제적으로 자본투자를 확대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노동력은 상당히 미숙련된 인력이 투입되었다. 물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는 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었던 초기를 보면 설비펀드의 축적성고가 1929년을 100으로 1930년 125, 1931년 153, 1932년 199, 1933년 255, 1934년 311로 급증했다.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설비는 대부분이 수입되었다. 이는 곡물, 목재, 석유 등을 수출하고, 서방에서 최신 설비를 수입한 것이다. 투입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되었으며, 이들에게 강요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열정이었다. 1920년대 말부터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선전과 선동 전술이 실시되어, 계획의 목표를 초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계획 및 원가 인하, 노동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규율 강화 등이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초급당조직(初級黨組織)으로서 브리가다(Бригада)를 조직하였다. 노동 브리가다 및 다양한 형태의 브리가다를 조직해 주어진 계획을 초과 달성 의무를 맡겼다. 노동 브

2) Paul R. Gregory, *Restructuring the Soviet Economic Bureau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1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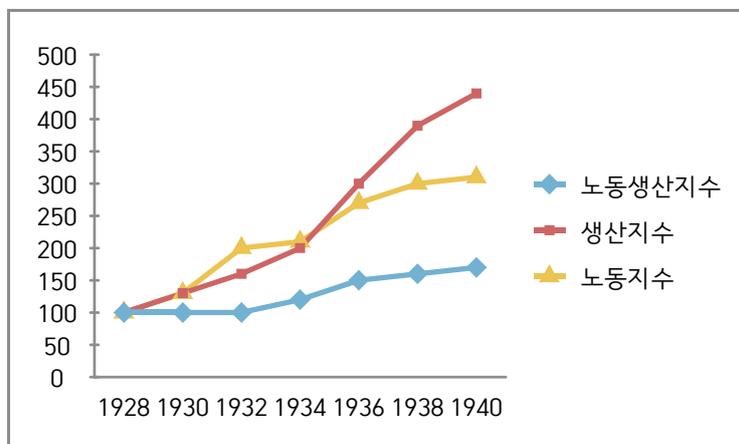
리가다의 경우 매년 참가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31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었다. 참여 노동자의 특징은 젊은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품소몰 당원의 참여이다. 이는 초기에 숙련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숙련공의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계획의 성과가 초기에 달성된 또 다른 이유는 1929년 연속노동 주일제 도입이다. 즉 노동자는 5일 연속 일하고 하루 휴식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연속 조업이 가능해졌다. 중공업의 경우 1931년 3월까지 노동자의 80%가 연속 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경공업은 50%에 그쳤다.<sup>3)</sup>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의 교체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1929~30년 사이 정부 및 경제기관에서 종사하던 약 2백만명의 직원 중 45만명을 조사하고, 그 중 11%가 제거되었다. 그들 대신 젊은 전문가와 노동자들이 경영직에 등용되었다. 1929년 중반까지 14,500 명의 노동자가 경영직에 등용되었다. 이들 53.9%가 노동 브리гада 출신이었다.

초기 경제개발계획은 이렇게 당 주도하에 당원, 관리자, 노동 브리гада의 능동적인 참여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계획 수행 중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은 이들의 희생적인 노동으로 해결하였다. 이 결과 훌륭한 경영자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목표를 이룩하는 사람이 되었다. 계획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은 종종 즉흥적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적극적인 행정적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참여로 수행된 초기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대의 생산, 투자, 노동자 생산성은 표1과 같다. 투자는 급증하고 중공업의 근로자 수도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8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하고, 1932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표1) 중공업 노동생산성



출처: D. R. Hodgman, *Soviet Industrial Production 1928-1951*,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 89,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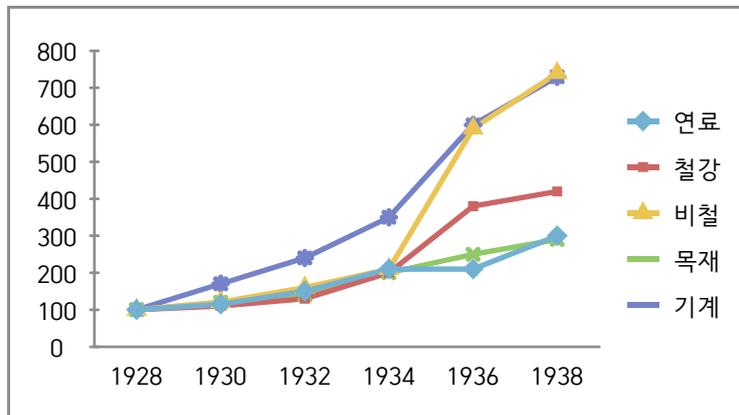
국민소득은 전체 성장펀드의 비중에서 1928년 15%였지만, 1931년에는 40%를 차지했다. 1928~1932년 기간 동안 자본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 산업 생산의 증가는 오로지 노동인력의 대폭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의 성장의 특징은 외연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저하이다. 실질 임금 수준은

3)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London: Pluto Press. 1986) pp. 73-74.

1927~1928년도에 1913년 대비 86%였지만, 1930년대 전반에는 더욱 떨어졌다. 1937년에 실질 임금은 1928년의 약 60%에 지나지 않는다.<sup>4)</sup> 따라서 노동자 생활수준은 상당히 빈약했고, 공업화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 건설도 미약하여 주거환경도 개선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실제 성장은 생각만큼 이루지 못했다.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미비했고, 특히 기술력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적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결과이다. 중앙당의 생각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세분화된 분업 체제만으로도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 대량의 노동자만 투입된 상황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또한 자본 투자는 급증했지만, 효율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산업 설비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부족했고, 계획의 수행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존재했다. 대량 투입된 신규 노동자가 기술과 규율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투자도 효율적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어, 주요 프로젝트에만 집중되어 산업 간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표2) 산업부문별 성장률



출처: D. R. Hodgman, *Soviet Industrial Production 1928-1951*,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p. 236-237

표2에서 보듯이 산업 부문별 성장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석탄산업의 경우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급격한 기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일인당 채탄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하락하였다. 과도한 분업이 작업장 간 그리고 작업자 간의 조정을 어렵게 만든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생산 시간이 짧게 설정된 것이 문제였다. 기계 산업은 노동 감독부의 생산과 중앙집권적인 관리 방침에 의해 재편되었다. 제철소가 유지되었고, 공구 제조도 유지되었지만, 특화된 노동인력은 투입되지 못했다. 즉 형태는 서방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즉 기술 이전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사회 및 문화적 조건과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또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은 초기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 신규 노동자가 대량 유입되면서 새로운 노동자 공급이 많이 확산되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23세 이하 노동자

4) Ibid., pp. 125-127.

가 30% 정도였지만, 1930년이 지나면서 70%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 비율은 감소하고 산업의 기계화를 이룰 수 있는 숙련공은 빠르게 늘지 않았다. 높은 성과 목표를 상정한 생산과 건설 계획 때문에 목표 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할 수 있는 만큼 노동력을 끌어내어야 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의외로 노동력 수급 격차가 확대되어 노동력 기근 현상도 일어났다.

또한 연속 노동주일제 도입으로 생산과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노후화가 빨리 일어나고 가속화되어 원자재, 연료, 전력 부족을 초래 하였다. 수리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기계와 정비의 질은 갈수록 낮아졌다. 노동 인구는 증가했지만, 병가와 같은 휴식기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공장은 예비 노동자 확보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에 노동자는 정해진 업장을 가지 않고, 다른 노동 장소로 의사와 상관없이 배정되면서 노동자 배치 패턴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노동 브리гада 운동의 참가자도 증가했지만, 1930년대 초반 경제적 혜택의 수혜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젊고 열정적인 노동자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이었으며, 노동 브리гада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위의 위상을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sup>5)</sup> 이 결과 할당량 초과 달성 비율은 1931년 평균 38%, 1933년 23%, 1934년, 21% 계속 낮아졌다. 노동자의 경우 할당량을 달성해도 계속 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적당히 일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종종 적당한 노르마 달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 2-2. 노선 전환

경제개발계획 초기에 설정된 목표가 시간이 흐르며 지나면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자 중앙당은 노선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획의 목표는 하향 조정되었고, 대신 재무 부분 규율은 강화되었다. 노동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 및 동원도 중지되었다. 연속 노동주일제 및 개인 책임제에 대해 비판이 더해져 알렉세이 가스체프 주도의 경영기능시스템도 폐지되었다.

1931년 중반부터 전문가가 등용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중앙위원회의 기업 경영자와 당, 노조 기관에 부르주아 출신의 전문가들이 복권되었고, 전문가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점차 변모해갔다. 전문가의 창의, 열정에 대해서는 보너스와 명예로 보답되었다. 이전에 강제 노동 처벌을 받은 전문가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헌신이 증명되면 형벌은 무효가 되고, 근무 경력에서 말소되었다. 따라서 점차 전문가에 대한 평가도 출신보다 학력 위주로 전환되었다.

1932년 이후 석탄 산업과 금속 산업에서 실시되던 전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는 기능시스템에서 관리자, 기술자들은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으로 옮겨 투자 계획 및 노무 관리를 관리부서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생산시스템으로 재편되었다. 1934년 경제기관의 기능주의적 시스템은 폐지되고, 생산에서 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산 원칙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다. 인민위원회는 총생산을 관리하고, 각 지역에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관할하면서 지역의 생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

이 결과 1930년대 중반부터 점차 관리부서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중공업 공장 규모가 큰 공장의 경우 그 자체가 생산을 위한 마을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관리 라인에 종사하는 수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보다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생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던 시도는 점차 관리 기능이 증가하면서 전략을 역동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실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자격을 갖춘 노동자의 수가

5) Ibid., pp. 71-72.

증가된 것은 고무적이었다.

따라서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초기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생산성은 향상되었고, 1기 동안 건설된 공장과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숙련된 노동자가 늘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다시 확장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왜냐하면 1935년 스타하노프가 노동자의 영웅으로 등장하면서 생산 확장에 대한 중앙당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스타하노프 노동자 비율은 매년 급증하였다. 기업은 스타하노프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높은 성취율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기업은 쉽게 노르마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스타하노프 노동자는 비교적 젊고 미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자들이 많았다. 또한 단기 교육 과정의 보급을 통해 농민 출신 노동자에게도 기능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의욕이 높은 젊은 농민 출신 노동자가 스타하노프 노동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sup>6)</sup>

하지만 스타하노프 운동에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응변 방식의 작업이 종종 등장했고, 기계와 사람의 착취가 벌어졌다. 과도한 기계 사용으로 마모와 고장 그리고 사고를 초래했고, 노동 사고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결과 스타하노프 운동 이전의 생산으로 퇴보하는 경우와 생산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일어났다. 스타하노프 운동의 후유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목재 산업이다. 목재 산업은 1935년 조달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여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1936년 심각한 가뭄으로 하천으로 통한 운송이 어려워져 목재 수송에 타격을 주었다. 이는 주요 하천 교통로 해안의 과잉 벌채로 벌어진 일이다. 수송을 빨리하기 위해 해안의 목재를 주로 벌채했고 그 결과 수로의 침식과 더불어 갯벌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배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물의 흐름이 가속화 되었고, 여름철에는 수위가 저하되었다.

1930년대의 기계 공업 부문의 경영층의 구성은 소시민 계층, 농민 출신 고학력이 많았지만, 기업 책임자는 노동자 출신이 압도적이었고, 당원 비율이 높았다. 혁명 이전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의 비율도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에 필요했던 인물은 순종적이고 기계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집행자이기에, 전문가였지만, 중앙당은 썩은 지도자로 명명하고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권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압력과 조직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대해 산업 조직은 대응할 수 없었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자를 찾아 투자하는 것이었다. 주된 후원자는 당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중공업이다. 중공업 부문 인민위원이었던 오르조니 키제가 주요 후원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스탈린과 불화를 겪으면서 사라졌다. 그의 사후에 총관리국이 기업의 후원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관리국은 엄격한 감독관이라기보다는 기업연합이 되어있었다. 그들은 가능한 많이 얻고, 또한 가능한 한 적게 생산하는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기업의 청원자로 행동하였다. 지방의 당서기도 후원자가 되었다. 또한 경영자 자신이 후원자가 되기도 하였다.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계획에 의한 수직적인 거래가 아닌 수평적인 계획되지 않은 거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비공식적인 수평 거래의 지불은 현금,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계획되지 않은 수평적 거래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고스방크가 단기신용을 독점하면서 상업신용이 어려워지자 현금 위주로 거래가 된 것이다.<sup>7)</sup> 현금만 생산자가 독점적인 납품자인 입장을 이

6) Lewis H. Siegelbaum.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64.

7) Paul R. Gregor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215-216, 226-228.

용하여 사실상 가격 인상을 실시하면서 이루어졌다. 1932 ~ 1936년 GDP는 고작 50% 증가했지만, 화폐는 2배 또는 3배나 증가했다.

### III. 경제개발계획체제의 특징

우선 행정명령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지만, 더욱 권력이 집중되었고, 개인 독재가 강화되었다. 정치국은 점차 집단적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낮추고, 개최 횟수도 감소하였다. 스탈린도 서기국과 정치국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선과 불신이 상층부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1934년 노동감독인민위원회 대신 당통제위원회와 국가통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0년에는 보다 강력한 국가통제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내무인민위원회는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보안 기관의 생산 분야의 감시 개입도 강해졌다. 내무인민위원회는 대규모 공장에 전일제 직원을 두고 경영자와 기술자들을 감시했다.

어느 정도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고 난후 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1938년 12월 20일 인민위원회 포고에 의해 소련의 모든 기업 및 조직에 노동 수첩이 강제로 도입되었다. 이후 지각과 음주에 대해 엄벌이 부과되었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규율을 어겨 약 330만 명의 노동자가 처분되고, 그 중 180만 명은 근무를 계속하면서 6개월 미만의 교정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약 32만 명은 2~4개월 동안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문별 부처 체제와 생산라인시스템이 확립이다. 상급 기관은 성장 전략과 자원의 우선적인 중점 배분은 결정하지만, 실천적인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경영 측면의 의사 결정은 하위 단계로 분할 및 위임되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라기보다는 집권으로 처리되는 경제가 되었다. 최고국민경제회의가 산업 부문별 인민위원회로 분할되어 이후 인민위원회의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1939년까지 34개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중 24개가 경제부문 인민위원회였다. 1947년에는 59개 인민위원회가 존재했고 그 중 50개가 경제 관련 위원회였다. 그 아래에는 부문별 총 관리국이 있었다. 인민위원회 내지 총 관리국은 기업의 계획, 공급, 생산 및 판매 활동의 기본적인 조정자 및 관리자로 활동했다.

다음으로는 계층 구성의 질적 변화이다. 우선 소련적인 표준 노동자가 만들어졌다.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노동자 수는 급증하지만, 그 특징 중 하나는 청년층이나 여성 계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은 또한 농촌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신규 근로자 중 약 68%가 농촌 출신이었다.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도 신규 근로자 중 약 50%이 농촌 출신 이다. 이외에도 노동 브리가다의 등장이 있다. 이후에는 우수한 노동자인 스타하노프 노동자이다. 1세대들이 순수 노동자인 반면, 2세대는 경험도 일천한 노동자가 많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 노동자 양성 방법이 다르고, 속성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노동 조직에 적응하도록 하였다.<sup>8)</sup>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에는 미성년자 노동 규제가 완화되었다. 소련의 노동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한 중노동 및 지하 노동을 금지하고 무게 제한, 노동 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초과 근무

8) Kenneth Straus, *Factory and Community in Stalin's Russia: The Making of an Industrial Working Class*,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8) pp.156-169.

및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더욱이 1940년대 16, 17세 노동자는 성인과 대등한 노동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여성 노동 보호 규제도 철폐되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민, 청년, 여자는 작업의 영역도 제한되고 승진 기회도 없었다.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도 있었다. 하지만 매우 산업화에 따른 압도적인 인력난 하에서 그들은 융합되어 출신, 연령, 경험, 성 차별은 없으며 할당량 달성 비율과 자격, 등급, 급여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아래 평등하고, 할당량 달성 비율 및 자격 등에 의해서만 차별되었다. 그러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제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요한 부문은 지배 엘리트 계층 형성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이전의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경영자가 제거되고 대신에 공과대학 출신의 경영자가 다수 채용되었다. 주요 관청의 60~65%, 그리고 기업 사장의 90% 이상이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다른 특징은 산업부문의 경영자 출신이 직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학력과 더불어 동일한 조직과 같은 계열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인텔리겐치아 또는 화이트 그룹은 혁명 초기 입당율이 1.7%에 불과했으나 36년~39년에는 입당자의 43.8%가 이 그룹에서 나왔다. 노동자의 입당율 41% 보다 높았다. 스탈린 체제의 지배 엘리트는 기술 인텔리겐치아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공식 경제의 정착이 이루어진 것도 문제이다. 기업 활동은 불확실성과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과의 수직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또한 여력도 확보해야 한다. 수평 거래도 형성되었다.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인적 관계와 기업에 필요한 물자를 비공식적으로 공급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IV. 지역 간 격차

소련은 구성 공화국과 지역별 국민 소득의 절대지수는 공식 통계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소련의 여러 지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서방의 처음 시도는 Schroeder<sup>9)</sup>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chroeder의 연구를 토대로 기술한다. Schroeder는 개인 소득, 소매 상품 판매, 교육 및 의료, 스포츠, 문화 지출, 도시 주택 면적의 일반적인 의미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각 지표에 대한 15 공화국별로 1965년의 인구 수 당 수치를 산출하고 각 지표별로 지역 격차의 실태를 밝혔다.

Schroeder에 의하면 소련의 15개 공화국은 개인 소득에 따라 첫 번째, 발트3국,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번째, 조지아, 몰다비아, 카자흐스탄, 네 번째,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다섯 번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지표에 대해서도 거의 이 패턴이 유지되지만,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공화국 간 격차가 다른 지표보다 작은 경향이 보여졌다. 또한 1960년대의 시간적 추세를 보면, 개인 소득과 소매 상품 판매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고,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지출과 주택 면적의 두 지표의 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개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지역 간, 민족 문제 격차 축소를 주장하는 소련 정부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9) Schroeder, G. E. "Regional Differences in Incomes and Levels of Living in the USSR", in V. N. Bandera and Z. L. Melnyk eds., *The Soviet Economy in Regional Perspective*, (New York: Praeger, 1973)

## 4-1. 국민 소득

표 3에 나타나듯이 이미 1960년에 상당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최고의 국민 소득을 보이는 라트비아 공화국의 인구수는 최소인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1.8배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양국 간 격차는 더 확대되어 1987년에는 4.6배가 되었다. 또한 국민 소득 차이는 1960년 559 루블, 1970년 1,143 루블, 1987년 2,464 루블 (1958년 가격 기준)이다. 소련을 지역 구분하고 일인당 국민 소득 동향을 살펴보면, 소련 전역에서 가장 생산 수준 높은 공화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삼국이다.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슬라브 3개 공화국의 수준이 높지만, 러시아 공화국은 소련 전체 평균 보다 약 2배를 웃돌지만,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약간 밑돌고 있다.

(표 3) 공화국별 일인당 국민소득

	1960년	1970년	1980년	1987년
소련	682	1,213	1,803	2,155
러시아	757	1,395	2,148	2,582
우크라이나	660	1,174	1,646	2,086
벨로루시	521	1,022	1,831	2,562
에스토니아	889	1,651	2,460	2,881
라트비아	931	1,728	2,566	3,190
리투아니아	672	1,424	1,923	2,616
그루지아	486	832	1,461	1,736
아제르바이잔	542	700	1,202	1,469
아르메니아	502	917	1,572	1,931
몰도바	508	957	1,387	1,705
카자흐스탄	498	842	1,104	1,111
우즈베키스탄	447	645	899	890
키르기스스탄	432	708	896	990
타지키스탄	372	567	714	688
투르크메니스탄	514	639	692	714

\*. 일인당 국민 소득은 1958년 루블 가격임.

약 30년 동안 상승이 눈에 띄는 공화국은 벨로루시이다. 1987년 5위까지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어서 자카프카스 삼국의 수준이 높지만, 이들 국가의 수준은 소련 전체 평균의 80% 정도이다. 또한 이들 공화국 중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공화국의 지위가 소련에서 뒤지는 위치에 있다. 몰도비아 공화국의 수준은 이 자카프카스 공화국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 소련 중 일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공화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공화국이다. 이들 공화국들은 지난 30년 간 소련 전체의 상대적 지위를 저하시키고 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같이 1980년대에 그 절대적인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는 공화국도 있다. 이들 공화국에서는 인구 증가의 부정적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3에서 일인당 국민

소득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경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 4-2. 투자

일인당 국민 소득 부문에서 공화국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투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즉 공화국 간 국민 소득 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일인당 투자 액수의 공화국 간 격차는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농업 등 국민 경제 부문 외에, 주택, 교육 등 경제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투자도 포함 있기 때문에 일인당 투자의 지역 간 격차의 추이가 일인당 국민 소득 추이와 겹치지 않을 것이다. 일인당 투자 액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공화국 간 격차는 1960년대 후반까지 축소 경향을 보였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화국 간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 대한 평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70년대를 지적한다. 코시긴 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표 4는 일인당 투자 액수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발트 국가 중 에스토니아는 지난 30년간 평균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1960년대부터 소련 전체 평균을 상회하여 이후 1987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에스토니아는 30년간 변함없이 소련 전체 평균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공화국은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도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공화국은 소련 국내 경제 발전에서 우선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벨로루시의 경우도 점차 순위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카프카스 3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의 공화국, 즉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1958년~1987년 간 시종 평균 이하의 투자만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는 1980년대에 소련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일인당 투자가 낮은 안정형 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경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1960년을 기점으로 지역별 투자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투자 격차 확대 경향은 러시아, 벨로루시, 그리고 발트 3국의 비중 증대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비중 저하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절대 액수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4) 공화국별 일인당 투자액

	1960년	1970년	1980년	1987년
소련	170	240	499	723
러시아	189	259	597	877
우크라이나	147	206	381	553
벨로루시	103	192	433	765
에스토니아	194	291	552	755
라트비아	148	258	504	736
리투아니아	110	239	467	806
그루지야	114	175	350	565

아제르바이잔	143	167	322	501
아르메니아	136	230	362	510
몰도바	111	187	373	535
카자흐스탄	234	306	536	738
우즈베키스탄	115	207	330	367
키르기스스탄	120	176	271	353
타지키스탄	122	168	242	322
투르크메니스탄	185	281	423	565

#### 4-3. 소비

소비 수준 지표는 일인당 국영산업협동조합의 소매상품 판매고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지표에 집단농장 판매량이 더해져 전체 소매상품 판매고가 되지만, 집단농장 판매액은 전체의 1987년 기준으로 2.6%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체 소매상품 판매고는 거시경제 통계의 국민 소득 소비의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매상품 판매고는 소련 전국의 소비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표는 15개 공화국과 러시아 공화국의 11개 지역과 함께 총 26개 지역별로 측정하고 있다. 국민 소득과 투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지난 30년간 변화의 정도가 훨씬 적고, 또 일반적으로 지니 계수가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즉 195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격차가 축소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반대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화국 간 격차가 큰 특징이지만, 러시아 공화국 내 지역과 다른 공화국과의 지역별 격차의 변화 추이는 공화국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다. 우선 하락한 다음 다시 상승하는 경향은 변함이 없지만, 바닥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러시아 공화국 내에서의 평등화가 진행된 결과이다.

표 5는 가장 낮은 평등화가 진행된 1983년과 조금 더 불평등이 확대된 1987년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이 두 지표의 일인당 소매상품 판매고에서 본 소비 수준 순위에 약간의 변화도 있지만, 상위 3개 지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공화국 중앙지역, 하위 3개 지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의 순위는 변화가 없다.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발트 국가의 순위가 높고, 중앙아시아 국가 순위가 낮다는 구조에 변화가 없지만, 그 중 아제르바이잔 순위가 하위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1987년의 경우 이웃 국가인 그루지야의 66%, 아르메니아의 72%의 소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의 추세를 국민 소득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적어도 1960년 전후부터 생산액의 지역 간 격차는 거의 일관되게 확대 경향에 있다. 만약에 소비가 생산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하면 소비 수준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소비 수준을 전국적으로 균일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마가단주, 캄차트카의 경우 전체 평균과 러시아 공화국 평균을 훨씬 상회할뿐 아니라 소련에서 가장 소비 수준이 높은 에스토니아를 능가하기도 한다. 한랭지역 수당 등 소득 분배 혹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매상품 판매고의 지역 간 격차는 국민 소득 보다 작다. 이것도 격차 축소 메커니즘이 소련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표 5에서 알 수 있듯, 1983년에는 일인당 소매상품 판매고가 최고인 에스토니아의 수준

은 최소인 타지크 공화국의 2.63배였다. 그러나 1987년 그 값은 2.9배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격차 확대 경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1980년대 말 소련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비재 부족의 심각성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이것이 바로 소비 수준의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직결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재 부족은 적어도 격차 확대 가능성을 강화한다.

(표 5) 1983년 지역별 일인당 소매상품 판매고

소련	1,116.9	우크라이나	1,026.2
러시아	1,231.0	벨로루시	1,132.0
북부지역	1,276.2	에스토니아	1,639.0,
북서지역	1,403.0	라트비아	1,540.4
중앙지역	1,455.2	리투아니아	1,284.0
불가·바토카지역	1,051.5	그루지아	953.9
중앙흑토지역	981.6	아제르바이잔	655.5
불가	1,037.4	아르메니아	891.6
북카프카즈	1,006.4	몰도바	975.0
우랄지역	1,076.7	카자흐스탄	941.8
서시베리아	1,208.3	우즈베키스탄	736.8
동시베리아	1,131.8	키르기스스탄	769.7
극동지역	1,442.5	타지키스탄	623.8
칼리닌그라드	1,161.1	투르크메니스탄	777.7

1987년 지역별 일인당 소매상품 판매고

소련	1,165.8	우크라이나	1,140.2
러시아	1,284.9	벨로루시	1,338.1
북부지역	1,335.1	에스토니아	1,849.9
북서지역	1,533.7	라트비아	1,724.9
중앙지역	1,597.3	리투아니아	1,472.6
불가·바토카지역	1,122.3	그루지아	1,068.1
중앙흑토지역	1,047.7	아제르바이잔	710.0
불가	1,104.7	아르메니아	991.9
북카프카즈	1,063.3	몰도바	1,087.1
우랄지역	1,120.4	카자흐스탄	1,004.0
서시베리아	1,295.5	우즈베키스탄	711.5
동시베리아	1,216.2	키르기스스탄	800.9,
극동지역	1,526.9	타지키스탄	638.5
칼리닌그라드	1,210.9	투르크메니스탄	812.0

#### 4-4. 주택 건설

소련의 주택 건설은 스탈린 사후 정책이 전환되면서 급증하였고,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주택 건설이 이루어졌다. 1959-68년의 10년 동안 연간 220만호 건설 수준을 유지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10년 동안은 연간 200만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는 고르바초프 정부의 주택 증시 정책으로 1986년 210만호, 1987년 226만 5천호 건설이 되었다. 주택 건설과 더불어 나아지는 경향은 면적이었다. 소련 전체에서 한 사람 당 주택 면적은 1980년 평균 13.4㎡에서 1987년 15.2㎡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공화국 간 차이는 상당히 나타났다. 1980년 에스토니아는 소련 전체 평균 보다 33.2% 웃도는 주택 면적을 누리고 있었고, 1987년에는 36.8%로 증가되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한 명 당 3㎡의 증가가 있었다. 한편 타지키스탄의 경우 주택 면적은 1980년 전국 평균의 65.9%였다. 1987년에는 58.6%로 떨어졌다. 절대적인 수준은 같은 기간 일인당 주거 면적의 증가는 없었다. 주택 건설의 증가가 인구 증가에 따라가지 못해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도 마찬가지이다.

주택 격차 및 격차의 확대 경향은 도시 지역보다 특히 농촌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도시의 격차는 1980년에 최고 수준인 에스토니아가 가장 낮은 우즈베키스탄 보다 1.68배이다. 그러나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작지만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1980년 최고 수준인 에스토니아가 가장 낮은 타지키스탄의 2.80배였다. 이후 1987년에는 3.57배가 되었다. 게다가 타지키스탄의 경우 1980년 일인당 면적이 8.0㎡에서 1987년 7.6㎡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격차 확대가 소련 전체의 격차 확대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격차의 확대 경향의 이유는 아마도 주택 건설 또는 주택 공급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련에서는 주택 건설은 국영기업, 협동조합 기업, 주택건설 협동조합, 집단농장, 그리고 개인에 의해 건설된다. 1987년에 지어진 주택 중 70.9%를 국영 기업이 17%를 협동조합 기업이 6.8%를 주택건설 협동조합이 6.0%를 집단농장, 그리고 14.7%를 개인이 건설했다. 주택 면적은 건축 주체의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병원, 학교 등 의료, 교육 시설처럼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와 주택 건설과는 다른 차이이다. 게다가 농촌에서는 개인 소유 주택의 비중이 높고 이것이 말하는 농촌의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이 되었다.

#### 4-5. 의료

의료 부문은 다른 지수와는 다르게 여전히 평등화 원칙이 유지되었다. 198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의 전체 평균이 374명이었다. 1987년은 434명이다. 의사가 많은 지역은 러시아 공화국의 북서지역, 중앙 지역, 이어 그루지야 공화국이다. 공화국별로 보면, 그루지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이다. 그루지야의 의사 수가 많은 이유는 흑해 연안의 휴양지이고, 많은 사나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 수가 적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공화국이다. 인구 10만명 당 병상 수의 지역 간 격차는 다른 지표에 비해 훨씬 작다. 침대 수가 많은 지역은 극동, 동시베리아, 라트비아 순이었으며, 적은 지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공화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순위는 모두 의사 수에 대한 순위보다 좋고, 의사 부족을 약간 보충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하지만 의료 관련 지표가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게 나타나지만, 실제 현장의 격차는 존재한다. 유아 사망률이 대표적인 증거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발트 3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소련 국내의 남북 격차의 크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의료 서비스의 실정을 보면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고, 의사의 질에 문제가 있었으며, 병원 등의 시설이 노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의료용 기기 부족 등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술 중 정전이나 온수를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1970년 및 1986년 사이 카프카스 3국의 영아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아시아 국가는 증가하고 있다.

(표 6) 1980년 인구 10만명 당 의사 및 병상 수

	의사	병상		의사	병상
소련	374	1,247	우크라이나	364	1,251
러시아	403	1,295	벨로루시	338	1,249
북부지역	376	1,377	에스토니아	418	1,239
북서지역	614	1,267	라트비아	437	1,359
중앙지역	525	1,307	리투아니아	389	1,196
불가·바토카지역	315	1,278	그루지아	477	1,067
중앙흑토지역	297	1,228	아제르바이잔	334	967
불가	364	1,244	아르메니아	350	834
북카프카즈	365	1,154	몰도바	313	1,202
우랄지역	321	1,320	카자흐스탄	318	1,301
서시베리아	371	1,363	우즈베키스탄	285	1,131
동시베리아	340	1,349	키르기스스탄	290	1,196
극동지역	435	1,462	타지키스탄	235	988
칼리닌그라드	407	1,322	투르크메니스탄	283	1,046

1987년 인구 10만명 당 의사 및 병상 수

	의사	병상		의사	병상
소련	434	1,307	우크라이나	427	1,331
러시아	463	1,359	벨로루시	391	1,341
북부지역	429	1,378	에스토니아	479	1,226
북서지역	673	1,286	라트비아	493	1,408
중앙지역	596	1,368	리투아니아	443	1,258
불가·바토카지역	369	1,401	그루지아	567	1,081
중앙흑토지역	361	1,389	아제르바이잔	387	978
불가	422	1,332	아르메니아	392	856
북카프카즈	415	1,253	몰도바	393	1,286
우랄지역	384	1,390	카자흐스탄	387	1,332
서시베리아	435	1,359	우즈베키스탄	347	1,205

동시베리아	399	1,421	키르기스스탄	351	1,183
극동지역	483	1,445	타지키스탄	272	1,044
칼리닌그라드	452	1,367	투르크메니스탄	347	1,090

#### 4-6. 교육 · 문화

교육 · 문화 지표는 의료 지표뿐만 아니라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역 간 격차는 보합 또는 약간의 축소 경향이 보였다. 1980년 및 1987년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를 보면 러시아 공화국의 북서부지역 및 중앙지역의 수치가 월등히 높아 모스크바, 상트 베찌르부르그 두 도시에 고등교육기관의 집중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도 비교적 고등교육기관이 많다. 어쨌든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에 대한 지역 간 격차는 의료 지표와 마찬가지로 보합 또는 약간의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 소득, 투자 및 소비, 주택 등의 지표와 비교하여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 주체가 정부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V. 결론

소련의 지역 간 격차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거의 다 나타나고 있다. 주로 상위 계층은 발트 3 공화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계 공화국이었고,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경우 거의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조사가 실시된 30년간 거의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이 생산 수준에 따라 전면적으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소련의 재분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화국별로 본 투자 격차는 1960년대 후반까지 축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화국 간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투자 격차는 확대되었다. 즉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평등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의 지역 간 격차는 생산액, 투자액의 격차와 달리 극심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소련 정부가 국민 생활의 소비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평등화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에 관한 지역 간 격차는 도시 지역 보다 농촌 지역이 크고 1980년대의 증가세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의사 수와 병원 병상에서 본 의료 수준의 지역 간 격차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기회 수준의 지역 간 격차도 1980년대 보합 내지 소폭 감소 상태이다.

이상의 생활 측면에 대한 지표를 1987년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문화, 주택, 교육, 의료 순이었다. 1980년대의 이러한 지표의 동향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처음 두 가지 지표, 즉 생산과 투자의 지역 간 격차는 분명 격차의 현저한 확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소비와 주거와 문화 지표는 다소 확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료, 교육에 대해서는 보합 내지 소폭 감소 상황이다. 일반적인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생산과 투자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5가지 지표가 크게 격차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분명 여전히 이 분야에서 정책의 평등화 원칙이 살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소비, 주택 부문은 후반에 격차가 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특히 생산, 투자 등 일반적인 경제 수준

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쉬운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성장률 저하 경향은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동반하고, 그러면서 생산수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등화 원칙의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의료와 교육처럼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분야는 주로 정부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 말에 실시되었던 경쟁 메커니즘 도입으로 격차의 확대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효율성과 평등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 소련 정부는 양자 중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했을 것이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조금씩 평등에서 효율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문제는 경쟁은 패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경쟁의 출발점에서 이미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공화국들의 경우는 독립 재산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념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효율성에 대한 치중은 사회주의 체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효율화와 지역 분권 운동이 정체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효율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국가의 해체도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말 소련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이다. 효율화와 평등 사이에 풀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면, 공정함이라는 다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소련은 이미 붕괴하였다. 아마도 효율성과 평등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부족함의 문제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 Filtzer. Donald,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London: Pluto Press. 1986)
- Gregory Paul R. , *Restructuring the Soviet Economic Bureau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Gregory. Paul R.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Hodgman D. R. , *Soviet Industrial Production 1928–1951*,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Rees E. Aed. *Decision Making in the Stalinist Command Economy 1932–37* (London: Macmillan. 1997)
- Siegelbaum. Lewis H.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Schroeder, G. E. "Regional Differences in Incomes and Levels of Living in the USSR", in V. N. Bandera and Z. L. Melnyk eds., *The Soviet Economy in Regional Perspective*, (New York: Praeger. 1973)
- Straus, Kenneth *Factory and Community in Stalin's Russia: The Making of an Industrial Working Class*,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8)